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골 프 에 티 켓
Golf Etiquette

제주 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오 지 철

2016년 2월



골프 에티켓

지도교수 김재원

오 지 철

이 논문을 통역번역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오지철의 통역번역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

위 원_____

위 원_____

제주대학교 통역번역 대학원

2015년 12월

골 프 에 티 켓
개 정 판

차 례

서문	vii
서언	viii
개정판 소개	xi
제 1 장: 연습장과 연습퍼팅 그린에서	8
제 2 장: 복장 규정	18
제 3 장: 플레이 준비	25
제 4 장: 티에서	30
제 5 장: 페어웨이에서	41
제 6 장: 워터, 벙커 또는 레터럴 헤저드	54
제 7 장: 그린 위에서	60
제 8 장: 스코어 기록	70
제 9 장: 숙지해야 하는 룰	73
제 10 장: 토너먼트 대회	81
제 11 장: 비즈니스 골프	88
제 12 장: 리조트 골프장	100
제 13 장: 골프 장비	108
제 14 장: 골프 레슨	118
용어 간단정리	124
숙련된 골퍼와 초보 골퍼	127
골프 에티켓 중 피해야 할 10가지	128
편지 후기	129
추천 도서	130
저자들에 관하여	132
참고 서적	134

서문

골프 에티켓이란 플레이만큼이나 골프 라운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골프 역사를 통틀어 상대방 골퍼나 동료 골퍼들을 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례이다. 달리 표현하면, “먼저 치십시오.”라는 말은 단순한 골프 진행 절차 이상을 뜻한다. 말하자면, 코스 위에서는 누구나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골퍼는 골프의 규칙과 코스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오 백 년 이상 지속되어온 골프라는 놀이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프 에티켓』과 같은 서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읽어두면 도움이 되는 책이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골프 게임을 다음 세대들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전통들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벤 크렌쇼우

서 언

자신을 골퍼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한번쯤은 골프 규칙에 관하여 헛갈릴 때가 있다. 심지어 일부 어떤 이들은 골프 룰 북을 너무 장황하다거나 현대 골프에서 부적절하다거나 혹은 귀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엄격한 에티켓으로 룰을 갖고 플레이 하지 않아도 골프 플레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렵다고 말한다.

라운드를 함께 하는 동반자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골프 에티켓이다. 이러한 룰을 제정하는 기구인 USGA(미국골프 협회)는 골프 에티켓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출판된 모든 골프서적 서두에 에티켓에 관하여 몇 개의 제안들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골프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골프 에티켓은 더욱 중요해 졌다. 골프에티켓이라는 룰이 있다는 게 여타 스포츠와 다른 점이며, 그래서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함께 어울려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심지어 골퍼가 잘 안 되는 날에도 즐기면서 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책이 예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서적이 대학교 교과 과정에 있었다라면 반드시 읽었어야 했다. 여러분이 골프 규칙을 다 읽었든지 간에 골프 에티켓을 읽고 준수하면 당신과 함께 플레이하는 동반자와 즐기는 골프가 될 것이다.

탐 카이트

탐과 벤 모두 골프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이뤘고, USGA가 수여하는 밥 존스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스포츠맨십”이 규정하는 매너 있는 플레이, 성실한 플레이, 페어플레이, 자기 통제, 심지어 자기희생을 보여준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기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정판 소개

“골프는 게임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골프에는 종교, 열정, 사악, 신기루, 열광, 두려움, 농양, 기쁨, 흥분, 흑사병, 병, 정신 양양, 사색, 우울, 지난날 추억, 내일의 희망 등이 담겨 있다”

-뉴욕 트리뷴(1916)

골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플레이이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능력 플레이 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나고 거만한 것이다. 많은 골퍼들은, 최선의 샷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도 경기 속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골프 에티켓이란 골프 게임의 “불문율”을 말한다. 경기진행속도도 그 불문율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린 에티켓이란 단어는 오늘날과는 아주 다른 고지식한 시대를 연상케 하는 빅토리아 여왕시대에서 전승되어 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에티켓이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에티켓은 마음 씀씀이, 배려,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에티켓이 없으면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올바른 에티켓에는 환경과, 게임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담겨 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서로 유대감을 쌓아가게 된다.

바바라의 골프레슨 수강생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플레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는 초기 영국 챔피언 아비 미셴도 적극 동감하는데, 그 역시도 에티켓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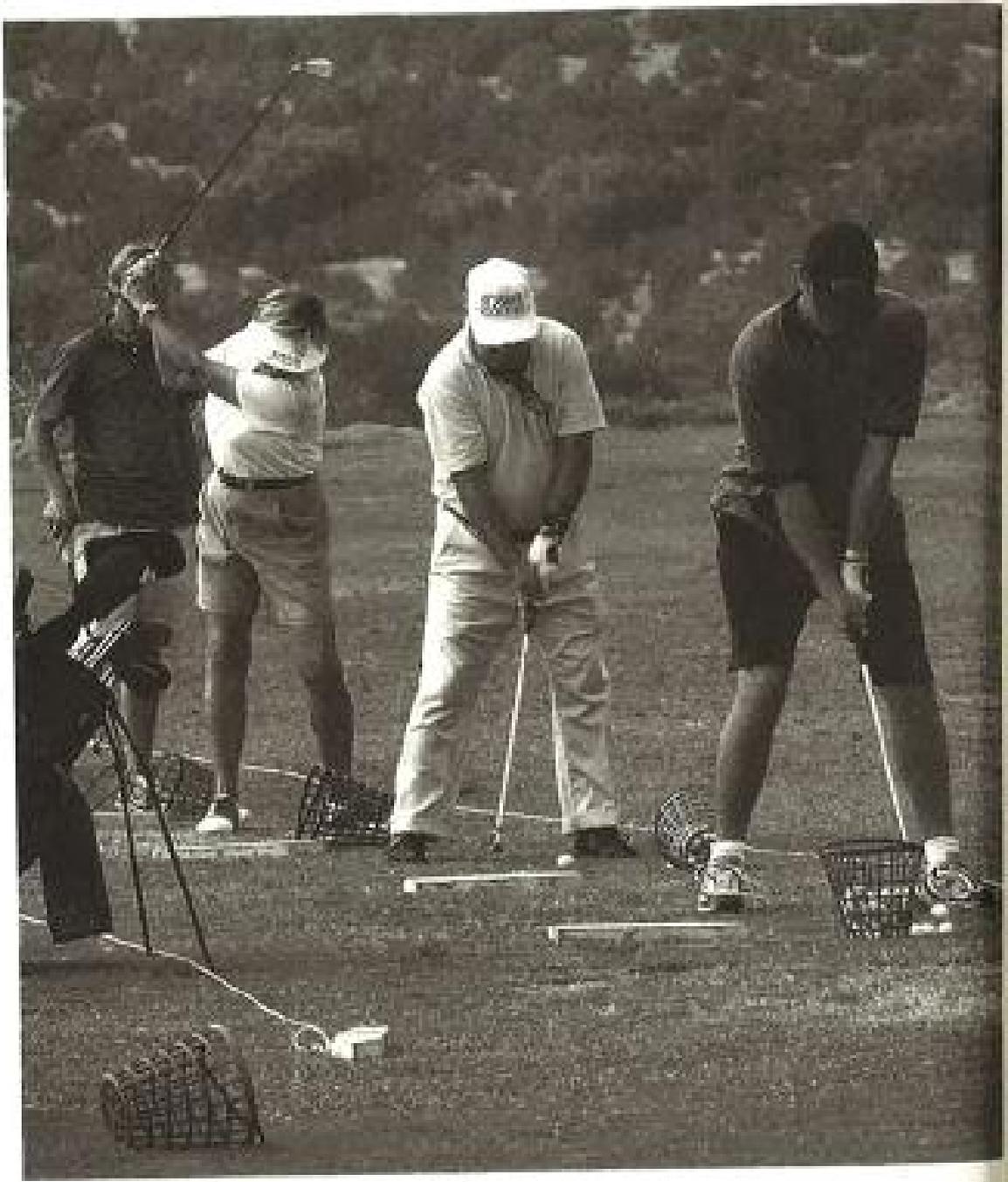
잘 모르는 게임을 하게 될 때, 에티켓을 알면 그 게임에 대한 상식과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에티켓은 골프라는 게임과 함께 계속 진화하여 갈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최신판도 나오게 된 것이다. 골프의 매너를 익히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오래가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

에티켓은 여전히 중요하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점점 많아져 갈 것이기 때문에 골프 에티켓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골퍼들이 과거의 골프와 미래의 골프를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유서 깊은 전통을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골프를 더욱 유쾌하게 즐기려면 에티켓 룰을 잘 아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하비 페닉(Harvey Penick)

골 프
에 티 켓
개 정 판



제 1 장 연습장과 연습퍼팅 그린에서

“모든 골퍼들은, 스윙을 하려는 순간에 자기 뒤에서 클럽이 확확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얼마나 짜증스러운 일인지 잘 안다. 그렇게 하는 게 몰지각한 행동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클럽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은 걸 참는 사람의 심정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밥 존스의 『바비 존스의 골프』

골프 초보자들에게 골프란 낯선 외국처럼 생소한 것일 수 있다. 에티켓은 골프의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골프의 도덕률을 배우면 어디에서든 무난하게 골프를 칠 수 있다. 에티켓을 배우면 많은 의문점들을 이해하게 된다. 골프에 대한 많은 전통들과 문화 및 관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에티켓의 핵심이다. 이런 에티켓 중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한 것인데, 특히 연습장에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골프 코스에서처럼, 용인된 프로토콜(protocol)이 있어야 질서의식, 편안함, 연습에서부터 실제 플레이까지 이상적으로 이어지는 리듬을 유지 할 수 있다.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 그건 사람들이다. 골프 매너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곳이나 주차하고, 핸드폰으로 재잘거리고, 운행 중에 끼어들기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연습장에서 처음으로 골프라는 것을 접하게 되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골프에 대한 상식과 관습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거기서 보게 된다. 저마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낮 시간에 네 시간 걸리는 라운드를 하기 위해 골프장에 가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혹은 출장 중에 기분전환으로 잠깐 짬을 내서 골프 연습하러 가는 경우는 많다. 골프 연습은 혼자만으로도 유익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혹은 친구, 가족 심지어 새로이 알게 된 사람과도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연습장에는 또한 식당, 레슨 교실, 골프 의류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서는 그린피만 내면 누구나 퍼블릭 골프장에서 라운드 할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골퍼가 게임으로 들어가기까지 에티켓을 포함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초보 골퍼들도 이를 따라야만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골프 코스에 입장하려면 먼저 룰과 에티켓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뿐만 아니라 기술 숙련도를 보여줘야만 한다. 샘플 퀴즈는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

5번 아이언 빌려 주시겠어요?

연습장에서는 반드시 본인 클럽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클럽이 없는 사람들은 골프채 회사의 샘플 상품이나 임대 클럽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담보로 신용카드나 운전면허증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연습장 볼 통

연습장에서의 좋은 점은 치고 난 볼들을 줍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습을 한 다음에는 백이나 볼 통을 그대로 두면 된다. 컨트리클럽이나 최고급 비싼 코스에서는 연습장 볼을 사용하는 것은 그린피에 포함되어 있기에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 연습장 볼들은 실제 골프공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것들보다 거리상으로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으기는 쉽지만, 가지고 가고 싶은 유혹은 별로 들지 않는다.

연습 볼 더미를 세팅하여 클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볼들이 튀어 나온다. 이 방식으로 해야 매번 새로이 볼을 준비할 필요 없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골퍼와 골퍼 사이를 분리시켜 주는 아무런 장치가 없을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해 준다. 앞에 놓여 있는 볼들은 당신의 타석 구역에 실수로 들어와서 스윙 하는 클럽에 맞을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리조트 연습장에서는 연습장 볼들을 피라미드식으로 멋있게 쌓아 둔다. (수작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이 있다.) 볼을 멋있게 장식하지 않더라도 당신과 당신옆 사람 사이에 그 볼들을 쌓아 두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 골퍼는 같은 선상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야 한다.

준비가 되었으면 치세요.

연습장에는 보통 골프 백 스탠드가 준비되어 있거나 말뚝, 보드 혹은 매트 등으로 각각의 골퍼가 칠 수 있는 타석이 있다. 지면에 로프가 있다면 타석 뒤쪽에 골프백을 놔 두어라. 당신이 좀 다른 방식으로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저 연습장에 처음 온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연습하고 있는 골퍼 뒤로 골프백을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그라운드에 두 개의 로프로 타석을 표시합니다. (만약 하나만 있다면, 항상 그 뒤에서 연습해라.) 타석은 보통 잔디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사용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타석의 위치가 바뀌면 표적 그린까지의 표시된 거리가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신은 로프 안쪽에서 연습하든지 또는 규정된 타석 안쪽 내에서 해라.

안내판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 밖에서 하고자 하는 이들과 로프를 넘어가서 연습하기를 좋아하는 골퍼들이 꼭 있게 마련이다. 이상한 각도에서 공을 치는 골퍼들을 조심해라. 가이드라인 내에서 연습하고, 혹시라도 불이 당신에게 날아올 수 있는 각도에서 어드레스¹⁾ 잡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라.

*안전*을 위해서 골퍼들은 같은 선상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야 한다. 골프장 소속 프로들은 그들의 회원들에게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연습장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누군가가 줄을 잘 못 서 있다고 해서 거의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도전적인 볼을 쳐보고 싶거나 또는 티 샷 하기 위해 몇 발짝이라도 선 밖으로 나가서 치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도 참아라. 날씨 조건과 계절적 조건에 따라 어떤 연습장은 매트 혹은 잔디로 된 티를 타석에 설치한다. 일부 연습장은 혼용하여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 연습장 티에서 보면 저 멀리 반대편에 있는 잔디는 항상 더 푸르고 많아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골프백을 메고 필드로라운드 하러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 디봇²⁾이 생겨도 별 개의치 않는 유일한 장소는? 연습장

골퍼들이 주의 할 점

골프장 직원에게 레슨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 연습장은 일부 여유 공간을 남겨 둔다. 안내 표지판을 통해 골퍼들에게 이러한 타석들을 피해서 연습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상황에 맞게 아이언과 드라이브를 선택

연습장 규모가 작거나 유지 보수 작업 진행 중이라면 아이언만 연습 가능하다는 표지판을 세워라. 아마 롱 드라이브로 치면 골퍼 혹은 지나가는 골프 차량에 맞을 우려가 있거나 혹은 보수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골프장 방침이라면,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어드레스(Address): 볼을 치려고 볼 앞이나 뒤쪽 지면에 클럽헤드를 대는 자세

2) 디봇(Divot): 볼을 쳤을 때 클럽이 잔디나 흙에 닿아 뜯긴 잔디의 조각



로프 뒤 마커 사이에 서야 하며, 볼은 가까운 곳에 뒤라.

상황에 맞게 아이언과 드라이브를 선택

연습장 규모가 작거나 유지 보수 작업 진행 중이라면 아이언만 연습 가능하다는 표지판을 세워라. 아마 롱 드라이브로 치면 골퍼 혹은 지나가는 골프 차량에 맞을 우려가 있거나 혹은 보수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골프장 방침이라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라운드 중 전화를 걸고 싶다면

연습장에서 연습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우리가 코스에서 실제 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연습장에서 경쟁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걸려오는 전화는 중요한 것들이다. 비즈니스 관련 전화나 당신의 파트너가 교통 정체로 늦는다는 내용이고, 또는 애들이 점심 먹을 돈을 안 갖고 갔다는 등등의 내용이다. 유감스럽지만, 골프 연습장은 도서관, 식당, 영화관 혹은 실제 골프 코스에 있는 것과 똑같다. 전화기를 들고 옆으로 가든가 아니면 한창 연습 중인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전화를 받아라. 당신의 전화로 인해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것이다. 당신의 스윙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핸드폰을 얼른 돌려서 받고, 목소리를 낮춰라.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버릇없는 행동이고,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골퍼들에게 재빨리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연습장의 편안한 분위기로 인하여 연습장 본연의 목적을 망각할 때도 있다.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근면함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주위가 아주 조용하고 방해 받지 않을 때 제일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나? 물론 TV를 켜 놓은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집에서 스테레오를 크게 켜 놓은 상태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신동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단지 자택의 사생활

에서 가능하다. 타인을 배려하여 타석에서 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연습장 끝으로 가라.

○ 안녕하세요! 접니다. 저는 지금 골프장인데요.. 어찌고, 저찌고

골프에는 핸드폰 방해에 대한 유머가 있다. 골퍼가 백스윙 할 때 “핸드폰을 230야드(210m)날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한다. 주위 사람 모두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연습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누군가는 아주 신중히 연습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연습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놀이 시간

골프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당신이 자녀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보기 좋겠는가? 누구나 그런 모습을 좋아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매너 있게 플레이하는 꼬마 애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식당이나 영화관 같은 곳에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종종 보게 되듯이 공공 예절이 필요한 골프 연습장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자주 보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있다. 조그만 꼬마 애들을 마음대로 뛰어 놀게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연습장 끝에 있는 빈 터에서 놀게 하면 조금은 나올 지도 모른다. 그러나 샌드 트랩(즉, 골퍼들은 기술적 용어로 그것을 벙커로 칭한다)은 단순한 모래 놀이 통이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근처의 벙커에서 놀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퍼팅 그린에서 아이들이 실력을 연마하게 할 수도 있다. 퍼팅은 아이들이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기술이다. 골프코스는 워낙 넓고 길어서 어린아이들이 주눅들 수 있지만, 연습 그린은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애들에게 맞는 적당한 사이즈라서 친근감을 준다.

부모와 자녀 간에 골프 레슨을 주고받는 것도 또 하나의 잠재적 논쟁거리가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자면, 골퍼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로 하는 지시적인 가르침 정도는 생생한 핸드폰 통화 소리가 그러 하듯이 에티켓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애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에는 목소리를 낮추어라. 물론, 연습장이 좋은 점은 넓다는 것이다. 골퍼가 혼자서 스윙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다. 혹시 저 멀리 끝 쪽으로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프로 골퍼들이 가장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레슨을 해 주는 장소가 바로 그 곳이다. 연습장이 복잡하고 시끄럽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지불 한 만큼 돌려받는다(팁)

초보자, 특히 여성들은 연습장에서 스윙 교습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데 종종 “원 포인트 레슨”의 형태로 나타난다. 연습이라는 특성상 골퍼들이 저항할 수 없는 취약성이 있다. 연습장은 오픈된 공간이므로 초보 골퍼의 실력이 노출되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유능한 프로에게 “진짜” 레슨을 받게 되면 해결 될 것

이다. 만약 선의의 “도와주는 사람”을 못 찾으면, 연습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 가장 실력이 모자란 사람을 찾도록 설득해야 한다. 단호하게 “고맙습니다만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연습 중이에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연습 퍼팅 그린” 견기

모든 골프장에는 연습 퍼팅 그린에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연습장에서는 볼 박스를 구입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기술인 퍼팅기술을 시간 나는 대로 그때그때 익혀가듯이, 골프 라운드 전이나 후에 하든지 혹은 퍼팅연습 하고 싶은 마음이 내킬 때 째째 하도록 하라. 하이힐 혹은 부츠를 신었거나 정장 혹은 카우보이 복장을 하던 간에 그린 밖에 있어야 한다. 매끄러운 그린 위에는 움푹 들어가는 자국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맨발 혹은 양말 신고 하는 것이 신발 혹은 힐 보다 낫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야기 해 줄 필요는 있다. 운동화는 괜찮다. 그린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린 주위에서만 돌아다녀야 한다.

- 연습 그린 위에 연습장용 골프 볼들이 주위에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골프 공을 갖고 퍼팅 하라.

안녕하세요? 저예요!

일부 클럽은 노골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금하고, 어떤 골프장들은 연습장에서 혹은 클럽하우스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한다. PGA 투어 이벤트에서 갤러리들은 핸드폰을 갖고 들어 갈 수 없다. 퍼팅 연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격식 없는 대충 세팅된 연습 그린에서 전화가 올지라도 볼륨을 낮추고 진동 상태로 돌려놓아라. 전화를 받으려면 그린 밖으로 나가라. 거기에서는 주위 방해 없이 자유롭게 통화 할 수 있다.

“롱 퍼트는 기회를 타고 날 듯이 여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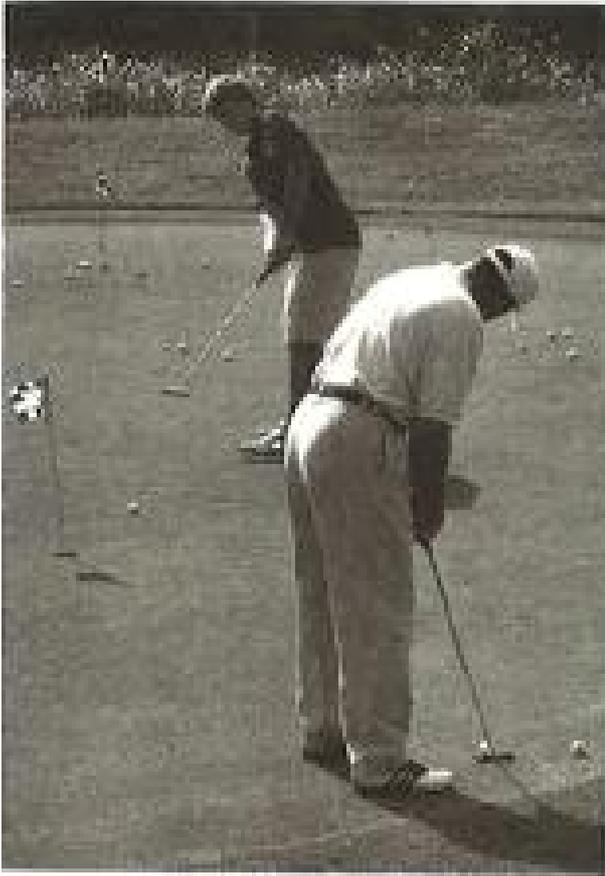
-버나드 다윈의 『골퍼를 위한 현명한 명언들』

퍼팅 쇼

그린 위에 사람이 많으면 홀 컵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라. 그린 위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통행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린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보통 넓게 퍼져서 연습하거나 또는 길고 짧은 퍼팅 및 다른 종류의 퍼트 연습을 위해 주위로 흩어진다.

퍼팅연습을 재개하기 전에 당신이 막 끝낸 홀 컵에서 멀리 이동하라. 너무 가까이 서 있게 되면 필요 없이 두 개의 홀을 독점하게 되며, 홀 컵 주변 다짐이 약한 구역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그린 위에 사람이 많을 때는 좀 더 가까운 거리로 가서 퍼트 하거나



홀 컵 없는 상태로 그린 구역에 티를 꽂고 거기로 퍼팅 연습해라. 홀 컵에서 깃대를 빼내고 다시 넣을 때는 주변 다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부드럽게 해라.

연습장용 볼이 아닌 실제 볼로 퍼팅연습해라. 사람들이 많은 경우 홀컵을 함께 사용해라.

칩과 퍼트

칩 샷 금지라는 표지판이 없으면 (칩샷이란 그린 바로 옆에서 홀 컵으로 하는 짧은 샷) 해도 괜찮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안전하게 해라. 그린 위에 사람들이 많아 복잡할 때는 좀 더 가까운 홀 컵에서 연습해라. 그린을 가로질러 하는 칩 샷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긴장 시키게 만든다. 타인의 잘못된 샷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동작으로 연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너무도 자주 발생한다. 초보 골퍼들은 짧은 거리의 샷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을 짧게 잡아야 한다는 걸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이다. 가끔씩 공이 잘못 맞아 아주 빠르게 나가기도 한다. 다른 골퍼의 머리를 맞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의에 벗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많은 그린 위에서 잘 못 쳐서 “볼이요!”라고 애처롭게 소리쳐야 하는 일처럼 당혹스런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꼬마 애들이 그린 위에서 내는 소리

연습 그린은 아이들에게 골프가 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다. 꼬마들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린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 위에서 뛰

면 안 된다고 일찍 가르쳐 주는 것은 골프에 대한 좋은 에티켓 교육이 된다. 꼬마 애들에게 연습 그린 주변에 골프 백, 풀 카트(심지어 꼬마 사이즈 풀 카트 (Pull Cart), 백, 스토롤러)등을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르쳐 줘라.

핵심 요약

- 연습장에서는 가이드 로프 사이에서 연습해라. 항상 타석에 있는 로프 뒤에서 연습해라. 당신의 백을 당신 바로 뒤에서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여기서 연습 중”이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 특히, 연습장의 불문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주의해라. 다른 사람들의 샷을 하는데 서 있지 않도록 명심하라. 연습 하는 사람들은 로프나 혹은 타석에 의해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일정하게 있어야 한다.
-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고 목소리를 낮춰서 받아라. 타석에서 떨어져서 가능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일부 코스에서는 연습장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며, 심지어 클럽하우스 내에서도 금지하는 곳도 있다. 퍼팅 그린에서 멀리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게 퍼팅 할 수 있다.
-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잔디상태가 좋은 가장 자리 쪽으로 꼬마 애들을 데려 가라. 연습 그린은 또한 꼬마 애들에게 퍼팅과 좋은 매너를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 그린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홀 컵으로 칩 샷을 하라. 어려운 샷 혹은 모험적인 샷을 하는 골퍼들을 조심하라.
- 힐 종류의 신발을 퍼팅 그린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 퍼팅을 재개하기 전에 당신이 막 끝낸 홀 컵에서 멀리 이동해라.



- 199년 스웨덴 골프에티켓 그린카드용 테스트 및 룰에서
- a. 각 티의 색깔은 무엇인가?
 - b. “볼가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c. 코스에서 경기 속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4가지 사례를 들어 보시오.
 - d. 뒤에 오는 팀을 패스시켜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 보시오.
 - e. 동반자가 샷을 할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나요?
 - f. 디봇 자국을 왜 수리해야 하나요?
 - g. 벙커를 나오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h. 그린 위에 있는 피치마크를 왜 수리해야 할 까요?
- 스웨덴 골프 연맹에서 -



1933년경 오스틴(텍사스)C.C 여자골프협회 직원들의 적절한 복장

제 2 장 복장 규정

“골프 스윙을 제대로 하려면 편안한 상태여야 한다. 샷은 집중을 요한다. 골퍼가 복장을 잘 갖추면, 샷을 할 때 마음이 흐트러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골퍼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의 말을 빌리면, 골프복은 험령하게 맞아야 한다고 하며, 여기 저기 주름을 넣어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 스네드의 『골프 하는 법(1946)』

“유행하는 특이한 옷을 입고서도 공을 쳐내거나 그럭저럭 해내는 걸 보면, 그거야말로 풀리지 않는 시대적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벨 E. 스트링어의 『골프 회상록(1924)』

좋은 복장을 하는 데에는 경험에 바탕을 둔 방법이 있다. 환경, 상황 또는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 적절한 복장에 대한 규정들이 다르다. 개인마다 의상 표현 방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어떤 복장이 적합하며 무엇을 입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

광택 가공 무명, 이회토(泥灰土) 방사, 혹은 실크 블렌드, 고대풍의 육계색과 회색 조개탄이 풍부하게 뚜렷한 흐린 감색의 니트 조끼 혹은 클래식한 짙은 감색과 화려한 짙은 감색이 강조된 크림 빛 폴로를 입을 수도 있다. 개인적 취향에 관계없이 쇼핑몰에서부터 할인점까지 모든 종류의 골프 웨어를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옷은 골프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입어도 된다. 보통 초청장에는 “컨트리클럽 캐주얼” 혹은 “골프 캐주얼”이라고 나와 있듯이 그것은 골프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복장을 의미한다.

적절한 복장

시 혹은 주(州) 복지부에서 운영 또는 소유의 퍼블릭 코스에서 허용되는 복장은 공공예절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10 또는 \$20짜리 싸구려 골프장들은 셔츠, 신발 아마도 바지만 입으면 입장이 허용 될 것이다. 반드시 골프화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린 잔디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하이힐, 부츠 혹은 다른 종류의 신발들을 신고 플레이 하는 것은 금한다. 가끔씩, 골프 치지 않는 동반자가 카트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린 위로 걸어올라 간다. 그 사람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전혀 모르고, 또한 그린 잔디를 회복시키고 관리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정 어린 보살핌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셔츠를 입어야 하고, 이것은 다른 동반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을 염두에 둔 신중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것도 당연하다고 간주하지 마라

골프 코스는 시소유의 퍼블릭 골프장부터 다양한 레벨의 회원제 코스에 이르기까지 등급제가 존재하는 일종의 계급제이라 할 수 있다. 특수한 예외도 있긴 하지만, 등급이 높은 코스일수록 라운드 비용도 더 들고, 코스 상태도 훨씬 좋으며 반바지와 청바지 착용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에 더 까다롭다.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긴 반바지착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데님 바지복장 출입은 허용된다. 스피도(Speedo)에 낚은 운동화를 신고 골프 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럭셔리한 리조트 코스에서는 더욱 그렇다. 복장 규정을 지나치게 위반한 사람들의 그 복장 이미지는 결코 잊혀 지지 않는다. 어떤 코스에서는 걷는 것이 허용되고, 일부 코스는 금지되어 있듯이 복장규정은 가지각색으로 다양하다. 어떠한 것도 추정하지 마라. 궁금한 게 있으면 프로숍 직원에게 물어 보아라.

칼라 있는 셔츠 입장 허용 여부

“(1일 요금제라고도 불리는)세미 회원제 코스”에서는 퍼블릭 플레이를 환영한다. 이런 세미 회원제 코스들은 약4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의 그린피를 받는 상급의 퍼블릭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수려한 몬트레이 반도를 따라 조성된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뛰어난 “퍼블릭”코스로 종종 일컬어진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맥심이나 다른 고가의 유명한 레스토랑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공개되어 있듯이, 페블비치의 경우도 카트피 포함 350달러를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오픈 되어 있다. 그것이 유명한 링크스 골프 코스를 라운드 한 사람들이 지불하고 있는 현재 그린피이다. 이런 요금을 내면서도 라운드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페블비치 골프장에서의 적절한 복장이란 어디서든 통용될 것이다. 즉, 칼라 셔츠에 바지 또는 긴 반바지 착용이면 된다. 하지만, 파란 청바지는 안 된다.



많은 세미 회원제 코스들은 “하루 동안의 컨트리클럽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 자랑스러워한다. 복장규정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이다.(골프를 치지 않는 동반자에게도 카트피를 받으며 그린피도 두 배로 받는다.)

남성들은 칼라 셔츠가 허용되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셔츠가 허용된다. 데님 바지 복장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가장 피하는 복장이다. 통계치 자료는 없지만, 많은 골프장에서는 드레스 규정을 잘 모르고 내장하는 골퍼들에게 현장에서 티셔츠를 판매하여 상당한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색깔 있는 데님 바지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검정, 무늬 있거나 베이지색 청바지 같은 복장도 마찬가지이다. 복장문제로 출입 금지 당하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확인하고 가야 한다.

누가 짧은 바지를 입을까?



짧은 숏 바지의 길이에 관한 허용 기준은 애매하다. 남성들(우리는 "어떤 골프장은 이런 복장이 허용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골프장은 저런 복장이 허용 될 거야! 왜냐하면 복장 규정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은 보행용 길이의 반바지를 입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무릎 위 4인치 정도의 반바지가 허용된다.

드레스의 공그른 단의선, 출입조건 또는 골프장 총지배인들이 바뀌듯이 스타일도 변한다. 우리는 전통 골프의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패션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복장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골프 라운드복장이라 할 수 있다.



- 런닝 반바지
- 홀터 탑
- 티셔츠(특히, 대학 신앙관련 문구 새겨진 옷, 멸종 위 기종 관련 등등)
- 컷오프
- 차단 셔츠
- 수영복
- 스웨트 셔츠
- 탱크 탑
- 크롭 탑

- 짧은 반바지
- 청바지(어떤 청바지든)
- 금속 미끄럼막이가 장착된 신발(시간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는 것)

당신은 최신 유행품목을 착용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심지어 타이트한 스킨도를 입은 셔터), 가장 좋은 건 관습에 맞는 복장을 입는 것이다.

컨트리클럽의 복장 규정

컨트리클럽에서는 그린피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내는 만큼 복장 규정 또한 다양해서 흥미롭다. 회원제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이 주관하는 기부행사에서 참여하고자 하면 그곳의 복장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비회원들을 초대할 회원제 멤버들은 클럽 복장 규정에 익숙해져 있어서 비회원 동반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을 잊어버리곤 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상으로 문의하면 될 것이다.

골프장 이름만으로 복장 규정을 간파하는 것은 어렵다. 명칭에 "컨트리클럽"이 붙어 있다는 것은 드레스코드가 있다는 것을 암시 하지만, 그 코스가 반드시 회원제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어느 골프장에서든 일반적으로 허용 되는 복장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남성은

칼라 있는 셔츠

슬랙 또는 보행용 반바지

여성은

칼라 있는 셔츠

무릎 위 4인치 반바지

여성 복장 규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간단치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코스에서는 티셔츠 복장을 허용하지 않지만, 점점 많은 골프장에서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의 많은 기부행사에서 티셔츠를 상품으로 나눠주게 되고 골프장에서는 티셔츠 라운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매 없는 셔츠 또한 정하기가 애매하다. 소매 있고 칼라 없는 셔츠가 허용되는 골프장에서는 소매 없는 셔츠는 반드시 칼라가 있어야 한다. 반바지는 라인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길이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테니스처럼, 골프 패션도 진화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그린피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프장이 더 고급일수록, 복장에도 그 만큼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부 골프장에서 지급된 칼라 없는 셔츠 복장이 허용되는 점 때문에 남성골퍼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하지만, 그 셔츠들은 골프 로고가 새겨져 있다. 페블비치와 같은 세미 회원제 골프장이 그들만의 룰을 가지고 고가의 그린피를 책정하는 것과 똑같이 좀 더 전통이 있는 오래된 골프장들은 그들만의 복장 규정을 갖고 있다. 한 수강생이 골프장 드레스 코드에 어긋나는 데님 스커트 복장을 했다는 이유로 전통 있는 회원제 골프장 입구에서 출입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골프 라운드 하러 거기에 간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사러 왔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골프장 측에서 그녀에게 정중하게 입장 불가를 알렸다.

◎ 1977년 낸시 로페즈는 그녀의 바지 지퍼가 고장 나서 홀리스 스테이시에게 2 타 차이로 U.S 오픈에서 지고 말았다. “저는 단지 19살의 어린 나이였고,

제 팬티가 보일까 봐 신경 쓰여서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교훈: (만일을 대비하여) 안전핀을 챙겨라.

반바지 착용

바바라와 잭 헤이드는 둘 만의 에피소드가 있다. 스페인 남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잭은 유명한 코스인 발더라마코스에서 라운드가 예정 되어 있었다. 바바라는 친구와 함께 카트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기로 했다. 그녀는 멋져 보이는 데님 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바지 길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그녀는 코스 출입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잭의 여벌 반바지를 빌려 입었다. 그리고 나서야 골프 코스에 입장이 허용되었다.

신발이 맞는다면

간호사가 근무 할 때 신는 신발과 달리 최근의 골프신발들은 진짜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 런닝화, 크로스 트레이닝화, 산책화, 썬달, 날개 달린 많은 신발들이 골프화 대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런 신발들은 훨씬 가볍고 착용감이 편안하다. 요즘 골프화 스타일이 혼합되고, 신발 착용규정이 완화되었지만, 대부분의 골퍼장들은 그런 신발을 착용하기를 바란다.

일부 골퍼들은 금속 스파이크에서 나오는 기분 좋은 소리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애석해 하고 있다. 골퍼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을 “클랙키티-클랙 (clackity-clak)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골퍼장들은 부드러운 리트(고무 또는 플라스틱) 골프화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대부분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프로골프 순회경기에서도 착용 되고 있다. 운동화(지금도 운동화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는 좀 더 고급 골퍼장에서도 허용 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코스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술집 같은 바에서 당신 옆에 누군가가 운동화를 신고 왔다면, 골프화 관련 종사자들은 ‘골프화는 운동화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갑피용 가죽, 경량의 신축성 있는 밑창, 공기조절, 통기성화 등등. 달리 말하면, 잔디와 같은 거친 곳에서도 내구성이 있고, 좀 더 편안한 골프화가 되는 것이다.

오로지 골퍼용으로 제작된 썬달 같은 경우 시각적으로 혼돈스러울 수 있다.



코스에서 이런 신발을 착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라운드 하는 골퍼장에 직접 문의를 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 썬달 신고 라운드 하려면 양말을 착용해야 가능할 수도 있다. 퍼블릭 코스에서는 아마도 썬달 밑창이 편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코스 라운드 하는 플레이어의 동반자들은 비록 라운드 안하고 카트만 탑승할 지라도, 신발 착용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힐이 높은 것은 안 되며, 부츠 또한 안 될 것이다.

뻗뻗한 상위 커버

안타깝게도 골퍼들은 햇빛 노출이 얼마나 해로운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야구 모자나 바이저가 인기 품목이긴 하지만 햇빛을 적절하게 차단해 주지는 않는다. 위 끝부분이 충분히 넓지 않아서 귀, 목 부분과 얼굴 밑 부분은 햇빛을 가려주지 못한다. 골프장에서 야외용 보호 장비는 중요하지만, 클럽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모자와 캡은 벗어야 한다. 일부 고급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에서는 남성들이 모자 쓰고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프로선수들이 입는 복장

프로골프 선수들은 때로는 이 전통을 약간 벗어나기도 한다. 색깔을 맞추고 전문가가 제작한 옷을 입은 고가를 지불한 모델들과 옥외 광고판은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심지어, 예전에는 고급 골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 수준의 프로골프선수가 칼라 없는 변형된 터틀넥 같은 티셔츠를 착용해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

PGA투어 협회는 약식 복장으로 인해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드레스 코드가 있지만 프로골프 선수들은 정식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반바지 착용은 금지 되어 있다. 현재, 캐디들만 다리가 보이는 복장이 가능하며, 그것도 더위로 인한 탈진 등 사고가 몇 차례 일어나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반바지 착용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골프는 왜 그렇지 못한지, 반바지가 프로골프라는 스포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골프가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어떤 이는 그런 규정에 다음과 같이 외친다. “우리 남성들도 반바지 착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 남성들은 정도를 고집한다. 그런 고정관념은 진부한 것이다. “당황스런 노년기의 발견”이란 칼럼에서, 샌프란시스코 칼럼리스트 허브 캔(Herb Caen)은 “골퍼들은 일부러 이런 이상한 복장을 하고 라운드 한다.”라고 말했다. 칼라 있는 골프 셔츠, 슬랙, 골프화는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우아한 표현의 일환이며 어디서든 통용된다.
- 여성들은 데님 바지, 티셔츠, 땀 북, 짧은 바지, 조깅 반바지 또는 런닝 반바지, 탱크 탑, 홀터 탑, 크롭 탑, 컷 오프, 또는 금속 클릿 착용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는 스웨터, 터틀넥, 잠바 등은 허용되나, 땀북은 피하라.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무릎 위 4인치 바지 및 칼라 있는 셔츠가 적당하다. 전통 있는 오래된 골프장이나 더 고급스런 골프장일수록 기장을 내린 반바지 복장이 허용된다.
- 퍼블릭 코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장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라운드 하는 친구와 함께 카트만 탑승하더라도 골퍼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프실력이 부족한 골퍼일수록 티셔츠를 입는 경향이 있다.

(2000년 다렐 설문조사에 의거)

-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은 프로숍 직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 PGA 투어 프로선수 매뉴얼에 따르면,

1. 프로선수 복장 규정

프로선수들의 복장과 개개인의 몸단장은 산뜻하여야 한다. 선수들이 입는 의복은 현재 골프패션에서 통용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대회 경기위원장은 이 규정을 선수들에게 설명해 줘야 하며, 대회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3 장 플레이 준비

“골프의 소리는 독특하고 달콤하다. 그것들과 더불어 방금 깎은 잔디 향기, 등 뒤로 비추는 햇살의 감촉, 저 멀리 그린 깃발이 나무끼는 아름다운 풍경 등으로 가득 찬 골프장은 당신을 더 나은 세계로 데려다 줄 수밖에 없다.”

-개리 플레이어의 『인생의 의미로 가는 골퍼의 지침서』

전화번호부를 살펴보면 골프장이 퍼블릭 플레이어의 가능여부를 말해 줄 것이다. 도착해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출발하기 전에 항상 전화로 확인 먼저 해 보아라. 골프장에서 대회가 진행 중 일수도 있고, 코스관리를 위해 코스가 휴장 될 수도 있다. 그린피는 얼마인지, 티오프³⁾ 시간이 있는지, 복장 규정이 있는지, 탑승카드 인지 아니면 수동 카드 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조인해서 라운드 하는 건지 등등 사전에 E-메일 등으로 문의하면 바로 상세히 대답해 준다.

일몰 요금제

늦은 오후 시간대에 라운드를 예약하면서 그린피 가격이 저렴한 일몰 요금제가 있는지 골프장에 문의해 보아라. “골프장의 손님들이 빠져 나가는 썰물” 시간대는 초보 플레이어들에게 있어서 라운드 하는데 이상적인 시간이다. 두 가지 일몰 요금제가 있다. 한 가지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시작되는데, 일광이 바뀌는 시간대와 환절기 때 요금이 조정된다. 골프장 가동률이 저조할 때 그린피 가격을 낮춰서 고객들을 끌어 모으는 판촉행사를 벌인다. 일몰은 또한 아이들에게 골프를 접하게 해 줄 수 있고 또는 해질녘 9홀 라운드를 원하는 사람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이기도 하다. 늦은 티오프 시간일지라도 계절에 따라 골퍼들이 조그만 서두른다면 18홀 라운드를 즐길 수도 있다. 인기 있는 골프장에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 일부 골프장에서는 금요일을 주말로 간주하여 그린피가 주말요금에 해당한다.

티타임

티오프 타임을 무조건 예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티타임은 황금 시간대(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예약하는 것이다. 퍼블릭 코스에서는 플레이어가 4명보다 적은 경우 주로 대기자 명단에서 불러와서 조인시킨다. 당신 혼자이거나 친구 한 명이랑 라운드를 원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리면 곧 해결된다. 2인 일 경우 쉽게 조 편성이 이루어진다. 4인 편성이 안 될 경우 미리 프로숍 직원에게 알려주면, 담당직원이 4인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 프로숍 직원에게 질문

3) 티오프(Tee Off): 티에서의 첫 샷을 말한다. 티오프 시간은 스타트 시간, 즉 티타임이다.

을 하면,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준다.

티타임을 비행기에 비교한다면 이륙시간에 해당한다. 티타임은 이륙시간을 말해주는 것이다. 8시 10분 티타임이란 말은 골퍼들이 첫 번째 티에 모여서 첫 번째 드라이버 샷을 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정된 티오프 타임 2분전에는 어슬렁거리며 프론트에 도착하여 스낵바에 들린 후 골프 클럽을 가지러 주차장으로 가는 골퍼들은 아마 라운드를 못할 수도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은 공항에서는 결코 비행기를 못 탄다. 골프의 티타임도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골퍼는 미리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예약된 티오프 시간을 확인한 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라운드 준비할 태세를 갖추고 티로 이동해야 한다.

티타임은 주로 8분에서 10분 간격이다. 프론트에서는 PA시스템으로 임박한 티타임 골퍼들에게 안내방송을 한다. (티타임에 맞춰 종종 24분, 16분, 8분 간격으로 주로 방송한다). 따라서 골퍼들은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골프장은 그 고유의 티타임 시스템을 갖고 있다. 골프하는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에서는 골프장근처에서 숙박하거나 줄 서기 위해 이른 시간에 골프장에 가는 경우가 많다. 토요일 오전 시간대 예약하기 위해 프로숍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어떤 경우에는 전화로 예약하다 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티타임을 얻을 수도 있다.

티타임 취소

고객이 많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노쇼(No-Shows)가 발생하면 대기인원에서 바로 채워진다. 고급 골프장에서는 예약시간 24시간 또는 48시간이전에 예약취소가 가능한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티타임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위약금 발생시간 이전에 취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 골프에서의 티타임은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예약 하는 것과는 다르다. 레스토랑과 달리 골프장에서는 당신의 “예약 자리”가 보전되지 않는다. 공항에서 08시 10분 비행기가 08시 10분에 출발하는 것처럼 골프에서는 유행에 맞춰 늦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는 지각하면 실격을 의미한다.

정시 도착

티타임 최소 30분전에 골프장에 도착하라. 골프장은 골퍼들이 주차장에서부터 프로숍을 거쳐 첫 번째 티로 가는데 되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라운드를 준비하라.

저렴한 골프장 또는 퍼블릭 코스. 골프클럽을 클럽하우스까지 갖고 가라. 골프클럽을 기 설치된 클럽 보관대에 놓아두어라.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프로숍에 들어갈 때 클럽을 안으로 갖고 가지 마라. 어떤 골프장은 골퍼들에게 골프백을 내부로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사인물이 있다. 사인물이 없더라도 그런 관행은 일반

적이다. 끌고 다니는 수동 카트는 개인이 직접 지참해도 되고, 대여도 가능하다.

어떤 골퍼들은 프로숍으로 먼저 가서 카트를 확보 한 후 다시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카트를 몰고 가서 클럽을 챙기는 것을 선호한다. 라운드가 끝날 무렵 카트를 반납하기 전에 백을 다시 갖다 놓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주차장으로 카트를 몰고 간다. 약간의 열쇠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 예치금을 찾기 위해 프로숍으로 다시 가야 한다.

고급 골프장 또는 회원제 코스 와 세미 회원제 코스. 고객이 승차한 채 골프 백을 내리는 곳도 있고 또는 당신을 주차장에서 카트로 모셔다 주는 직원이 있는 곳도 있다. 그 직원이 당신을 모시고 프로숍까지 데려다 준다. 공항에서 당신 짐을 옮겨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팁을 줘도 된다. 1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팁을 많이 주는 사람은 더 주기도 한다. 라운드가 끝날 무렵 직원이 기다렸다가 골퍼의 클럽들을 깨끗이 닦아준다. 이런 경우 보통 비슷한 금액의 팁을 준다.

백 드롭

대리 주차 서비스가 없는 경우 백 드롭을 찾아라. 자전거 보관대처럼 생긴 백 드롭은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 프로숍까지 골프 클럽을 운반할 필요 없이 편리한 간이역을 제공한다. 백을 내리기 위해 더블 주차해도 된다. 가벼운 백은 그냥 주차하고 걸어서 운반해도 된다. 프로숍 밖에 골프 클럽대가 없다면 벽에 백을 기대 세워라. 모든 골퍼들은 반드시 골프백을 소지하여야 한다. 두 명의 골퍼는 아이언을 분배하여 한 세트의 골프 클럽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여도 되지만, 골프백과 퍼터는 각각 지참해야 한다.

- 백을 메고 다니는 골퍼들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클럽 몇 개를 언제나 놔두고 다닌다. 비공식 토너먼트 경기는 각각의 플레이어가 단지 3개의 클럽만 소유하도록 한다. 심지어 하나의 클럽만 갖고 하는 행사도 있다. U.S 오픈에서는 7개의 클럽을 갖고도 우승한 적이 있다.

골프화

저렴한 골프장 또는 퍼블릭 코스. 주차장에서 골프화를 갈아 신어도 된다.

고급 골프장 또는 회원제 코스와 세미회원제 코스. 주차장에서 골프화를 갈아 신어서 일반 신발을 트렁크에 놓으면, 골프장 직원이 클럽들을 프로숍까지 운반해 주거나 또는 카트 걸이에 놓아준다.

컨트리클럽이나 리조트 코스. 골프화를 클럽하우스로 갖고 가서 라커룸에 놓는다. 컨트리클럽의 회원들인 경우 지정 라커를 갖고 있으며, 일반 비회원 손님들은 일반 신발을 밖에 내놓아 두면 신발을 닦아 준다. 그럴 경우 2달러에서 5달러 정도의 팁을 건네주면 된다.

스타터

많은 골프장에서는 그린피를 지불한 후 스타터에게 최종 사전 체크를 한 후 라운드를 나가게 된다.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스타터의 요청에 대비하여 그린피 지불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명단에 있는 이름을 재확인 후 시작 시간을 확인할 것이다. 그는 스코어카드랑 몇 개의 연필을 나눠주고 코스를 추천해 줄 것이다. 카트 운행 규정, 핀 위치와 다른 마지막 정보들과 라운드 지침을 함께 확인해 줄 것이다. 장내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올 것이다. “스미스씨 일행 네 분 티로 이동 바랍니다. 칼리슬님 일행 네 분 8분 후 대기바랍니다. 페레즈님 두 분은 엘리슨님과 데비스님과 조인해서 16분 후 티오프예정이며, 아벨님 일행 네 분은 24분 후 라운드 있습니다.”

일부 고급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지정된 암호가 있어야 한다. 스타터나 경기 진행요원에게 물어보면 그 암호코드를 알고 있다.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골프에서는 수비가 없다. 에티켓 룰을 보면 골프는 우리 자신의 화, 내부 갈등과 흐트러진 마음을 극복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이기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좋은 에티켓이란 적절한 타이밍에 침묵하는 것 또는 적절한 속도로 라운드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로랜드 메를로의 『골프에 대한 열정』



당신의 샷 순서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위치는 골퍼의 시선이 보이는 곳에 인접하여 서는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제 4 장 티에서

“골퍼가 스윙을 준비하고 있다면, 팀의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플레이어가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애버딘의 골퍼 모임에서(1783)

연습장과 연습그린은 샷을 연구 및 향상시키는 곳이고, 골프 코스는 골프 라운드를 위한 곳이다. 게임에 집중하라. 프로숍은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 후에만 방문하라. 코스 라운드의 핵심은 공을 치고 찾고 다시 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최소한의 샷으로 공이 킵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치는 것이다. 당신 팀이 티에 일단 올라가는 순간부터 경기 진행 시간을 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물쩍 거리거나 진행이 늦은 골퍼는 재빠르게 백업 플레이 할 수 있다.

골프의 구력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골퍼에게 요청 하고 싶은 말은 경기 속도 시간을 준수하라는 것과 활발하게 플레이 하라는 것, 게임의 매너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골프장과 타인에게 배려를 하라는 것이다.

골프 라운드는 악수로 시작되고 악수로 끝난다. 골프는 개인적인 오락이지만, 동반자 모두는 이로 인한 기쁨과 실망을 함께 공유한다. 골프는 서로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운동이다. 골프에는 두 가지 적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골프코스이다. 편을 나눠서 진행하는 내기 골프가 아닌 이상 4시간 동안 골퍼들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게 된다.

소설가 P.G. 우드하우스(Wodehouse)는 “그들은 친구들이였다는 걸 기억해라! 친구들은 수년간 서로의 기쁨과 슬픔, 골프 볼을 함께 했고, 그리고 슬라이스로 같은 병커에 빠지기도 했다.” 라고 기술하였다.

첫 티 소개

첫 티에서 팀이 편성되거나 내기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골프 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또는 “저는 보통 9홀에 55타 칩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러나 당신은 본인의 스코어를 낮추고 싶을 것이다. 그런 것은 괜찮다. 본인을 과소평가하거나 미안해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이는 동반자의 실력을 알아내려고 집중한다.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실력의 레벨을 수치화 한 핸디캡을 밝히게 된다면, 당신의 핸디캡이 21이나 36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핸디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다룬다.)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당신이 공을 잘 치건 못 치건 간에 사람들이 티 위에서 당신의 샷 하는 모습을 쳐다본다는 것이다.”

- 웨인 그레츠키의 『에드몬튼 썬, 2002년 7월 23일』

모든 골퍼는 긴장을 한다. 그리고 기대하던 첫 티의 순간은 더욱 더 긴장이 된다. 초보 골퍼인 경우 이야기를 건넌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어떠한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런 권유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골퍼라면 누구나 실력에 상관없이 골프 코스에 들어서면 일정하게 부담감을 갖는다. 모든 골퍼들은 *게임과 전통, 상대방과 골프장을 존중하기 위해 시간을 준수하면서 플레이 할 것을 맹세한다.* 당신은 이제 막 배우는 중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 챌 것이다. *절대 상대방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 스윙에 관한 조언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동반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말하지 마라

몇몇 골퍼들은 첫 번째 티에서 본인들의 아픈 것에 대해서 늘 관행처럼 이야기 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처음 라운드 하는 동반자가 본인의 병력을 모두 말하게 된다. “너무 아파요” 또는 “이것 때문에 오늘 힘들겠네요. 제가 오늘 당신의 플레이를 망칠지도 모르겠네요.”와 같은 말에 대해서 초보자들은 억지로 맞장구 쳐 줘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능숙한 골퍼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은 “저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골프를 못 쳤어요. 저는 그 때 이후로 골프를 쳐 보지 못했어요.”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 정도로 허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말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나이 드신 이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아주 짧은 반응을 듣게 될 수도 있다. 4시간 라운드 하는 동안 투덜대는 소리를 들어주러 온 것도 아닌데, 이 허풍꾼들이 즐거운 오후 라운드를 망쳐 버린다. 또 다른 만성 허리통증 이야기가 끝나면 알 수 없는 열대성 병에 대해 주제가 바뀌고 알레르기와 유령 통증, 심지어 곧 받게 되는 수술 이야기 등으로 이어진다. 심기증 환자와 비관론자는 때 라운드가 모두 처음 시작하는 라운드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노련한 플레이어라면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연약한 사람의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들어 주어도 안 된다. *골프는 게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보 골퍼는 경험 있는 골퍼들에게 동정을 바라서도 안 된다. 경험 있는 골퍼는 어지럽다거나 건초염, 심각한 숙취로 힘들어 하면서도 73타를 또 치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머리에 볼을 맞히게 되면 꼭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맨십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모든 이의 게임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장단점이 곧 드러난다. 골프에는 늘 좀 더 나은 사람과 좀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자명한 이야기가 있다. 한 홀에서 7타 치고 홀 아웃 하면, 골퍼중의 반은 그 점수에 신경 안 쓰는가 하면 나머지 반은 8타를 쳤기를 바란다.

- PGA 투어 최고 선수 한 명은, 퍼팅이 아주 안 되면 오늘은 “배에서 내려도 샘을 팔 자리가 없더라.”고 불평을 하곤 했다. 이 자조적인 골프 유머는 널리 퍼져 회자되고 있으며, 특히 전후 상황이 부합할 때 매우 웃기는 말이 된다.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침착하게 잘 헤쳐 나가기 바란다.

적절한 티에서 플레이 하라

적절한 티를 골라 플레이 하는 것은 골퍼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대부분

의 골프장은 여러 세트의 티가 있다. 리조트 골프장에서는 매 홀마다 5개의 티가 있기도 하다. 모든 골퍼의 숙련도에 부합하는 각각의 티가 따로 있다. 본인에게 맞는 티를 지혜롭게 선택하자.

골프 코스에서 티(Tee)는 스키종목에서 슬로프와 같이 골프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있다. 능숙한 스키 선수는 가장 어려운 코스를 선택하듯이, 능숙한 골퍼 역시 백 티라는 가장 도전적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스키 초보자가 쉬운 코스를 고수하듯이 초보 골퍼 역시 레귤러 티나 앞쪽 티에서 플레이를 할 것이다. 골프란 (어느 티를 사용할 지) 참작 하는 게임이다. 각각의 플레이어는 본인에게 맞는 티를 선택함으로써 그에 맞는 적절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스키 초보자가 동반자를 따라 전문가용 슬로프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골프 특성상 뼈가 부러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산에 같이 있지만, 다른 슬로프를 이용한다면 스키를 타는 즐거운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 골프는 이와 다르다. 티 위치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는 같은 곳에서 함께 플레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골프 시합을 하더라도 서로 공평하게 만들어 주는 핸디캡 시스템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티를 사용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티 선택을 해라. 예를 들어, 두 명의 골퍼는 챔피언 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나머지 두 명의 골퍼는 프론트 티에서 플레이를 해도 된다. 잘하는 플레이어는 그들에게 맞는 티를 직접 선택하게 해라. 적절한 티를 선택해라 또는 코스 직원에게 추천 받아라. 결국 티를 올바르게 선택함으로써 라운드가 즐거워지고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다. 리조트 골프장에서는 동반자가 티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키 초보자가 목숨 걸고 전문가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것처럼 이와 유사하게 경솔한 골퍼 역시 신체적 외상은 아니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각오하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티에서 플레이하기도 한다. 골프란 올바른 티에서 플레이해야 더욱 즐거워진다.*

유념하라

골퍼들이 각자 다른 티에서 라운드를 하게 되면 잘하는 골퍼는 언제나 백 티에 먼저 가서 가장 먼저 플레이를 하게 된다. 가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공을 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카트를 몰고 가버린다. 특히, 남녀 혼성으로 라운드 하는 경우 이런 성가신 일이 일어난다. 여성들은 훨씬 앞쪽에서 티 샷을 하는데, 대개 가장 마지막에 하고, 남성용 티와 달리 앞쪽에 위치한 여성용 티 약간 한쪽 옆으로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며, 당한 쪽이나 저지른 쪽이나 관대하고 때로는 익살스럽게 처신해야 한다. *그들이 잘하든 먼저 하든 모든 골퍼를 똑같이 배려해야 한다.*

순서 정하기

티 샷 순서는 동전 던지기, 티 뽑기, 제비뽑기 등으로 하는데, 순서 정하는 형식의 절차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골프 볼은 챙겼는가? 티는 챙겼나? 내 클럽이 맞는가? 그럼 준비 되었다. 올라가서 샷 하자. 아무도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지켜야 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당신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당신부터 하세요.”

“먼저 하세요.”

“못하겠네요.”

한마디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당신이 먼저 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으면 수락 하여라. 먼저 시작해야 한다면 그 순간을 즐겨라. 만약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독려해라.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새치기가 아니다. 테니스처럼 코트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 하는 것도 아니다. 플레이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난 준비됐어요. 먼저 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 모든 티 박스에서 눈앞에 보이는 페어웨이가 비어 있다면 누군가는 즉시 티로 올라가서 티 샷을 해야 한다. 티 샷을 여전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스윙을 할 때에 잡음을 내거나 클럽을 떨어뜨리거나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해라. 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분의 볼과 티를 미리 챙겨라.

- 연습 스윙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력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중국의 물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 한 번의 연습 스윙이면 충분하다. 스윙으로 잔디를 상하게 하거나 디봇(Divot)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아너

첫 번째 플레이어는 *아너(Honor)*⁴⁾를 갖는다. 이것은 단어 뜻처럼 용기나 용맹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플레이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골프에서는 분명히 차례가 정해져 있다. 첫 홀 다음부터는 낮은 점수의 골퍼가 먼저 티 샷을 한다. 만약 티가 각각 다르다면 대개 백 티의 플레이어가 먼저 친다. 만약 두 명이 한 티를 사용한다면, 낮은 점수의 플레이어가 먼저 티 샷을 한다.

하지만, 룰을 지키면서 아너가 항상 먼저 하게 되면 진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나의 순서가 아니라도 진행상의 문제로 길을 터주면, 골퍼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 지체되지 않도록 순서를 받아들이고 계속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플레이어가 티 샷을 완료하면 즉시 다음 플레이어가 움직여야 한다.

골프 준비

지체된 경기 시간을 만회하고 진행 속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준비된 골퍼이며, 이것은 능장 플레이를 보완할 수 있다. 아너가 반드시 먼저 할 필요 없이 서로가 아너를 공유하고, 가식적일 필요도 없다. 순서가 주어지 준비 되면

4) 아너(Honor): 경기자 중에서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바로 티 샷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티 또는 모든 사람들이 티에 거의 동시에 올라 온 경우에는 방금 전 홀에 누군가가 버디 같은 멋진 것을 했다면 짧은 축하를 서로 나누고 곧바로 버디를 기록한 아너가 볼을 먼저 칠 수 있도록 비켜 줘야 한다.

집중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스윙을 할 때는 안전한 곳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연습 스윙을 하거나, 공을 닦거나, 클럽을 가방에 우겨 넣거나 하면 안 된다.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움직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친구들끼리는 그런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초면이거나 진지한 골퍼들인 경우에 당신이 샷 중에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침묵할 수도 있고, 또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스윙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가끔 티 박스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곳에 골퍼들이 서 있게 된다. 보통, 기다리기 가장 좋은 위치는 플레이 구역의 규정해 주는 티 마커 바깥쪽 스윙 하는 골퍼의 옆에서 있는 것이다. 골퍼의 옆쪽은 공이 날라 가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공을 치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하게 티 샷을 날릴 수 있도록 해 준다. 골퍼들은 주변 시야에 매우 민감하다. 조심하여 움직이도록 해라. 골퍼의 바로 뒤에 서있는 것은 페어웨이나 그린 방향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골퍼의 샷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만약 골퍼가 이쪽이나 저쪽으로 비켜달라고 요청 받으면 놀라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요청은 그들의 특권이기도 하다. 어떠한 방해나 거슬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골프다.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골프의 룰은 명백하다. “플레이어가 어드레스 하거나 스윙을 할 때에 아무도 움직이거나 이야기하거나 공 또는 홀의 방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식별 가능한 공을 사용하라



내가 어떤 공으로 플레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수십 명의 골퍼들이 공을 여기저기로 샷을 날린다. 그러나 “이공은 내 공이야. B위에 빨간 마크와 파란 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볼을 식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골퍼들에게 가장 우선 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식 대회에서는 라운드 전에 자기의 공에 각자 마크를 해놓는다. PGA 투어의 더피 월도프(Duffy Waldorf)는 그의 아이들이 다양한 색으로 낙서를 해놓은 공을 사용하기도 한다.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창조적이며 기능적이다.

공에 마킹 해 놓으면 본인 공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남의 공을 치게 되면 패널티가 부과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에서 패배를 의미한다. 그 공은 원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플레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플레이어는 실격하게 된다.

티잉그라운드⁵⁾에서의 규칙

1. 두 개의 티 마커 사이에서 볼을 티 위에 놓아라. 당신의 발은 두 개의 티 마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은 티 마커 사이에 있거나 그 뒤에 놓여야 한다.
2. 티 샷을 하고자 스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맞히지 못한 경우 1점의 벌타가 부과된다. 티 샷 전 연습 스윙 중 잘못하여 티에서 공을 맞춰 떨어트렸다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떳떳하게 볼을 티에 다시 올려놓고 치면 된다. (티 샷을 하고자 스윙을 해놓고 연습 스윙이었다고 우기지 말자.)

타구 확인 후 코멘트

볼의 낙하지점을 끝까지 확인하고 그 때 비로소 칭찬을 해라. 골프공은 변덕스럽기로 악명이 나 있고, 골퍼를 실망시키기도 한다. 특히, 잘 알지 못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라운드 할 때, 그 혹은 그녀가 정말로 공을 잘 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몇 홀 기다려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멋진 샷이라고 생각되어도 잘 치는 사람에게는 그 샷이 만족할 수 없거나 그럭저럭 괜찮거나 심지어 실망스러운 샷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옆으로 날아간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잘 봐줘라. 다른 사람의 공을 함께 찾아 주는 것은 라운드 진행속도를 도와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배려 덕택으로 인해 친구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중 하나가 공을 찾아 주는 것이다. 공의 거리와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티에서 샷을 한 볼이 어딘가에 떨어져 찾지 못해서 화가 날 때도 있다. 티에서 샷 한 공이 제대로 맞아 그런대로 괜찮은 볼 같아 보였지만 어김없이 사라져 버리는 당황스런 경우도 있다. 이것이 볼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공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나무, 바위 혹은 어떠한 물체라도 공의 낙하지점을 추측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라.

동반자가 애매한 샷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할지 좀 난감 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작가 팻 워드 토마스(Pat Ward Thomas)의 뛰어난 통찰력에 공감한다. “내가 형편없는 샷을 했을 때 가장 듣기 싫은 것이 애도의 표현이다. 그냥 아무 말도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적절한 피드백은 죽은 듯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이건 그냥 게임이야.’ 알게 뭐야! 그냥 게임이잖아!”

환영 받지 못하는 게스트

멀리건(Mulligan)이란 ‘샷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매우 중독성이 있으며 능장 플레이를 야기하는 최악의 것이다. 멀리건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5) 티잉그라운드(Teeting Ground): 매 홀 첫 샷을 하는 평평한, 때로는 경사가 있는 구역. 골프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구역이 있다.

이 아니지만 많은 골퍼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몇몇의 골퍼가 잘못된 티 샷을 했을 때마다 멀리건을 당연시하여 다시 티 샷을 하고 있지만, 사실 멀리건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멀리건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골프 에티켓의 정수인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경기 진행 속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

멀리건을 쓰고자 할 때에는 단 한번만 사용해야 하며, 빨리 해야 한다. 이것은 플레이를 지연시키는 것이기에 예의로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멀리건은 골프장에서 사람이 붐비지 않는 경우나 친한 친구나 친척과 함께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해라.(인쇄매체에 실리는데 멀리건에 대해서 전념한다는 자체가 고통스럽다.) 때때로 자선 대회 행사에서 좀 더 많은 모금을 얻기 위해 감옥 탈출 카드의 일환으로 멀리건이 판매되기도 하는 데 이때에는 어느 골프장에서도 가능하다.

멀리건은 또 하나의 통과 의례로 테니스 챔피언십의 FBI(First ball in)가 실제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멀리건도 골프의 실제 진정한 게임의 한 부분이 아니다. 멀리건 볼이 어디로 떨어지든 그 지점에서 플레이 한다. 멀리건은 골프의 정신과 규칙을 이야기 할 때 멀리건은 놀림의 대상이 된다. 멀리건은 정식 게임이나 경기에서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다른 공을 다시 놓고 마치 처음 친 공처럼 친다는 것은 게임의 미덕을 해치는 악수이며, 꼼수로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일뿐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빠른 경기진행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들은 멀리건을 “티에서 세 번 치는 것”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세상에 공짜란 없다.’ 라는 개념이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훌륭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카트 운전자 교육

카트는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장애요소, 즉 게임을 떠나서도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카트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직원에게 그들의 백을 조수석 편에 조심해서 놓으라고 하거나 기회가 닿는 대로 카트를 꺼 놔라. GPS시스템과 같은 카트 액세서리는 볼링의 전산 시스템처럼 사람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의 작동 방식을 잘 모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카트 자체는 위험하지 않게 보이지만, 그래도 카트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기에 벙커에서 전복되기도 하고 절벽에서 추락하기도 하며 호수에 빠질 수도 있다. 불행한 사고는 잔혹한 현실이다. 급커브를 틀면 카트 탄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 나뭇가지가 사람의 얼굴을 찌르기도 하며, 사람 발 위로 바퀴가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카트에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올바르게 설정 되었을 경우 딸깍 소리를 낸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 골프의 큰 불편한 점이기도 하다. 덧붙여 말하자면, 카트가 후진할 때 나오는 배달 트럭의 그것과 같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가능한 한 최소화 하도록 해라. 우리가 야외활동을 즐기는 데에 그 소리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도록 후진을 피하고, 타이어가 굽히지 않도록 하고, 급커브, 급출발, 급제동을 해서 음료수를 쏟거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레 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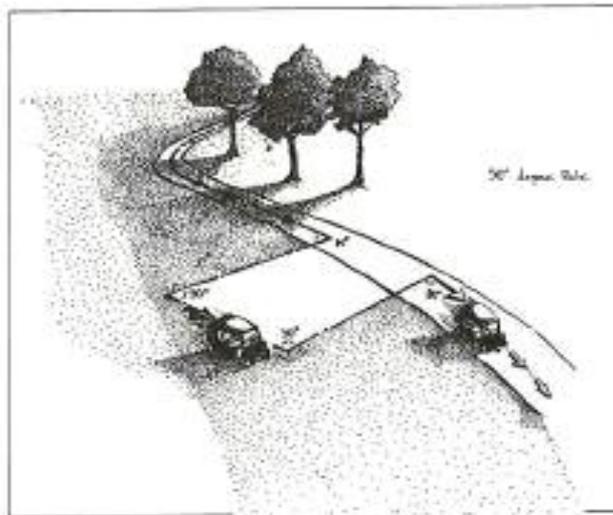
티 옆에 카트를 세우고, 앞에는 절대로 주차시키지 않는다. 공을 닦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또는 도표 있는 돌로 된 마커가 있을 것이고, 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어떤 것에는 “여기”라고 적혀져 있다. 티와 좀 더 가깝게 뻗어있는 카트 도로의 일부이고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이 있다. 카트의 네 바퀴가 포장된 도로위에 있도록 주차해야 한다.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은 곳에 세워 놓고 티 박스로 올라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라.

카트 도로 전용

(아직까지는) 카트(Cart)를 위한 신호등이나 신호기가 없어서 자연미가 넘치는 골프장 코스가 외관상 시각적으로 훼손이 되지 않았으며, 카트에는 (아직)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 지시등, (다행스럽게도) 클랙슨(Klaxon)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개 표지판들이 있다. 표지판이 『카트 전용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카트는 카트 도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보통 코스가 젓어 있거나 잔디가 손상을 입기 쉬울 때 들먹여진다. 사소한 일 같지만, 50kg이상 되는 골프 카트가 부드러운 잔디 위를 며칠, 몇 달 지나가서 누적되는 결과는 떠올려 보면 잔디 상태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카트 전용 도로”라면 골퍼는 샷 한 곳까지 가서 도로 옆에 주차한 후 그들의 공까지 걸어서 갔다 와야 한다. (현명한 골퍼라면 두세 개의 골프클럽을 같이 가지고 간다.) 이 룰은 보통 대부분의 파 3홀에 적용되는데, 심지어 지면이 건조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카트는 카트 도로를 벗어나 세우면 안 된다.



90°는 카트도로에서 일직선으로 나와 다시 일직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90도 룰

이 규칙은 골퍼가 카트를 페어웨이위에서 나와 다시 직선으로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샷을 한 후에 카트는 카트도로로 돌아와야 한다. 일반적인 예외사항으로 만약 플레이어가 친 공이 그리 멀리 가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볼이 20야드(18m)정도밖에 가지 않았다면, 페어웨이를 가로질러 갔다가 와서 다시 그 볼이 있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러프 따라 카트를 세우는 게 허용된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카트는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진다. 편리함에는 그만한 대가가 수반된다. 우리는 볼이 있는 곳에 일직선으로 걸어가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를 진행 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만약 친 공이 5번 아이언 정도 거리에 떨어졌다면, 후시 모르니, 6번, 7번 아이언 심지어 8번 아이언과 7번 우드를 가져가서 경기 진행시간을 절약해라.* 왜냐하면 클럽 한 개만 들고 갔다가 거리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카트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카트는 골프의 자연적인 리듬을 방해하지만, 걷는 게 여의치 않은 골퍼들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잃어버린 헤드커버나 클럽을 찾기 위해 되돌아 가야할 수고를 덜어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젖은 장소, 낮은 장소, 웅덩이, 테두리, 로프가 쳐진 구역은 피해야 한다. 카트 안전 운전은 골프 코스관리에 대한 책임 중 하나이다. 카트는 그린에서 70야드(64m) 근처로는 갈 수 없다. 카트 도로에 돌아가서 주차해라.

클럽을 백에 넣기 전에 카트 탑승 하라

능장 플레이에 대해 카트도 일부 책임이 있다. 샷을 한 후 클럽을 골프백에 먼저 넣지 말고 카트에 먼저 올라타서 진행 시간을 절약하라. 카트가 다음 지점에서 멈출 때까지 기다려라.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라. 헤드 커버를 찾고 클럽에 다시 끼고 클럽을 제자리에 놓고 흔들어 정렬하고 카트에 앉았다가 클럽을 다시 뽑는 것 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카트에 먼저 탑승해라.

카트는 어차피 페어웨이와 그린 근처에서 멈춘다. 그 순간은 앉아서 탑승을 즐겨라. 택시나 테이블을 함께 공유할 때처럼 동반자들에게 예의바르게 처신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 한다.

시가와 담배

이미 알다시피 코스에는 담배꽂초가 산재해 있다. 심지어 강아지의 대변과 같이 페어웨이가 시가로 인해 더럽혀져 있어서 담배꽂초에 대해 루스 임페디먼트로 룰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모든 티 마다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 이 쓰레기통과 파3에 티 박스에 디봇을 떼우기 위해 설치한 모래박스인 배토통과 혼동하지 마라. 그것들은 재떨이가 아니다.

아놀드에게

골퍼들은 종종 다양한 샷에 사용되는 클럽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이것은 일상 골프에서 항상 일어나는 특징이며, 무분별하게 멀리건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골프 룰 상으로는 페어플레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경쟁이 있는 “진짜” 골프를 할 때에는 스코어를 기록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공을 ‘있는 그대로’ 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안 된다. 다른 플레이어에게 “몇 번 쳤어요?”라고 묻는 것은 다른 사람에 조언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어, 과 3홀에서 바람의 영향, 환경 요소,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어떤 클럽을 선택할 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클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플레이어들은 서로의 가방을 살짝 쳐다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몇 번으로 쳤어?”라고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은 자세로 여겨진다. 친구들과 함께 친선골프가 아닌 경쟁골프를 하는 골퍼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런 골퍼들은 진지하고, 경쟁심을 갖고, 공정하게 라운드를 한다. 이러한 골퍼들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절대 물어보지 않고 가방에서 어떤 클럽을 사용했는지 체크하지 않으며, 기다린 후 물어볼 수 있는 시점에서 물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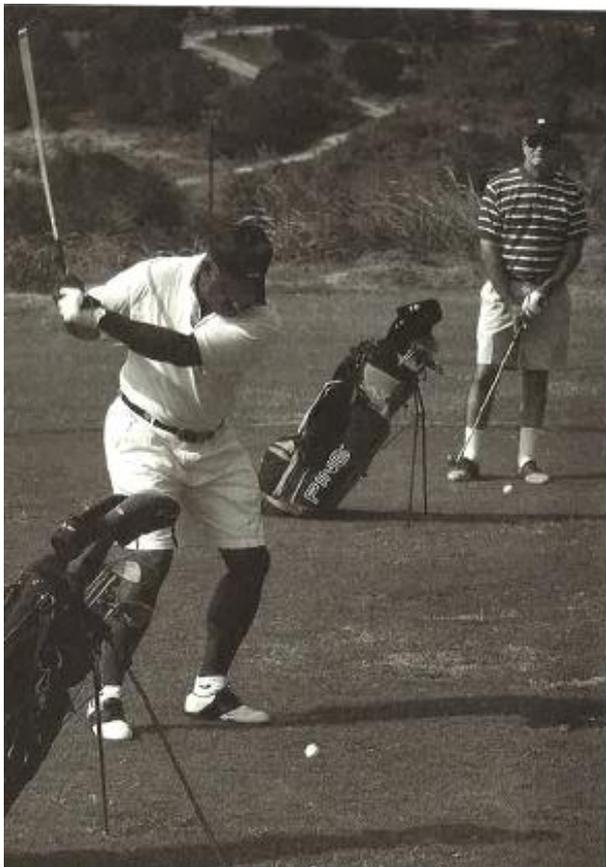
핵심 요약

- 골프는 악수로 시작해서 악수로 끝난다.
- 조언을 해주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조언이 당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또는 에티켓의 미묘한 차이를 배운다면, 아주 이로울 것이다. 초보 골퍼의 스윙에 대해 조언을 해 주고 싶더라도 참아라. 조언을 하려면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 샷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라.
- 카트를 티와 평행하게 세워라. 주차공간과 유사한 곳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계단 옆쪽에 있거나 티로 직접 가는 길이다. 또는 볼 닦는 것을 찾거나, 잠시 쉬는 곳을 찾아서 세우면 된다.
- 스윙하는 골퍼와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 평행하게 서라. 골프 코스 어느 곳에 서든 골퍼 바로 뒤쪽에 서지 마라.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다른 플레이어들이 안전하게 연습스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라. 골퍼가 그의 티를 지면에 꽂을 때, 움직이지 마라.
- 좋은 샷뿐만 아니라 잘못된 친 샷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 장황하게 털어 놓으면서 사과 하거나 설명 할 필요 없다. 좋은 샷이든 나쁜 샷이든 다 이유가 있다.
- 적절한 티에서 플레이 하라. 당신에게 맞는 티에서 진행하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적절한 티에서 하라. 뒤에 쫓아오는 골퍼 팀들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티에서 플레이 하라. 실력 있는 골퍼를 따라 쫓아갈 필요는 없다. 골퍼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수준의 골퍼가 함께 누리는 데 있는 것이다.
- 카트를 현명하게 운전하라. 골프 코스가 손상될 수 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기에 조심히 다뤄야 한다. 카트는 편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로 인해 새로운 에티켓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든 표지판과 규정을 준수하라. 카트는 브레이크 등이랑, 방향 지시등도 없고, 다행히도 시끄러운 경적도 없다.
- 골퍼와 마찬가지로 카트는 골퍼 바로 뒤에 세워도 안 되며, 시선 밖에서 방해가 되지 않게 세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골퍼가 백스윙 할 때 신경 쓰이지 않도록 가까이 서지 마라.

- 카트를 운전 할 때는 사인표지판을 준수하고, 젓은 구역에 세우지 말고, 로프가 쳐져 있는 곳은 피하라. 그린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라. 카트 브레이크 소리와 후진할 때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 두어라. 카트는 미끄러져서 정면으로 벼랑에서 떨어져서 레이크로 떨어질 수도 있다.
- 플레이어의 샷이 확실히 좋은 샷인지 확인 전에는 잘 쳤다고 칭찬하지 마라.
- 멀리건을 사용함으로써 골프의 윤리성, 예의, 진행속도, 미덕의 장점들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멀리건을 치고 싶은 유혹이 든다면, 재빠르게 치고 나오라.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여분을 볼을 준비하라.
- 티 샷을 주의 깊게 보라. 당신 볼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의 볼도 함께 찾는 배려를 보여 줘라.

“당신 앞쪽에 홀이 비어 있다면, 코스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당신을 좇아 오는 뒤 팀이 기다리고 있다면, 사인을 보내 먼저 플레이 하도록 하라. 분실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골프 페널티와 에티켓(1994)



모든 것을 정지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당신 차례가 되면 바로 준비해라.

제 5 장 페어웨이에서

“샷 할 때 영리하게 움직이고, 당신 차례가 되면 바로 샷 할 수 있게 준비해라.”

-아일랜드 클레어의 『라히치 골프장의 스코어카드』

골프는 차례로 번갈아 하는 게임이다. 첫 티에서부터 마지막 퍼트가 들어갈 때까지 항상 순서가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플레이 할 수 없지만, 순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다. 모든 이가 누구의 차례인지 알고 그것에 동의 할 때 경기 진행이 원활 하고 안전한 플레이가 된다. 골프 룰에는 공식 경기에서의 프로토콜이 나와 있다 친선 라운드 할 때에는 누군가가 “먼저 치세요!,” 또는 “제가 준비되었으니, 먼저 샷 할게요.”라는 말을 건네고 순서를 바꾸어서 할 수 있다. 각각의 골퍼는 편의상 플레이 할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이 볼에 맞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그럴 경우에는 순서를 미루는 게 최선이다.

라운드 시 걷는 것

연구 조사에 의하면, 걷는 것이 카트를 타고 가는 것보다 느리지 않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든, 골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골퍼들이 카트 타고 다니기 전에는 그들은 걸으면서 운동효과를 보았다. 그들은 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갔고, 리듬을 탔고, 끼익 거리는 카트 브레이크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걷는 동안 다음 샷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비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있다. 골프는 격렬한 에어로빅 같은 운동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걷는 거 자체가 카트를 타고 가는 것보다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또한 카트를 사용하는 것 보다 비용 부담이 저렴하다. 9홀 코스는 3-4 킬로미터 정도이고, 18홀 코스는 약 8 킬로미터 정도 된다. 사실, 많은 코스에서는 더 이상 걷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걷는 것이 허용되었더라도, 카트 전용 코스들은 마치 3중 경기처럼 걷기에는 험난하게 만들어졌다.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 걷는 것이 유행처럼 돌아오고 있다.

골프장마다 왜 카트가 있는지 누구나 다 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카트를 사용하는 것은 파우스트식 거래⁶⁾라 할 수 있다. 골프는 걸어서 플레이 할 때 더 좋은 게임이 되고, 긍정적인 신체적 효과를 불러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그렇다면 18홀을 마치고 난 후 걸으면서 라운드 하는 것보다 카트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샷을 할 때 유의사항

6) 파우스트식 거래(Faustian Bargain): 돈, 성공, 권력을 바라고 옳지 못한 일을 하기로 동의하는 것.

골퍼가 샷 준비가 되었을 때(골프 용어로는 어드레스), 모두 조용히 멈춰야 한다. 되도록이면, 샷을 하는 사람 앞이나 뒤에 서 있지 말고 평행하게 서라. 골퍼의 주변시야 밖에 서 있어라. 카트도 마찬가지로이다. 골퍼의 바로 뒤 서 있거나 세우는 것은 매너에 어긋난다. 어떤 골퍼들은 매너가 지나쳐서 멈추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플레이 하려고 할 때는 옆으로 비켜서고, 당신의 위치에 신경 써라. 스윙 할 때는 조용히 서 있어라. 일단 볼이 나가면, 움직여도 된다. 볼을 쫓아서 가라.

- 페어웨이 폭신한 곳이나 젖은 곳에 가지 말고 특히, 카트로 그쪽에 들어가지 마라

먼저 시작

그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골퍼가 “먼 위치”라고 간주되어 먼저 플레이 하게 된다. 오랜 세월동안 골프 표현 중 가장 슬픈 것은 “아직도 당신 차례군요,” 즉, “당신이 아직도 그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이다. 이상적으로는, 우리 모두 플레이를 아주 잘 해서 그린에 도달 할 때까지 각자 플레이어들이 순서대로 로테이션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만, 가끔씩 한 명의 플레이어가 한번 또는 여러 번 치는 경우들이 있다. 당신이 샷 할 준비가 되었다면(공식적으로 그린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경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상황을 보면서 먼저 해라. 친선도모 라운드 시 경기 진행 속도가 적절할 경우에는 아님 먼저 플레이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정식으로 당신의 차례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준비되었으니, 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히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 하면 된다. 친선도모 라운드 시에는 순서를 바꿔서 샷 해도 별타가 없다. 하지만, 토너먼트 대회인 경우는 다르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지금?

앞 쪽에 샷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시작해라. 두 명의 플레이어의 볼이 똑 같은 거리에 떨어졌다면, 먼저 하세요”라고 이야기 한다. 페어웨이 저 편에 다른 플레이어가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잔디 잎사귀를 뜯어내어 공중에 던져보고 있다. 분명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 당신이 먼저이다. 누가 먼저 샷 할지 당신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먼저 하라. 때때로, 잘 치는 플레이어들은 파5 페어웨이에서 부담이 큰 샷을 시도하기 전에 앞에 있는 그린 위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180미터 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린 위 사람들이 볼에 맞을 수 있기에 기다렸다가 샷 한다. 그것은 괜찮다. 그들은 기다려도 된다. 그러나 당신이 플레이 하는 것은 안전하다. 오케이, 하지만, 나의 샷 순서가 아니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나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플레이 먼저 한다는 원칙으로 순서를 지키는 것 보다 먼저 플레이해도 될지 물어보라. 먼저 칠수록 낫고, 그게 사실은 더 좋은 샷이 될 수 있다.

골프를 치고 있는 대중을 위하여

골프 볼을 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3초? 그보다 덜? 짧은 순간 동안이지

만 자세히 들어보라. 그러면 골퍼가 목표지점을 향해 겨누었을 때 그의 몸에서 기어와 회전자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후경직이 또 시작되는 건가? 긴장은 골프 스윙의 가장 큰 적이다.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샷을 하는 게 어렵다. 근심은 손에서부터 중앙 신경시스템으로 올라가고, 어깨로부터 이마, 손목, 손가락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자신감을 줄이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샷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의심 할 여지없이, 수확체감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옛말이 떠오른다. 버릴 거면 빨리 버려라.

대부분의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전설의 바비 존스도 골프 샷 할 때 처음 생각 대로 그대로 친 샷이 최고였다고 믿는다. 긴장으로 인해 완전히 마비가 되기 전에 스윙을 해야 한다.

이점에 관해서 많은 격론들이 있다. 골퍼들은 골프 스윙과 더불어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우지 못한다. 연습 티에서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코스에서 에티켓도 마찬가지이다. 코스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은 더 복잡하고, 커지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초보 골퍼들에게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드물다. *초보 골퍼는 골프 스윙의 메커니즘을 배우지만, 그렇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초보 골퍼들 같은 경우 약간 늘어진 플레이가 허용된다. TV를 봐도 잘 모른다. 주말 골퍼들은 프로골프 선수들을 보면서 어설픈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 선수들이 진행이 느릴 수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의 골프 선수 생명이 위태로워 보인다. 여전히, 그들은 타성이 주는 영향을 벗기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계속 진행해 가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만약 골퍼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좀 더 빨리 진행 하려 하지 않는 한, 경기진행은 달팽이처럼 늦어 질 수밖에 없다.

소설가 존 업다이크(John Updike)는 그의 단편소설에서 불쾌감을 정교하게 표현했다. “(골프 하는 법에 관한 무수한 책들을 읽고 나서) 신치(Cinchy)컵에 담아 마시면서.” 부록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유용한 팁”이 들어 있다. 그것들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나타내준다.

1. 긴장하지 마라.
2. “늘어지지”마라.
3. 당신 자신을 칼슘 봉으로 단단히 연결된 경첩관철의 조립물로 간주하지 말고, 온기와 위트와 열망을 가진 유연한 유순한 동물이라 생각해라.

진행 속도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당된 시간에 플레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팀은 빠르고 어떤 팀은 느리다. 어떤 골퍼는 서두름의 의미를 알고 나머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코스 중 어떤 홀은 플레이하기 어려워서 끝마치는데 당연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첫 번째 팀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침에 라운드를 진행했다면, 비록 8분 간격의 티오프를 했다고 해도 뒤에 있는 팀보다 45분 빨리 끝마칠 수도 있다. 때론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앞의 팀이 항상 시야에 있도록 유지하면서 플

레이해라. 파 3홀에 도착했을 때 앞의 팀이 그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간격이다. 이곳에서 진행이 빠른 팀을 먼저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 팀이 나름의 시간대로 열심히 플레이를 한다면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그리피스 공원의 프로 골퍼 톰 바버(Tom Barber)는 “우리는 뒤에 있는 팀의 앞 팀이 아니라, 앞 팀의 뒤 팀이다.”라고 말했다.

- 뒤 따라 오는 팀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앞 팀의 플레이가 끝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당신은 느장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만약 불과 몇 미터밖에 가지 않을 정도로 샷을 잘못 했거나, 미스 샷을 했다면, 올라서서 재정비하고 다시 친다. 당황스러움과 자존심이 상하여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회한에 찼 것이다. 어찌됐든, 당신의 동반자는 한 가지를 원한다. 다음 샷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 뒷집 지고 있을 시간도 없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그냥 공이나 쳐라. 잘 치는 골퍼도 때론 느장 플레이의 주범이 된다. 느장 플레이는 초보 골퍼만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결코 그렇지 않다. 서적, 잡지, 비디오, TV의 해설자들은 골퍼가 매 샷마다 그립을 체크하고 자세를 체크하고 목표물을 체크하고 한번 또는 두 번 채를 휘저어보고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한 번 목표물을 체크하고 연습 스윙 해보는 등의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루틴 후 샷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준비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 루틴*은 시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간단히 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전자 감지기는 골프 코스에 있는 카트들의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체크해 준다. 따라서 진행속도가 느린 곳이 어느 곳인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준다. 또한 골프 관련 첨단 과학 장비들은 골퍼가 일일이 거리 목을 체크할 필요가 없도록 거리를 알려주기도 한다. 그것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 만들어 졌다.

- PGA투어 선수들은 그들의 차례가 되면 준비하는 데 40초가량 소모한다. 파 3에서 티 샷 후, 첫 어프로치, 그린 위나 주변에서 첫 플레이 할 때 마다 20초가 추가로 주어진다.

리허설

한 번의 연습 스윙이면 족하다. 세 명의 사람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머지 않아 네 명의 다른 팀이 뒤에서 따라붙을 것이다. 연습 스윙은 몸을 푸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끝났고 곧 샷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넓은 페어웨이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후위 플레이어들이 순서가 서로 돌아가므로 연습 스윙은 안전하고 사려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

택시와는 다른 카트!

골퍼들은 항상 카트를 택시로 오해하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카트에서 내려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몇 개의 클럽을 챙기고 공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아마도 홀 중간지점에 카트를 세울 수도 있다. 아마 승객이 카트 운전기

사가 되는 대신에 운전자를 내려줄 수도 있다. 내려서 건도록 제안해라. 말하고 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 가장 빠른가?” 둘 중 어느 것이든 빠른 게 최선이다.

먼저 보내기

“앞”에 플레이 하고 있는 팀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지 마라. 다른 팀을 배려하여 먼저 플레이 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에티켓, 상식, 고귀함 3가지가 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도로상에서 앞에 가는 느린 차로 인해 생기는 분노와 같은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는 자동차 경주가 아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팀을 먼저 보내주는 것은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다.

언제 뒤 팀을 패스시켜야 하는가? 이것은 교통 체증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만약 갈 곳이 없다면, 앞의 사고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차가 한 대나 두 대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복잡한 골프장에서 똑같다. *만약 당신의 팀이 경기진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고, 앞 팀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 팀이 먼저 지나가겠다고 우기면 기분 나쁠 수 있다.* 뒤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골프의 진행 속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나 만약 당신 팀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늦어 (다음 홀의 페어웨이와 그린이 비어있을 정도로) 앞의 팀과 거리가 생겼다면, 에티켓으로 다음 팀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이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안을 해야 한다.

○ 코스에서 팀의 위치는 뒤에 있는 팀의 앞 팀이 아니라 앞 팀의 뒤 팀이라고 언급하지 안 했던가?

골프에서 뒤 팀을 먼저 보내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앞질러가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틈새를 확보 하려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부탁하고 공손하게 수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파 3홀에서 자주 일어난다. 왜냐하면 파 3홀은 짧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치 교환이 일어나기에 적절한 곳이다. 진행이 느린 팀에 대해 진행이 빠른 뒤에 있는 팀을 먼저 보내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는 모든 플레이어가 모인 티잉그라운드나 그린이다. 가끔씩은 모든 플레이어가 러프쪽으로 가서 먼저 가라고 사인을 보내고 뒤 팀이 카트를 타고 계속 가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파 3홀에서 뒤 팀을 먼저 보내려면 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티를 비워주어야 한다. 먼저 보내기를 하기 적합한 또 다른 곳은 ‘턴’이다. 9홀이 끝나는 시점을 말한다. 앞의 팀이 스낵바를 방문하는 동안 “빠른 팀”은 사전 양해를 구한 뒤 먼저 출발할 수 있다.

먼저 가는 팀

- 멀리건을 쓰면 안 된다.

- 진행 느린 앞 팀에게 빨리 가라는 신호로 경고 샷을 하면 안 된다.
- 활발히 플레이 한다.
- 먼저 가라고 보내준 팀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 먼저 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앞의 팀이 속도를 맞춰가고 있다면, 실력 좋은 골퍼들이라도 먼저 가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양보한 팀

- 지난 주 골프 대회의 하이라이트에 대해 답소를 나누고, 경치를 즐기고 스윙 자세를 연습하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 먼저 보낸 팀이 스윙을 할 때 안전과 예의상 가능한 지나치게 야단스럽게 얹게 행동해라.
- 먼저 보낸 팀의 안전이 확보된 범위에 갈 때까지는 플레이를 시작하지 마라.

먼저 지나가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다. *보다 나은 해결책은 앞 팀이 좀 더 빠르게 진행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두 명의 골퍼가 그들의 공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뒤에 있는 팀을 먼저 보낼 수 없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진행속도를 더욱 느리게 할 뿐이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늦게 달리는 차와 같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먼저 지나쳐야 한다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느리게 가는 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운드가 시작되었을 때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음료 카트가 와도 먹고 마시고 싶어도 참고 골프에 전념해라.

클럽을 지닌 장래의 분쟁 당사자들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멋있게 표현 잘한 사람은 주디스 마틴(Judith Martin)의 비길 데 없는 *미스 매너*이다. 그녀는 골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표현했다. “에티켓이란 것은 재미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에티켓의 정책은 똑똑한 정부의 정책처럼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외교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다.”

- 포어! 앞의 사람이 공에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 길고 크게 외쳐야 한다. 이게 당신의 공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 공이 앞의 사람이 있는데 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위험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보고 있는 골퍼들은 그 볼을 친 골퍼 보다 공의 궤적을 더 잘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소리 질러라. 그게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다.

진행상의 정제

알맞은 경기 진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재미있고, 더 좋은 운동이 되며, 골프를 더 좋게 만들고, 올바른 행동이고, 모든 게 좋은 것이다. 모든 골퍼는 본인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 느리다고 생각한다. 몇몇 골퍼는 그런

것을 달리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알 리가 없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다만 현대 골프의 불행일 뿐이다.

전 USGA의 핸디캡 부서의 임원이었던 딘 크누스(Dean Knuth)는 느장 플레이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신중한 골퍼는 늘 방어적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느리다고 들어본 적 없다. 믿을 수 없다.” 혹은 화를 내면서 “난 즐겁게 골프 하려고 돈을 충분히 냈으니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하럼프(Harrumph)는 말한다.

○ 느장 플레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크누스(Knuth)의 연구 www.Popeofslope.com을 참고하라.

실력과 성별차별이라는 단순한 선입견으로 인해 초보자나 여성 플레이어는 느장 플레이의 주범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세계 최고의 골퍼들은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운드가 가장 느린 골퍼는 기술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경기 진행 속도는 정신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 배려, 체계적인 준비, 노력과 재치가 필요하다. *거북이 골퍼*는 뒤에 있는 팀들을 망칠 수 있다.

느장 플레이 팀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와 유사하다. 교통 정보 헬기만이 상황을 업데이트 할 뿐이고, 구경꾼들로 지체가 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분노와 신경들이 곤두서 있다. 한참 후에 정체 현상을 수습하고 나면 플레이어는 더욱 재촉 받을 수밖에 없다.

의심할 바 없이 현대의 골프 진행 속도는 느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 PGA 투어에서는 2인 플레이, 3인 플레이가 일상적으로 5시간씩 걸린다. 이로 인해 짜증이 유발되고, 어떤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훌륭한 골프 게임을 위해, 적어도 좋은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 수비자가 스코틀랜드의 캐디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골프 라운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팀에 배정된 캐디가 참지 못하고, “좀 빠르게 라운드 진행하면 안 될까요? 살 의욕이 없네요.”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몇 년 전 프로골프 직원들이 한 유망주 골퍼에게 그의 느린 플레이를 지적한 적이 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이 나의 경기를 망칠 것인지 무엇이 다른 플레이어들을 괴롭힐 건지 배워야 했고, 내 자신을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라고 그는 차후에 회상했다. “나는 매 홀마다 플레이가 느려서 뒤쳐졌고, 동반 경쟁자들에게는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그것은 불공평했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으며, 나의 플레이 방식을 바꾸어야 했다.” 그리하여 위대한 골퍼이자 스포츠맨인 잭 니클라우스는 변했다.

경기 진행 시간

우리가 골프의 가장 기본이 되는 4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딘 크누스(Dean Knuth)의 계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파 4홀은 12분, 파 5홀은 18분, 파 3홀은 9분이 걸린다고 한다. 각각의 플레이어가 홀에서 각자 15초씩 시간을 쓴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15초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녹장을 부리는 한 팀의 4명의 수를 곱해보자. 한 홀마다 1분의 시간이 더해지는 것이다.(4인 * 15초 = 60초/1분) 이제 그 수에 18홀을 곱하면 그 팀은 이미 주어진 시간보다 18분이나 뒤쳐지는 것이다.

경기 마샬

먼저 보내달라는 협상이 실패한다면, 지원병을 요청해라. 그들의 이름은 법적 지위 또는 옛날 **서부 시대**의 지휘권에서 착안된 의미를 전달한다. 경비, 마샬, 선수 도우미, 골프장 대사관. 그들은 프로숍의 눈과 귀가 되며, 그들의 역할은 평화와 경기진행을 관장하는 일이다.

보통 자유로운 골프장이나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일을 좀 더 하는 이 용맹한 사람들은 녹장 플레이를 막는 선봉자이다. 카트가 핑크 나서 멈추거나, 플레이어가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피칭 웨지가 없어진 경우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나타난다. 그들은 남들이 플레이 하는 주변에서 일하므로 남으로부터 인정 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는 셈이다.

- 다소 이상하지만 사실로 있었던 마샬 이야기 - 녹장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 마샬이 다가가서 “서둘러 주세요. 당신들은 앞 팀보다 두 홀이나 뒤쳐져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골퍼가 대답하기를 “그런피는 하루 종일 플레이 하려고 내는 겁니다.” 라고 하자, 마샬은 “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종일 플레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경기진행 요원인 마샬이 코스 내에서 운전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모든 팀의 경기 진행시간을 재고 있고, 어느 팀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고, 각 팀이 얼마나 걸리는 지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잃어버린 채를 찾아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며,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바로 나타날 것이다.

줍기

줍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를 의미한다. 첫 번째는 골프장 어디에서든 골프공이 보이면, 줍지 마라. 지면에 있는 그 공을 자세히 보면서 마크나 라벨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골프공은 티에서부터 그린(그린에서는 마크하고 닦을 수 있다)까지 절대 손으로 집어 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때는 그 공은 당신이 주워서 가져도 된다. 줍는 자가 임자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확실하게 잃어버린 공이 아니라면 그냥 두는 것이 상책이다.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져가도 된다. 새로운 골프채 기술은 놀랄만한 거리감을 낼 수 있도록 했지만 놀랄 만한 정확도를 주진 않았다. 분실구로 보이는 공이 있다면, 아마도 그 볼은 잃어버

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라.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내가 무슨 공을 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분실구를 찾는 것은 중독이 될 수 있다. 볼 줍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이에 대한 치료책이 나올 것이다.

공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또한 초보 골퍼의 홀 아웃을 의미한다. 여러 번 플레이 했는데도 친 샷이 짧고, 다른 이들은 기다리다 지쳐 지켜보고 있다면 공을 줍고 다음 홀로 이동하는 것이 상책이다. 실패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다음 홀을 위해 열심히 해라. 만약 플레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음 그린에서 혹은 그 다음 홀을 기약해라. 기분 전환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 초보 골퍼는 경기 진행과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특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공을 집어 올리는 것이 그린 혜택 중 하나이다. 존경받는 골퍼들은 좀 더 위대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볼을 줍는 행위를 반길 것이다. 이렇게 받은 혜택을 갚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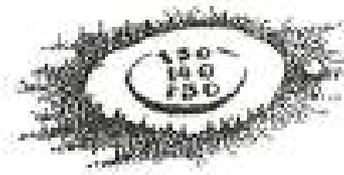
내 흔적을 없애라

골프에서 좋거나 나쁜 샷은 필연적으로 디봇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스윙으로 인해 생긴 지면의 구멍을 뜻하는 골프 용어이다. 연습스윙을 제외하고 디봇은 게임의 용인된 부분이다. 골프 에티켓에 따르면 스포츠정신, 미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코스 잔디 관리의 목적을 위해서 골퍼들은 이러한 디봇을 수리해야 한다. 디봇에 있는 공을 샷을 하는 것 자체가 재미도 없으며, 디봇에 떨어진 볼을 쳐야 하는 잠재적 골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봇을 다시 놓음으로서 그 땅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도록 해 준다. 퍼즐을 맞추듯 디봇을 맞추자. 디봇을 제자리에 놓고 단단하게 올라서서 단단하게 눌러주자. 그리하면 잔디를 깎을 때 다시 뒤집어 지지 않는다. 디봇을 가만히 놔두면 질병이나 잔디 손상을 받게 된다. 디봇 정리를 게을리 했을 경우 다른 곳에 쏟아야 할 골프장 관리자와 직원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린다. 디봇은 코스의 쓰레기이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몇몇 골프장에서는 디봇을 메꾸는 대신 디봇을 채울 흙과 씨앗이 담긴 바구니가 카트에 붙어 있다. 이러한 골프장은 주로 남쪽 기후의 골프장에 많다. 본인의 볼이 있는 곳으로 갈 때 배토 통을 가지고 가라. 매 홀마다 그린에 인접하여 카트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구간이 있다. 그린에서 50~60야드(45~54m) 떨어진 구역에서는 보통 클럽의 페이스 각도, 즉 로프트가 더 큰 아이언 클럽인 웨지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럴 때 디봇이 더 많이 생긴다. 그 돌보지 않은 흔적들, 즉 디봇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

UCLA의 골프 팀은 훌륭한 벨-에어 골프클럽에서 라운드 하는 특혜를 누렸지만, 라운드 하는 동안 골프 코스를 관리하는 책임감 있는 골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부루인 골퍼들(Bruin Golfers)은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매 홀마다 배토 바구니를 들고 6개의 디봇을 메꾸도록 요청 받았고, 그린에서는 남겨진 4개의 피치마크 자국들을 수리해야 했다.

골프장 관리협회에 따르면 배토를 해주지 않으면 디봇은 수동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배토를 해줘라. (때때로 바구니는 카트에 붙어 있다.) 골프장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식이 선호되는 지 대답해 줄 것이다.



- 코스에 골프채가 떨어져 있으면 항상 주워서 마샬에게 건네주거나 프로숍에 맡겨라.

거리 체크

페어웨이에 기록되어 있는 거리 표시에 주목해라. 스프링클러 헤드 판 위에는 페어웨이에서 그린까지의 거리 표시가 되어 있다. 거기에는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것이다.

125

145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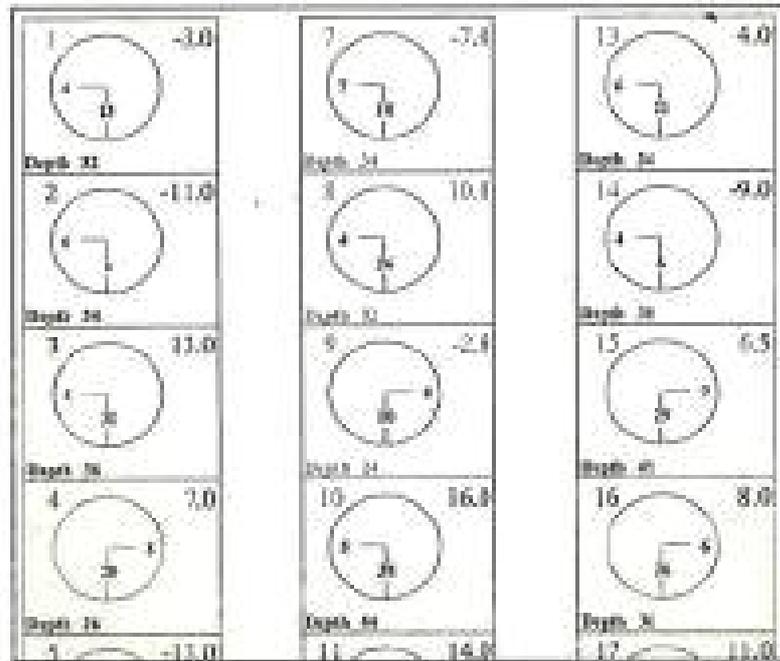
이것은 스프링클러에서 앞 핀까지의 거리가 125야드(114m), 중 핀까지 145야드(132m), 백 핀까지 165야드(150m)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핀이 그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얼마나 공을 보내야 할 지 알 수 있다. 룰에 위배되지 않는 러프 선상에 볼이 있다면, 거리표시가 도움이 된다. 자기 볼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동반자에게 거리 표시를 찾고 알려 주어라.



GPS 시스템 - 말 그대로 위성으로 측정하며, 카트의 화면에 정확한 거리를 알려준다.

핀 종이 - 때때로 카트에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 대신에 손으로 쓴 종이가 카트에 부착되어 있을 것이다. 라운드 당일 날 그린 앞에서부터, 그리고 측면 에지(Edge)에서 부터의 홀컵까지의 정확한 위치를 피트 단위로 보여주는 숫자로

된 각각의 그린을 도식화한 시트이다.



상급 골퍼들은 그린 어디에 핀이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핀 시트는 각각의 홀(1~18번홀)번호를 상단 좌측 모퉁이에 숫자로 표시한다. 상단 우측 모퉁이에 있는 숫자는 라운드 당일 날 홀 컵이 피트 단위로 멀리 뒤쪽 또는 가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핀 색 - 홀의 깃발은 핀의 위치(홀 컵은 말 그대로 지면에 “구멍”부분)를 알려 주는 힌트이다. (핀 위치는 매일 바뀐다.) 스코어카드가 열쇠를 제공해 줄 것이다. 파란 깃발은 백 핀을, 빨간 깃발은 앞 핀을 의미한다.



깃대 위에 달린 볼 - 만약 홀의 깃발이 모두 같은 색이라면 깃대에 볼이 붙어 있어 핀의 위치를 말해줄 것이다. 공이 아래에 있다면 백 핀임을 가리킨다. 만약 공이 중간에 걸려 있다면 그린의 중앙을 의미한다. 바닥끝에 공이 붙어 있다면 핀이 앞 핀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상기의 모든 것들은 그린의 길이가 60~70야드(54~64m)로 길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골프장의 핀 표기 방식이 어떻든간에 홀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안다면 이러한 정보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초보 골퍼는 앞, 중간, 뒤, 우측, 좌측 핀의 위치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알아도 충분하다.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다. 조언은 독이다. 라운드 중에 이렇게 저렇게 쳐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과 골프를 치는 것처

럼 불쾌한 일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조언일지라도, 그것들 대부분은 대가를 치르는 만큼의 가치만을 지니게 된다. 스윙 조언을 할 수 있는 곳은 연습장에서이거나 18홀 게임이 끝난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눌 때이다.

분명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커플이 최악이 될 수 있다. 바바라는 한때는 골프를 잘 쳤던 그의 남편 로앤과 골프를 했다. 그는 티샷 하면서 공을 물에 빠뜨렸다. 그리고 바바라도 똑같이 물에 빠뜨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로앤은 소리쳤다. “맙소사! 내가 물에 빠지는 걸 봤잖아. 당신은 왜 그랬는데?” 예의를 갖추고 배려해라. 다른 골퍼의 배려에 고마워해라. 단, 확실히 하라. 조언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라(라운드 후 또는 연습장).

핵심 요약

- 잠깐이라도 능장 플레이가 초보자, 여성, 어린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골프 기술보다는 자세의 문제이다. 세계 유수의 골퍼들이 때로는 가장 능장 플레이어의 주변이 될 수 있다.
- 왜 빠르게 플레이를 하냐고? 빠르게 진행하면 골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다. 페이스를 유지하면 생각하고 궁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계속 움직이고 리듬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준다.
- 게임이 시작되면 연습 스윙은 한 번이면 족하다. 연습 스윙을 하면서 디봇을 내지 않도록 해라. 가장 좋은 샷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다.
- 시간에 걸쳐 사기 저하 또는 코스 컨디션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디봇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는 것이다. 디봇을 메꾸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에티켓의 초석이다.
- 다른 사람들이 공을 찾도록 도와주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라. 동반자들이 플레이를 해도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려주어라.
- 먼저 보내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다. (앞 팀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 속도를 유지하는 팀은 다른 팀을 먼저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보내기가 가장 적절한 곳은 그린이나 티와 같이 플레이어가 모여 있는 장소이다. 기꺼이 양보하라. 만약 문제가 있다면 마샬을 호출하라.
- 더블 파를 기록 했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포기하고 공을 주워라.
- 분실구를 줍기 전에 그 공이 정말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남의 공인지 확실히 구분해라.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공을 줍지 마라.

“미국 골퍼들의 진행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골프 게임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미국 사람들이 빨리 서두르는 습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안타깝게도 골프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정반대이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인들은 빠른 지하철로 여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걷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골프장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느리게 걷는다.”

-H.J.위엄의 『골프 상식(1910)』



해저드에서 클럽이 지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워터, 벙커 또는 레터럴 해저드

“골프 코스에서의 해저드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저드는 빠질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지 반드시 빠지게 되는 위험은 아니다. 어떤 해저드들은 골퍼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저드가 항상 골프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마다 기억에 남는 특이한 해저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해저드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피터 탐슨, 『알렉 바우어의 해저드 후기』

골퍼들이 아주 싫어하는 해저드는 그 골프 코스의 특성과 성격을 말해준다. 유명한 골프 코스 설계자에 따르면, 해저드는 영리한 골퍼가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등대와 같은 고마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마움을 인정받지 못한다. 해저드는 골프를 흥미롭고, 도전적으로 만들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 무엇보다도 해저드는 우리에게 공략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해저드7)에서는 예절에 대한 의식이 또한 필요하다. 누군가의 볼이 해저드에 들어가게 되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떠한 말도 필요 없고, 그저 무관심한척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해저드에서 터치 금지

볼이 해저드에 들어가면 클럽은 “지면에 닿아서” 안 된다. 어떤 해저드에서도 실제 샷을 할 때는 물, 모래, 돌 등이 챔병거리거나 튀겨도 되지만, 샷 전에는 클럽이 물(또는 땅이나 모래)등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해저드에서는 연습스윙 시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모래 벙커나 다른 해저드에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게 되면 심중팔구 연습스윙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벙커에서 연습 스윙할 때는 클럽이 모래에 닿아서 안 되는 것이다.

모래 벙커 출입 방법

가장 흔한 해저드가 모래벙커이다. 모래 벙커 출입 시 항상 낮은 쪽에서부터 들어가고 나와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벙커 위쪽으로 걸어서 나오지 마라. 무너지기 쉬운 벙커 사면이나 돌출된 부분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7) 해저드(Hazard): 벙커와 워터 해저드(개천, 바다, 호수, 연못, 고랑, 배수로), 레터럴 워터해저드를 포함한 총칭이다.



모래 벙커 출입할 때는 낮은 쪽으로 들어가고 나와라.

벙커 정리

캠핑 후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배려 깊은 등산객처럼 벙커 샷을 하고 나면 벙커를 깔끔히 정리하라. 뒤 팀에 있는 골퍼가 벙커에 볼을 빠뜨렸을 때 리커버리 (Recovery) 샷을 잘 할 수 있도록 벙커를 정리해야 한다. 벙커 고르개는 벙커 근처에 놔두어야 하며, 때로는 카트 뒤에 실려 있거나 “트랩(벙커의 비공식 용어)” 주변에 놓아둔다. 벙커 고르개를 어디에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논란이 많지만, 공식적으로 벙커 고르개는 벙커 안쪽이 아니라 옆에 나란히 놔두는 것이다.

해저드 안에서

벙커 해저드 안에 있는 플레이어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벙커 샷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골퍼들은 벙커 샷을 두려워한다. 옆에 있는 동반자들은 공이 어떻게 나와서 어디로 날라 갈지 모르니 긴장해야 하며 골프 백 등을 멀리 옆으로 치워서 혹시라도 공이 안 맞도록 해야 한다. 민첩한 “주의”가 필요하다.

레터럴 워터 해저드

빨간 말뚝이나 빨간 선으로 표시된 *레터럴 해저드*는 아웃 오브 바운드처럼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다.(9장 참조). 골프 볼이 레터럴 해저드에 들어간 경우 샷을 다시 하기 위해 제 자리에 돌아갈 필요는 없다. 레터럴 해저드와 다른 해저드의 큰 차이점은 위치에 있다. 레터럴 해저드는 보통 페어웨이와 나란히 병행하여 위치해 있다. 1벌타를 받고 최초 샷이 들어간 해저드(공식적으로는 해저드 초입 입수지점)에서 두 클럽 이내에 볼을 놓고 다시 친다. 해저드 처리 방법에 따라 볼

을 드롭⁸⁾ 하고 해저드 들어갔으므로 1타, 벌 타로 2타째이고, 현재 3타째 샷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면, 해저드 안에서도 플레이는 할 수 있다. 해저드 안에서는 클럽이 물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니면, 원래 위치로 가서 다시 칠 수 있다. 룰(Rule)대로 정확히 하자면, 해저드에 볼이 들어가면 5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워터 해저드 처리 방법

노란 말뚝이나 노란 선으로 표시된 워터 해저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수구 또는 건천 바닥일 수도 있다. 드롭 위치(새로운 골프 볼을 놓고 치는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홀과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최후로 원구가 넘어간 지점을 연결한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볼을 드롭 한다. 물에 따르면, 워터 해저드 처리 방법 중 해저드를 건너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홀과 연결한 직선상의 후방에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 레터럴 워터 해저드에서처럼 해저드와 나란히 볼을 드롭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은 최초 원구가 들어간 해저드 지점에서 홀과 원구가 넘어간 지점을 연결한 직선상 후방으로 원하는 만큼 뒤로 가서(가끔 이런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플레이 하는 것이다. 드롭 할 때 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똑같다. 물로 들어간 첫 번째, 1벌타를 받고 2타째, 이제 3타째 샷이 되는 것이다.

드롭 방법

볼을 드롭 하는 방법은 똑바로 서서, 어깨 높이에 팔을 들어 볼을 들고, 떨어뜨려라. 그 볼이 해저드로 두 번 굴러가면(홀 쪽으로 굴러가거나 또는 두 클럽 이상 굴러가면), 다시 드롭 하고, 마지막 떨어진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한다.

환경 해저드

야생동물 서식지로 가지 않도록 하고 무릎 높이까지 이르는 진흙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파란색 말뚝이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곳은 입장 금지 구역이다. 볼을 찾으려고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린 새끼 사슴을 구경하려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보통, 이런 경우 골퍼에게 무벌타 드롭을 가능하게 하여 위험스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벙커에 빠진 두 개의 볼

한 명 이상의 골퍼가 친 볼이 똑 같은 벙커에 떨어졌다면, 누구의 볼인지 헷갈린다. 볼이 부분적으로 모래 속에 파 묻혔다면, 누구의 볼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8) 드롭(Drop): 볼을 분실했거나 장애물 지역 또는 플레이하기 어려운 위치에 볼이 놓여 있을 때, 플레이 가능한 위치에 볼을 놓거나 새로운 볼을 다시 놓는 것.

상황이 발생하며, 오구 플레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해저드 밖에서 오구 플레이에 대한 벌 타는 없으며 그냥 진행하면 된다. 고생 물학자가 공룡 뼈에서 먼지를 털어 내듯이 조심스럽게 털어 낸 다음 누구의 볼인지 식별해라.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당신의 볼을 쳐 버렸다면, 당신은 새로운 볼을 처음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계속해서 플레이해라. 완전히 묻혀버린 볼이 있다면, 볼을 잘못 식별하기 전에 그 볼을 그렇게 다시 해라.

플레이 우선권

벙커에 볼이 떨어지면 누가 먼저 플레이 할 지 추정할 수 없다. 티 샷 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누가 홀 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플레이 우선권이 달려 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먼저 플레이 하는 아너⁹⁾이며, 페어웨이, 벙커나 그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후의 수단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면, 항상 핸드 매시가 있다. 볼을 집어서 그린에 놓고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정식 골프 대회에서는 이런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플레이어는 언플레이어블¹⁰⁾ 라이를 선언해야 하며, 볼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볼을 쳐야 한다. 그러나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볼을 쳐야 한다. 하지만, 친목 도모 골프 라운드인 경우는 세 네 번 치고도 안 될 경우 시간과 경기진행상 볼을 손으로 주워서 그린에 올린다.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마 다음 홀에서 만회하면 된다.

루스 임페디먼트

또 하나의 중요한 해저드 룰이 바로 루스 임페디먼트¹¹⁾이다. 이것을 만지거나 들어 올려서도 안 된다. 나뭇가지, 짙은 잔디, 낙엽 또는 다른 자연 방해물이 벙커에 있는 경우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한다. 리커버리 샷 하기 전 어떠한 것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캔, 병, 클럽 또는 벙커 고르게와 같은 인공 장애물과 같은 방해물들이 벙커 안에 있다면 제거할 수는 있다. 수리가 필요한 모래 벙커에서 고인 빗물 웅덩이에 부분적으로 잠긴 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벌타로 볼을 벙커 내 물이 없는 곳으로 옮길 수 있다. 볼은 벙커 밖으로 옮길 수 없고, 홀 컵에 가까운 곳으로도 옮길 수 없다.

9) 아너(Honor): 경기자 중에서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언플레이어블(Unplayable): 플레이어는 볼의 상태가 플레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고 1벌타를 받은 후 홀과 가깝지 않은 곳에 드롭 할 수 있다.

11)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 실제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돌,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가리키는 말로 볼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페널티 없이 치울 수 있다.

"불이 모래 벙커에 들어갔을 때와 물에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은 자동차 충돌사고와 비행기 충돌사고의 차이점과 같다. 자동차 사고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 바비 존스의 『바비 존스 골프』에서

페널티 받을 뻔 했던 에피소드

경험 많은 골퍼인 잭은 친구 샬리를 골프장에 처음으로 데리고 갔다. 놀랍게도 샬리는 첫 티에서 드라이버를 아주 잘 쳤다. 페어웨이에 불이 떨어진 그 불은 엉뚱하게 튀어서 페어웨이 에지에 있는 낙엽과 나뭇가지 있는 쪽으로 굴러 갔다. 그녀는 불을 보면서 염려스런 표정을 지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샷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들어서 걷어 낼 수 있어."라고 잭이 말했다. "그래? 잘 되었네! 불 주위에 있는 것을 옮겨도 되는 건지 잘 몰랐어."라고 샬리가 말했다.

루스 임페디먼트를 걷어 낸 후 그녀는 7번 아이언을 잡고서 다시 아주 잘 쳤지만, 불은 그린 옆 벙커 안에 떨어졌다. 그녀가 막 샷을 하려던 차에 갑자기 불 바로 옆에 나뭇가지 몇 개가 눈에 보였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걷어내려 하자, 잭이 그것을 보더니 소리쳤다.

"잠시만, 그렇게 하면 안돼요! 룰 위반이에요! 모래 벙커에서는 어떠한 것도 만지며 안돼요!"

"아~", 샬리는 페어웨이로 가면서..."아...그게 아니고...나는 그저~~신경 쓰지 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조심이 나뭇가지들을 피해서 최선의 샷을 구사했다. 불이 한 번에 벙커에서 탈출했다! 그 불은 홀 깃대 쪽으로 갔고, 홀 컵에서 6미터 정도 떨어진 그린에 올라갔다. "아주 훌륭한 샷이야!"라고 잭이 말했다.

벙커 발자국들을 원래대로 열심히 잘 정리 한 후, 샬리는 첫 번째 퍼트를 하게 되었다. 퍼팅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홀 컵으로 가는 퍼팅 라인에 일부 낙엽이 있었다. "흠.....페어웨이에 있는 낙엽은 옮길 수 있고, 벙커에 있는 것은 옮겨서는 안 되는데..., 그린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샬리는 고민했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눈치 챈 잭은 그녀를 도우려 가까이 갔다. "그 나뭇잎들을 걷어 낼 수 있어, 그린 위에서는 공에 달라붙어 있지 않은 어떠한 것도 걷어 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

"근데, 당신이 말하길....."

두 친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 이야기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골프장은 세 개의 섹션이 있는데, 샬리가 느꼈듯이, 골프 코스 중 어디에 불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룰이 적용된다. "스루더그린"이란 그린과 해저드를 제외한 모든 골프 코스를 의미한다. 해저드에서 룰 적용이 다르고, 그린 위에서도 또한 다르다. (추신: 다행스럽게도 샬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두 번의 퍼팅으로 멋진 파를 기록했다.)

핵심 요약

- 항상 벙커의 낮은 쪽으로 들어가서 나와라.
- 모래 벙커를 포함한 해저드에서는 클럽을 지면에 대면 안 된다. 샷을 할 때는 지면(물, 모래)을 건드려도 되지만, 연습 스윙 할 때는 건드리면 안 된다.
- 볼이 벙커에 들어갔을 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플레이 하는 것은 아니다.
- 벙커 내에 있는 볼을 두세 번 치고도 볼이 안 나오면 공을 손으로 집어라.

” 상대편 플레이의 볼이 벙커에 아주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갔을 경우, 상대방 옆에 서서 상대방의 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기분이 좋아 큰 소리로 그의 타수를 계산 한다고 해서 룰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대등한 조건에서 그와 겨루기 위해 9번 아이언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호레이스 허친슨(1896)

제 7 장 그린 위에서

“그린에서 홀 아웃 한 플레이어는 또다시 퍼팅을 해서는 안 된다.”

- 잭 버케의 『골프의 10가지 레슨』

당구대의 녹색 모직 천과 같은 그린은 골프 코스 중에서 조성하는 비용과 유지 비용이 가장 많은 든다. 만약 당신이 카트 타고 그린 위를 밟고 지나간다면, 골프장 직원은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린 위에서 발을 질질 끌며 걷거나, 달리거나, 점프하면서 뛰거나, 파헤치거나 또는 그 다른 그린표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골퍼는 적극적으로 그린을 보호해야 한다. 그린 위에서처럼 골프 에티켓을 중요시하는 것도 없다.

평행 주차

그린 주변에 가면 티잉그라운드처럼 카트도로를 따라 카트 정차를 위한 장소가 있다. 이곳은 카트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퍼트를 하기 위해 카트에서 내리기 전에 다음 티 쪽을 향하도록 평행하게 그린 주변에 카트를 정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단계가 원활해지고 골퍼가 두 번 카트를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출입을 위해서는 골프백 카트나 손수레 카트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린 약100야드(91m)거리에 표지판 혹은 로프로 카트 도로 위치를 안내해 줄 것이다. 코스를 잘 모르는 골퍼는 골프백을 놓고 코스 카트 도로를 잘 아는 골퍼들과 함께 따라 다니면 된다.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주변에 카트를 세워두거나 걸어가서 우측에 백을 놔두는 것도 경기시간을 절약해 준다.

올바른 보수 방법

- 1) 볼 마크 뒤 높은 쪽에 보수기를 삽입하라.
- 2) 볼 마크 뒤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밀어라.
- 3) 들어 올리거나 보수기를 비틀지 마라.
- 4) 마크의 양쪽을 가운데로 밀면서 구멍을 막는다.
- 5) 퍼터로 표면을 부드럽게 툭툭 치면서 다진다.
- 6) 잔디 보수를 위해서 흐트러진 잔디를 이용하지 마라.



잘못된 보수 방법



센터 또는 구석 쪽으로 올리면 잔디뿌리를 찢게 되고 결국 브라운 스팟(Brown Spot)병을 초래하여 치유하는데 수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잘못된 보수 방법



초록색 보수기로 들어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모래를 그린 표면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 뿌리부분을 찢게 만들어 버립니다.

올바른 보수 방법



보수기를 삽입해서 가운데를 향하여 뒤와 옆으로 밀어야 뿌리 시스템에 손상이 없다. 바로 치유가 시작된다.

재빠른 수리

그린 위로 떨어진 볼은 그 충격으로 인해 보통 쪽 패어 자국을 만들게 마련이다. 이런 움푹 패인 부분들을 수리하여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것처럼 처음 부딪혀 패인 부분은 볼이 굴러가서 멈춘 곳으로부터 거리가 조금은 떨어져 있다. 백에서 퍼터를 꺼낸 후, 피치 마크를 찾아서 그 자국을 수리해라. 볼이 떨어져서 패인 마크 자국들은 여기저기에 있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볼 마크 자국도 수리해 주는 배려를 보이도록 해라.

- 발을 끌지 말고 부드럽게 걸어라. 왜냐하면, 밀창에 미끄럼막이 장치가 달린 신발조차도 그린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 위 퍼팅 라인 밟지 않기

그린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면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은 퍼팅라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 개의 지점이 연결되어 하나의 연속적인 퍼팅 라인이 된다. 모든 볼은 홀 컵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다. 어떤 퍼팅은 짧고, 어떤 퍼팅은 좀 길기도 하다. 어떤 퍼팅은 거의 똑 같은 경로로 볼이 들어간다. 그린 위에 있는 네 개의 볼은 각각 다른 가상의 라인들이 있다. 이것은 각각의 볼에서 홀로 연결되는 라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퍼팅라인이다. 가장 잘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퍼팅라인이며, 이런 퍼팅라인 따라 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린 위 발자국으로 인해 볼이 원래 예정된 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틀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홀 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향을 틀어버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퍼팅라인에 밟지 않는 게 골프의 기본예의다. 그 퍼팅라인 주위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밟지 말고 그 위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린의 최상의 상태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골퍼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기본 예의를 아주 잘 준수하고 있다.

종종 볼이 홀 컵 가까이에 붙어 있을 때처럼 퍼팅 라인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볼 마크를 하든지 아니면 퍼팅을 해서 홀 아웃을 하라. 단호하게 결정해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볼 마크를 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로 조심스럽게 물러나라. 마크를 다시 하고 퍼팅해서 홀 아웃을 하기 전에 다른 동반자가 끝내도록 하라.

홀 컵 주위 반경 한발 밖으로 물러나라. 특히, 퍼팅이 중요하고, 민감한 경우

에는 더욱 그렇다. 퍼팅라인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스포츠정신과 명상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혹시라도 당신이 다른 사람의 퍼팅라인을 실수로 밟았다면, 재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셋팅 자세에서는 조용히

홀 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먼저 플레이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일련의 퍼팅을 하기 전에, 골퍼들은 백을 실고, 웨지에서 퍼터로 바꾸고, 볼 마크를 수리하고, 자신의 볼을 찾고, 마크하고, 닦아야 한다. 은행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이런 일련을 일들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당신이 친 샷이 아주 잘 맞아서 홀 컵 가까이 떨어졌다면 가서 푹 쳐서 홀 컵에 넣든가 아니면 마크하라. 피치 마크를 편하게 수리하라. 옆으로 비켜서서 다른 동반자가 플레이 하도록 해줘라. 때 맞춰서 퍼팅 아웃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린에서는 플레이 진행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린 위에서의 망설임, 우유부단, 과도한 공손함, 미경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일부 플레이어들은 헤드라이트 앞에서 사슴처럼 얼어 버린다. 우리 각자는 그린 위에서 모두 퍼팅을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항상 그렇듯이, 골퍼들은 남이 재촉하기 전에 플레이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골퍼가 퍼팅 하려고 자세를 취했을 때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 전까지 재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라.

퍼팅하기 전에(골프채를 백에 채우고, 피치 마크를 수리하고 등등) 그런 일들을 신속히 끝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플레이어가 자기 볼 앞으로 더 빨리 갈수록, 그 볼에 대한 공략방법을 더욱 오래 고민할 시간이 있다. 초보들이 다음 절차를 잘 모른 채 주위에서 있으면, 그 공백시간이 어색하기만 하다. 경험 있는 골퍼들은 진행에 대해 교통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의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 명의 퍼트가 홀 컵을 지나갔다. 그런 후 어쩔 줄 몰라 그 주변에서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퍼팅을 한 후 볼에 가까이 가서 마크를 하고 옆으로 비켜서서 다음 퍼팅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나간 볼이 홀 컵에 아주 가깝게 붙어서 두 번째 퍼트가 쉽게 된다면, 바로 “홀 아웃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다음 퍼팅을 진행한다. 물론 한다면, 그는 플레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지만, 친선도모 플레이에서는 이런 방법이 훨씬 좋다. 공식적이 경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 한 명이 홀 아웃 하고, 세 명이 남았다. 누구 차례일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누군가의 차례가 온다. 퍼팅 하려 할 때 방해받거나 누군가가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연습 퍼팅을 한다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퍼팅 시 주변시야에 누군가가 방해가 된다면,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요청하라. 헐끗 보이는 게 신경 쓰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제 시야에 안 보이게 옆으로 비켜주시겠어요?”라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신중하게 집중을 잘 할 때 가장 좋은 퍼팅이 나온다. 전설적인 골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퍼팅할 때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챔피언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많다. 종종, 이상한 소리, 주머니 동전 딸랑거리는 소리, 퍼팅 할 때 옆에서 내는 소리들은 퍼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경 쓰이게 한다.

퍼팅하기 위해 그린의 지형을 살펴볼 때가 가장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언들레

이션¹²⁾(골프용어로는 브레이크)을 살펴보는 것은 계약서 같은 데 나와 있는 작은 글자들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거의 모든 그린은 편평하지가 않다. 퍼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경사면에서 어떻게 퍼팅 할 지를 결정하려면 상상력, 터치감등이 필요하고 손을 떨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간을 뺏어 버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퍼팅 할 때 퍼트를 잘 살펴보라. 이제 당신이 퍼팅 할 차례일 경우 스탠스를 잡고, 연습 스트로크를 하고, 그런 다음 퍼팅 하는 것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볼이 홀 컵에 들어가지 않아, “아직 안 들어갔으니, 다시 퍼팅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지언정,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를 잡고 다시 퍼팅해서 홀 아웃 하라.

자세를 취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한다. 골퍼는 다른 사람의 바로 뒤에 서지 않는다. 특히, 그린 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팀 경기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지만, 보통 골퍼 바로 뒤에 서는 것은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 즉, 매너에 벗어난 것이라 간주한다. 다른 사람이 퍼팅 하는 앞에 서는 행위 즉, 바로 홀 반대쪽에서 서는 것도 똑같이 매너에 어긋난 행위이다. 가끔은 비슷한 퍼팅라인 선상에서, 내가 퍼팅 할 것을 미리 보는 것처럼 퍼팅 한 볼이 굴러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골퍼의 주변 시야 밖에 서야 한다. 볼을 퍼팅 할 때까지 기다린 후 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켜보라. 퍼팅 하고 난 후 볼의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 움직여도 괜찮다.

깃대에 붙어 시중들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깃대를 잡는다. 홀 컵에 가장 가까이에 볼을 떨어뜨린 플레이어가 깃대를 뽑아서(퍼팅 라인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방해가 안 되는 프린지 주변에 내려놓아야 한다. 깃대를 절대 던져서는 안 된다. 긴 거리 퍼팅 시 골퍼들은 누군가의 보조가 필요하다. 깃대를 똑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흙으로 된 테두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홀 컵으로부터 깃대를 조심스럽게 빼내라. 홀 컵 주변에 바로 서지 않도록 하라. 깃대가 끼여서 안 빠져 나오면 퍼터로 툭 쳐서 빼내라. 두 번 내지 세 번 세게 툭툭 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골프 볼이 홀 컵 쪽으로 굴러가서 깃대와 홀 컵 사이에 끼여서 지면에 있는 홀 컵을 잡아 당겨야 하는 우습고 당황스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당신의 그림자와 같은 쪽에 서서 한 손으로 깃대를 잡아라. 그림자가 홀 컵을 결코 가려서는 안 된다. 깃발이 필러이지 않도록 꼭 잡아라. 퍼팅 하자마자 편을 빼고 옆으로 이동하라. 누군가 깃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퍼팅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놓으라. 깃대를 뽑기 전에 퍼팅 한 볼이 홀 컵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TV에 방영되는 골프대회에서 캐디가 자연스럽게 깃대를 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12) 언듈레이션(Undulation):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이나 퍼팅 그린(putting green)면의 기복(起伏). 업 앤드 다운(up and down)이 코스 전체의 기복을 가리키는 데 대하여 이 언듈레이션은 각 홀마다의 기복을 나타내는 데 쓴다.

리뷰:

1. 퍼팅라인¹³⁾에 서지 마라.
2. 홀 가까이에 서지 마라.
3. 홀 컵에 그림자가 나오게 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식 다도(茶道)를 지키는 것처럼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단순히 준수해야 하는 프로토콜이나 관습 이상의 것이 있다. 홀 컵 주변에 대한 연구로서, 그 컵 주위에는 담과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가 있다. 날이 저물어가고 골퍼들은 홀 컵 주변에 있는 잔디를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됨에 따라서, 늦은 오후의 퍼팅이 잘 안 되는 “울퉁불퉁한 도넛모양” 같은 게 생기게 된다. 도넛을 아주 좋아하는 만큼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골프코스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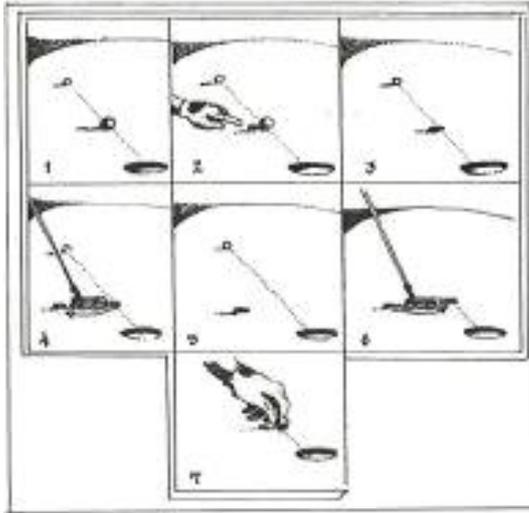
기억해야 할 틀

깃대를 처리해 주는 것은 하나의 예의이며, 그린 위에서 퍼팅하는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린 바로 밖에서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깃대를 가만히 놔두던지 아니면 뽑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한다. 그린 위에서 깃대를 맞히면 2벌타이다. 깃대를 방해 받지 않는 곳에 놓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린 밖 어디에서든지 깃대를 맞히는 것은 괜찮다. 깃대를 뽑을 지에 대한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다. 깃대를 처리해 주는 것은 결코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골퍼들이 서로를 위해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다.

깃대 처리 시 주의 할 점

초보 골퍼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깃대 처리하는 것이다. 일부 골퍼들은 흔한 실수 중 하나의 예로 초보골퍼들이 잔디를 건드리면서 홀 컵으로 가는 라인을 가리켜 주는 행위를 꼽을 것이다. “여기가 라인이다. 여기로 퍼팅 하세요,” 라고 홀컵 쪽을 건드리면서 말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퍼터가 지면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지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다. 때때로, 페어웨이에서 친 볼이 그린 위에 있는 다른 볼을 맞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어떠한 벌 타도 없다. 첫 번째 볼을 원래 위치로 갖다 놓으면 되고, 다른 볼은 그 볼이 멈춘 곳에서 플레이 하면 된다. 어떠한 벌 타도 없으며 반칙도 아니다.

13) 퍼팅라인(Putting Line): 그린에서 플레이어가 볼을 쳐서 보내고자 하는 선을 말한다.



마크를 옮기려면, 먼저 볼 뒤(#2)에 코인을 놓아라. 당신의 퍼터를 나란히 놓아라(#4). 코인을 바꿔라(#5). 퍼트로 훑어 아웃 하기 전에 그 절차(#6~7)를 반대로 해라.

마크하는 법

골퍼는 그린 위에 떨어진 그들의 볼을 닦고, 거슬리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볼 마크를 해 주는 것이 매너이다. 골프 룰에 따르면, 퍼팅 그린 위에 떨어진 볼은 훑어 컵 이외의 어떠한 것도 맞혀서는 안 된다. 만약 나의 볼이 상대방의 볼이나 깃대를 맞추면, 2벌타를 받게 된다. 설령 멀리 있는 남의 볼이라도 내 라인선상에 있다면, 마크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해야 한다.

동반자의 볼이 내 라인 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면, 마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볼이 그린 위에 올라오면 누구든지 마크할 수 있다. 일단 볼을 마크하면, 원래 위치로 놓기 전에 볼을 닦을 수 있다. 볼이 방해가 된다면 지체 없이 마크하라. 그러면, 경기진행 시간 또한 절약 된다.

볼 마킹 요청 받았다고 화내는 사람도 없으며, 요청도 주저하지 말고 해라.

마크 도구로 골프장갑의 스냅, 플라스틱 원반이나 다른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 가끔씩 티를 볼 마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될 건 없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 볼 마킹 하는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훑어 컵 라인 선상에 있는 볼은 마크를 하라.
2. 볼을 집어 들어라.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볼을 먼저 집고 난 후 볼 마커를 거기에 놓는 것이다. 플레이를 다시 하려면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된다. 마커 앞에 볼을 놓고, 마커를 주머니에 넣어라.

왼쪽으로 퍼터 하나?

볼의 경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당신에게 마커를 옮겨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들리는 것처럼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골퍼가 그의 동반자를

존중하는 의미이다. 당신 볼을 마크 한 후 퍼터 헤드를 마크와 나란히 놓아라.

주로 다음과 같이 한다. 플레이어가 “ 왼쪽으로 하나만 옮겨 주세요.” 그 말은 퍼터 헤드만큼 왼쪽으로 옮겨서 마커가 볼의 방향을 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별 타는 없다.

이를 위해 마크를 집어서 원래 위치에서 퍼터 헤드 길이만큼 옆으로 옮겨서 놓으면 된다.

이제 당신 할 일은 끝났다. 퍼팅하기 전에 마커와 볼을 원래 위치로 놓는 단계를 기억해라. 아주 짧은 퍼팅이라 이런 절차를 피하고 싶으면, 내 라인 선상에 있는 골퍼에게 먼저 홀 아웃¹⁴⁾ 할 것을 요청하면 된다.

- 룰에 따르면, 그린 위 어디든지 피치마크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릿 마크는 안 된다. 깎인 잔디 조각, 낙엽, 나뭇가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것도 옆으로 치울 수 있다.

당신이 마크해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마킹 여부를 말 해 줄 것이다. 마크하든가 아니면 놔두어라. 볼을 환기시키는 그 자체가 집중을 방해시키는 것이다. 볼을 마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우면 마크를 해 버려라.

저의 퍼팅 차례인가요?

홀 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플레이어가 먼저 쳐야 한다. 그러나,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의 사례가 그린 에지 바로 밖에 있는 볼이 그린 위에 있는 볼보다 홀 컵에 실제로 더 가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위 볼을 더 가깝게 여기는 것이다. 친목 도모 골프에서는 공식적인 퍼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린 밖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보통 그린위로 먼저 플레이 하도록 요구한다.

누가 먼저 플레이 할 순서일까? 그린 위 홀 컵에서 6미터 퍼트를 남겨둔 사람과 그린 바깥쪽에 있지만 4.5미터 남은 사람 중 누가 먼저일까? 정답은 6미터 퍼트를 남겨둔 사람이 먼저 할 차례이다. 왜냐하면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먼저 치라고 권유하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가 공식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든 간에 친선경기에서는 먼저 해도 상관없다.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린 위 골퍼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정체 상황에서 진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있다. 짧은 샷 퍼트에서는 마크하지 말고 바로 홀 아웃 하는 것이다. “홀 아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 다리를 벌려 퍼트 하라.

연속 퍼팅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퍼팅을 하는 것이다. 홀 아웃 할 때까지 계

14) 홀 아웃(Hole Out): 볼을 컵에 넣어 그 홀의 경기를 끝내는 것.

속 한다. 그런 다음 당신 차례이고, 그런 다음 에드, 그런 후 엘리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지 않고 끝날 때까지 퍼팅 하는 것이다. 마크도 하지 않는다. 누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누구 차례인지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낭비도 없다. 가장 멀리 있는 플레이어가 시작하면서 경기를 진행하여, 한 사람씩 모든 이가 끝날 때까지 플레이 하는 것이다. 사전 동의하에 또는 상황이 허락할 때 행해지는 이런 연속 퍼팅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이 퍼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도 한다.

컨시드15)

멀리건처럼 “김미,”는 골프 룰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또한 경기진행시간을 줄여준다. 종종 “좋아요”라는 말과 함께 골퍼에게 볼을 다시 푹 쳐서 보내준다. 푹 쳐서 홀 컵으로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여겨지는 그 볼은 하나의 타수로 계산한다. 비공식 게임에서는 퍼터 손잡이에 있는 가죽 이내 길이에 있는 거리(즉, 홀 컵에서 30cm~60cm 이내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볼은 종종 컨시드로 간주된다. (말 그대로, 퍼터를 지면에 대어 홀 컵에서부터 그립까지의 거리로 골프 표현 중 하나이다.)

컨시드를 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김미라는 것은 공식 대회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골프대회에서는 반드시 끝까지 퍼팅해서 홀 아웃 해야만 한다. 공식 핸디캡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려면, 첫 번째 티나 그린에서 당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라. ‘동반자에게 오케이 없이 홀 아웃 하는 게임을 원한다.’라고 말하라.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퍼팅한 볼을 발로 차서 되돌려 주는 것은 건방진 행위이다. 꼭 언급해야 하는 한 가지는 잘 치는 골퍼들은 초보 골퍼가 컨시드를 주는 것에 대해 짜증낼 수도 있다. 6타나 7타, 혹은 더 많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60cm 거리에 컨시드를 주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모든 골퍼들은 홀 컵 속으로 볼이 들어가서 파 퍼팅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자들이 경솔하게 퍼트로 푹 쳐서 볼을 돌려주는 것이 종종 불만이 라고 이야기 한다. 그 볼을 돌려주려는 사람 즉, 김미를 주는 사람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이다. “돌려 드릴까요?” 또는 “컨시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면 *승낙하지 마라*. 골프에서 작은 것도 큰 것처럼 똑같이 카운트 한다는 것 보다 더 자명한 말은 없다. 5cm 퍼트도 300야드(274m) 드라이버 샷과 똑같이 1타로 계산된다. 바비 존스(Bobby Jones)은 “아주 오래 전”에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짧은 거리의 퍼트란 없다는 걸 배웠다”라고 인정했다 .

골퍼는 다른 동반자의 진행사항을 쉽게 잊어버린다. 동반자에게 관심 없는 골퍼에게는 당신의 퍼팅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이 방해되지 않게 일찍 나올수록 그들은 더 좋다고 느낀다. 네. 맞습니다. 많은 골퍼들은 자기도취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퍼트에 큰 영향이 없다면, 감사하게 오케이를 받으라. 매치 플레이에서는 숏 퍼트는 보통 컨시드를 받는다.

○ 퍼트가 홀 컵에 들어가면, 다음 플레이어가 퍼트하기 전에 집어 올려라.

15) 컨시드(Concede): 매치플레이 때 상대방 볼이 워 퍼트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좋다고 말하고 홀인을 인정해 준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깃대를 처리하다

첫 번째로 홀을 끝낸 골퍼가 깃대를 집어 들고 다시 놓는다. 마지막 퍼트가 홀컵 속에서 달그락거릴 때, 그 깃대를 다시 제자리로 갖고 와야 하며, 그 팀 멤버들은 퍼터랑 본인 클럽들을 챙기고 다음 티로 이동한다. 마지막 플레이어가 퍼트하려고 자세를 잡으면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퍼트 할 때 살금살금 걷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라. 그의 주변시야에서 벗어나라.

그린을 빠져 나가는 골퍼들은 페어웨이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플레이해도 된다는 사인을 보내줘야 한다. 마지막 플레이어만 그린에 남겨두고 먼저 가버리는 것은 매너에 어긋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면, 혼자 남은 사람은 어려운 퍼트를 해야 하고, 깃대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야 하고, 그의 물건들을 챙겨서 빨리 쫓아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샷하고 스코어 기록하고!

그린 위에서 다른 사람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례 중 하나이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티에서 준비하는 다음 티에서 기록하라. 스코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뒤에 따라오는 팀이 안전하게 플레이 하고, 당신이 안전을 위해서 카트를 그린밖에 떨어져서 세우라. 골퍼들은 그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단호하게 그린을 빠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낸다. 그린 쪽 또는 뒤쪽 주변도 마찬가지이다.

침묵의 순간

퍼팅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P.G 우드하우스가 기억하는 선수 중 한 명은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소란스러워서 퍼팅 실수를 했다"라고 비난했다. 약간의 과장이 섞이긴 했다.

"내 특징 중 하나는, "내가 스탠스를 취했을 때 특히, 퍼팅 할 때 혼란스럽게 속삭이면 나는 흔들린다."라고 리처드 프랜시스는 저술했다. 지나가는 기차소리, 근처 교회에서 나오는 종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내 신경과 성질을 건드려서 자주 샷을 망치게 된다." 다수의 골퍼들이 이 말에 동의 할 것이다.

나이스 퍼트

3번째 퍼팅이든 8번째 퍼팅이든 좋은 퍼팅은 좋은 퍼팅이다. 이전의 샷 몇 개가 실망스럽더라도 누군가 샷을 칭찬해 주면 재빨리 의례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핵심 요점

- 그린은 골프 코스 중 가장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잘 보살피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골퍼가 가장 진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곳이므로 공식

적인 레스토랑과 같은 곳이다.

- 볼이 있는 곳으로 단호하게 움직여라. 당신 차례가 언제인지 파악해라. 피치 마크를 수리해라. 플레이의 흐름을 예측하고 행동하라.
- 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짧은 빈틈의 시간을 이용하라.
- 퍼팅 라인에 주의를 기울여라.
- 두 군데 피해야 할 곳. 골퍼 바로 뒤에 서는 것과 홀 컵으로 가는 라인에서 플레이어 바로 앞에 서는 것.
-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플레이어가 핀 처리해야 한다. 첫 번째 홀 아웃한 사람이 깃대를 원래대로 갖다 놓아야 한다. 퍼팅을 하자마자 깃대를 뽑되, 홀 컵의 가장자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경 써라. 깃대를 방해 되지 않는 곳에 놓아라.
- 볼 마크를 제대로 해라. 볼 뒤에 마크를 놓은 후 볼을 집어 올려라. 그 반대로 하면 안 된다.
- 시간 관계상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먼저 플레이해라.
- 계속적으로 연속 퍼팅을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볼이 홀 컵 안으로 들어 갈 때까지 한 명이 계속 퍼팅 하는 것이다. 아주 쉽다.
- 내 차례가 오면, 지면에 자세를 잡아라. 조용히 서라. 연습 스윙은 없다.
- 당신이 퍼팅을 하고 나서는 홀 컵에서 볼을 재빨리 꺼내라. 홀 컵에 있는 볼을 퍼터로 집어내려 하지 마라.
- 다음 티로 가면서 스코어를 계산하라. 다른 사람이 퍼팅 하는 동안 그린에서 하면 안 된다.

“골프의 반은 재미이고, 나머지 반은 퍼팅이다.”

- 피터 도브레이너의 『홀은 퍼팅 수 그 이상의』

HOLE	RATING/SLOPE	1	2	3	4	5	6	7	8	9	OUT
BLACK	72.0/128	402	154	390	561	795	169	433	481	378	3291
GRAY	69.5/127	390	145	360	534	765	141	418	451	341	3048
GREEN	67.5/121	369	133	345	498	748	123	353	390	324	2833
PAR		4	5	4	5	4	3	4	4	4	35
HANDICAP		9	17	11	5	13	15	3	1	7	
TID	87.1/122	327	92	326	443	700	100	399	501	306	2354
Score:											

그림 설명:

퀴즈 타임! 몇 번 홀이 핸디캡 1 번 홀인가? 그린 티에서 5번째 홀은 무엇이 파인가? 9홀 파는 무엇인가?

(정답: 8번째 홀, 4, 35.)

제 8 장 스코어 기록

"골프란 참으로 독특한 운동이다. 골프는 기량이 높은 선수들에게나 낮은 선수들에게나 평평한 플레이 장소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당신이나 나는 전성기의 잭 니클라우스와 함께 라운드 할 수 있다. 당신이나 내가 우리 전성기 때 라운드를 한다면, 각각의 핸디캡 시스템 덕분에 인해 우리는 잭 니클라우스를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갖게 된다.

-프랭크 "샌디" 타툼 주니어의 『골프와의 연애』

골프 초보자는 스코어를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초기에는 스코어 기록보다는 제 시간에 맞춰 골프 라운드를 끝내는 게 더 시급하다.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 밖에서 스트로크 흉내를 내면서 시작한다. 그런 후에야 물속에 들어가서 점점 수중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잘 못 하거나 물속에 가라앉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프 또한 다르지 않다. 우선 골프 코스에 자주 나가서 골프를 접하도록 해라. 어디에 서야 할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플레이의 기본을 배워라. 그런 후에 물 위로 머리를 들고, 나아가서 스코어도 기록하는 것이다.

점수 측정은 진보하듯 변한다. 경매 낙찰이나 누군가의 온도를 잦 것처럼, 짧은 시간의 창을 기록할 뿐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순간의 스냅 샷 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다. 스코어카드를 적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초보자들에게 더욱 그렇다.

프로골프 선수들은 항상 연습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스코어 기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그들이 스코어를 기록할 때는 새로운 코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거리, 그린정보, 대회기간에 그들이 플레이해야 할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과 같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초보자들도 배우려면 스코어카드 기입은 잊어버려라. 몇 번 라운드 해본 후 스코어를 기록하기 시작해라. 당신이 플레이 한 각각의 클럽의 거리를 익혀라. 그러면 골프의 에티켓이 익혀져서 편안해 질 것이다.

스코어 카드 기록

스코어 카드는 누가 몇 타를 기록했는지 적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를 기록해 두는 귀중한 수집품이다. 그것은 파, 각각의 티에서 홀 컵까지의 거리, 코스 레이팅, 난이도(슬로프 지수), 핸디캡 레이팅, 해당 로컬룰, 가끔은 오일 교환 할인 쿠폰도 들어 있기도 하다.

야디지 북은 스코어 카드에 적혀진 것과는 사실 조금 다르기도 하다. 티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사용되고, 홀의 외형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특히, 파3에서는 지면에 있는 야디지 마커들이 홀 컵까지의 거리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슬로프 지수

슬로프 지수는 그 코스의 거리, 각각의 티에서부터 장애물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대적 난이도를 지수화한 공식적인 레이팅이다. 이 정보는 어떤 티를 선택할지 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이다. 백 티에서부터 슬로프 지수가 140정도 될 수도 있다. *슬로프 레이팅 지수가 높으면, 그 코스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수는 스코어 카드 위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고, 처음 라운드를 하는 골퍼들이 눈 여겨 봐야 한다.

코스 레이팅

코스 레이팅은 핸디가 0인 스크래치 골퍼용으로 나온 수치이다. 파 슈팅(골프용 어로는 스크래치)골퍼가 라운드를 했을 때 낼 수 있는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크래치 골퍼가 백 티에서 코스 레이팅은 74타 또는 화이트나 블루 티에서 69.9타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코스 레이팅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코스는 그만큼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핸디캡

핸디캡이란 실력을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적 요인이 주어진 비정밀 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불완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 기계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핸디캡은 모든 사람들이 매번 코스에서 최선을 다해서 라운드를 한다는 가정 하에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핸디캡은 대회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골프만큼 오래되어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핸디캡은 파(Par)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타수이다. 파70인 코스에서 당신의 평균 타수가 90타수 이라면 당신의 핸디캡은 20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계산 방법이지만, 핸디캡은 파를 기준으로 한 평균 스코어 타수이다. *스코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핸디캡이 더 낮고, 골프실력도 더 낮다.* 핸디캡은 많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어느 골프장이든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공인 핸디캡을 만들고 관리해 준다. USGA의 지원을 받아 핸디캡을 계산해 주고 공인 핸디캡 카드를 발급해 준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라운드 했던 모든 코스에서의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핸디캡이 확정된 골프장에서의 스코어카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대로 플레이해서 기록된 스코어 카드라야만 가능하다. 멀리건 또는 김미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20개 스코어를 제출하면 가장 좋은 스코어 10개를 평균 내어 숫자와 지수로 나타난다. 티, 코스 난이도(슬로프), 전문가(코스 레이팅)에 대한 파와 같이 변수의 수가 복잡하듯이 핸디캡 계산 방식도 복잡하다. 골퍼들이 어느 골프장에서나 통용되는 실력에 대한 척도를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핸디캡이다. 어느 한 코스에서 핸디캡이 20이라면, 좀 더 어려운 코스에서는 25가 될 수 있다. 핸디캡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조정되기도 하며 골퍼들로 하여금 친목도모 분위기에서 경쟁하면서 라운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완전 초보 남성골퍼는 핸디캡 36이고, 여성은 40부터 시작한다. 스크래치 골퍼나 싱글 플레이어(핸디캡이 1~10)는 아주 잘 하는 골퍼들이다. 전국 대회나 국가 챔피언대회에서는 보통 핸디캡 5또는 그 이하의 플레이어들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스코어카드 위에 있는 핸디캡 라인은 골퍼들에게 매치나 내기할 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열쇠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핸디캡 1번 홀(스코어 카드에 숫자 1이라고 적혀진)은 첫 번째, 즉 아웃코스 9홀에 있다. 1번부터 9홀 어디든 될 수 있다. 넘버 2 핸디캡 홀은 두 번째, 즉 인코스 홀인 10~18번 홀에 있다. 넘버1 홀은 첫 번째 9홀 중 가장 어려운 홀을 의미한다. 넘버2 핸디캡은 인코스 중에서 가장 도전적으로 어려운 홀을 말한다. 스코어 카드에 내려가면서 적혀있다. 홀수는 전반 9홀 즉, 아웃코스이고, 짝수는 인코스이다. 모든 코스가 이런 방식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시험 목적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자들이 스트로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명의 골퍼가 똑 같은 핸디캡이 아닌 이상 잘 치는 골퍼는 상대방에게 몇 개의 타수를 준다. 상대적인 능력에 따라 몇 개의 스트로크를 줄지가 결정된다.

우리가 매치를 한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핸디캡이 12이고 나는 15라고 하자. 골프장에서 동등하게 하려면 당신은 나에게 3개의 타수를 준다. 이것은 아웃코스 2개의 홀에서 하나씩 갖고, 후반 인코스 한 홀에서 하나의 타수를 받는다. 그리고 난후 플레이하는 것이다.

스트로크-팁 대항전에서는 18-핸디캐퍼는 모든 홀에서 하나의 타수를 갖게 된다. 어떤 홀에서 파를 하면 스크램블이나 베스트 볼 방식에서 팀에 도움을 준다. (10장 참고) 핸디캡 36인 골퍼는 모든 홀에서 2개의 타수를 받는다. 그래서 파3 홀에서의 파는 핸디캡 스트로크로 계산하여 뛰어난 스코어인 1로 스코어카드에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핸디캡을 엄두 해두고 진지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점수를 수정하는 건 말 할 필요도 없고, 골퍼는 자기 스코어를 정직하게 기록해야 한다. 물에 따라 플레이 하는 것은 정직하게 핸디캡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몰지각한 골퍼들은 상이나 우승상금을 받기 위해 자기 핸디캡보다 더 부풀려서 올리기도 한다. 가장 기술적으로 정교한 시스템조차도 그런 것은 통제 할 수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있다. 골프세계에서는 *샌드백거* (Sandbaggers)라 부른다.

“물리학자들은 잔디에서 200야드(182m)보다 물에서 100야드(91m) 보내는 게 더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블랙키 웨라드

제 9 장 속지해야 하는 룰

질문: 플레이어가 헛간을 가로지르는 샷을 위해 헛간의 문을 열고 샷 해도 되나요?

대답: 네. 헛간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지만, 문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므로 열어도 됩니다.

-골프 규칙 2002-2003

예전에는 13개의 룰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 룰들을 해석하기 위한 직원들로 인해 2층짜리 건물이 있을 정도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성한 문자 같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IRS 코드처럼 심오한 골프 룰은 예를 들어 상기 룰 24-2b/15 같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다루고 있다.

미국 골프협회(USGA)와 영국 왕실 골프 협회(R&A)는 골프 룰을 제정하고 관장한다. 그 골프 룰은 플레이어와 장비, 대회, 골프 코스, 가끔씩 일어나는 표적을 다룬다. 룰을 해석하고 적용 하는 게 까다로워 골프의 공정성을 실제 골퍼에서 적용하는 영세산업이 실제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룰 북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지만, 골프 규칙(Decisions Book)을 읽다 보면 재미도 있다. 룰 북 부록은 2년마다 개정되며,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룰을 보완해 준다. 배수관에 들어가는 볼, 벙커에 있는 먹다가만 배 옆에 떨어진 볼(중요한 단서가 되는 근처에 배나무도 없다), 뱀, 볼 개미, 가재 은신처, 악어, 몹쓸 장난을 치는 사람 등 그 밖에 무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다뤄진다. 수수께끼 같고 긴장감으로 어우러진 이러한 이상하면서도 사실 집합체인 룰 북에 필적할 만한 연애소설도 거의 없다.

골프 관정 속에는 변화하는 세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골프는 수만 평이나 되는 대지위에서, 여러 자연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기후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행하여져 왔다. 영국의 전시 기간에 만들어졌던 일련의 골프 룰에는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특이한 조건들뿐만 아니라 골퍼들이 플레이를 개시할 장소까지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도 있었다.

골프 경기에서, 총성이 오고 가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플레이어들은 경기를 중단해도 별 타 없이 피신할 수 있다.

스트로크 할 때 동시에 폭탄이 폭발해서 다친 플레이어는 똑 같은 장소에서 다른 볼로 진행할 수 있다- 1벌 타.

시작 장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의 처신이 항상 맞다.

1. 볼이 떨어진 있는 그대로 플레이 하는 것.

2. 있는 코스 지면에서 그대로 플레이 하는 것.
3. 구제 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당신의 볼을 집어 들지 않는 것.

이러한 규칙들은 수 세기 동안 골퍼에게 전해져 왔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인정하건데, 룰은 좋지 않은 상황들은 다루고 있으며, 룰은 가혹하게 보일 수 있다. 룰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언어표현을 사용한다. 구분 지어야 할 것은 어느 날 어떤 종류의 라운드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쟁 라운드인가? 아니면 친선도모 라운드인가? 그것은 사회적 교량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룰이 공정해야 하는 대회 경기에서는 친구와 친목으로 라운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초보들에게는 빠른 경기진행이라는 명목 하에 특정한 행위가 허용된다. 대회경기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으며 룰에 관한 한 어떠한 재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골프 선수들은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 비하면 부러울 정도로 그들의 경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고 플레이 한다. 골프 선수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기를 진행하는데,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큰 상금이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경쟁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룰을 위반했기에 벌 타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골프의 중요한 자부심은 룰에 따라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문제의 골퍼가 룰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벌타 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고상한 행위이다. 프로 골퍼 벤 크렌쇼(Ben Crenshaw)에 따르면, 골프 룰은 “신성한” 것이다.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골프 룰이 진실로 진지하다.

“골프에는 해저드와 페널티가 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골프를 하게 되면 정도로 사는 법을 배운다.” 벤(Ben)의 신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프 룰과 골프의 정직성이다. 월드 시리즈 7차전 클로즈 플레이를 상상해 보아라. 먼지 구름 속에서 심판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주자는 먼지를 털면서 펄쩍 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세이프가 아니고, 아웃입니다. 먼저 태그가 되었어요.” 이렇게 골프가 다른 종목과는 다른 것이다.

동일한 기준

골프 룰은 내기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에게 경쟁자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또한 오랜 전통이다. 당신이 내기 골프를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룰 숙지 할 것을 권한다. 골프 룰을 준수하면 더욱 만족스런 라운드를 할 수 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

에티켓과 마찬가지로, 골프 룰은 투명하다. 룰대로 올바르게 경기를 진행할 때 편안함도 찾아오는 것이다. 룰은 해마다 계속 보강되고 있다. 골프라는 운동은 역경 없이는 매력적인 운동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소중하게 지켜져 온 골프의 진면목이다. 골프 룰은 우리가 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골프를 찬양하고, 룰을 준수하는 이들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룰 준수에 경의를 표하며, 심지어 룰 판정이 그들에게 불리할 게 작용할 지라도 그렇다.

골프 룰 북을 펼치면 에티켓 장점의 중요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룰 북 첫 장에 "코스 에티켓"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꼭 알아야 할 추천 룰은 다음과 같다. (공식적인 용어보다 이해하기 편하기를 바란다.) 업데이트 된 룰은 어느 골프장에서든 구할 수 있고, 룰 북이 작아서 골프백에 넣기 다니거나, 침대 옆 스탠드에 놓아두어도 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룰 북을 대신할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단지 자주 접하는 골프 룰들에 대한 소개 정도 일 뿐이다. 룰에 관해서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책이 바로 골프 규칙 (*Decisions Book*)이다. 다른 관련된 룰들은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다뤄지고 있다.

티잉그라운드

(비공식 용어로 티 박스라고 불리는) 티잉그라운드 위에서는 티 마크 뒤에서 두 클럽 이내에 볼을 놓고 쳐야 한다. 두 클럽의 거리를 측정 할 때는 어떤 클럽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플레이어의 다리는 마커 안쪽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볼의 위치는 무관하다.

플레이어가 자세를 잡았거나 연습 스윙을 할 때 볼이 티에서 우연히 떨어지면, 벌 타 없이 다시 놓을 수 있다. 볼이 페어웨이에 고작 40야드 앞으로 나갔을지라도, 그것이 의도적인 아닌 우발적인 것이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다시 시작해라. 그러나 만약 샷 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볼이 40야드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

골프 코스의 경계 구역 즉, 코스 내 모든 구역들은 하얀색 말뚝 또는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선 밖의 지역이 아웃 오브 바운드다.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 구역으로 떨어지면, 그 플레이어는 다시 샷 해야 한다.(이것을 스트로크와 거리라 부른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면 원래 샷 했던 곳으로 돌아가라. 스코어 계산은 원래 샷은 1타 -1벌타가 부가 되고 2타째- 현재 하는 샷이 3타째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골퍼들이 잠재적으로 위협하거나 민감한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골프 코스를 따라 서 있는 주춧돌들은 "OB" 말뚝으로 표시되어 있다. 연습장, 거리, 절벽, 목초지, 수영장 갑판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헛간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말뚝과 말뚝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 1인치 밖에 볼이 있으면, 그것은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티오프 한 후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 구역으로 들어가면, 잠시 옆으로 비켜 나와서 서라. 다른 플레이어 먼저 샷 하도록 한 후에 다시 샷 해라. 그럼 이제 당신의 그 볼은 3타째가 되는 것이다.

“물을 위반하여 벌 타를 받게 되어야 비로소 더 확실하고 뼈저리게 물을 배우게 된다.

-탐 왓슨의 『홀은 퍼팅의 합계 그 이상이다.』

분실구

물에 따르면, 물을 잃어버리면 골퍼는 원래 물을 쳤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과 똑같이 스코어를 계산한다. 원래 샷은 1타-1벌타가 부가 되어 2타째- 현재 샷은 3타째이다.

그러나 친선 도모를 위한 플레이어들은 시간 관계상 이러한 물을 항상 지키지는 않는다. 골퍼들은 종종 그 볼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물을 놓고 거기에서 플레이 한다. 숙련된 골퍼가 경기 진행상 골프 룰 위반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골프 룰에 관한 오해가 종종 생긴다. 초보 골퍼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골프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룰 위반을 하는 플레이어들은 (단, 친선도모 골프 라운드라는 걸 기억하라) “원래 이것은 룰 위반인데, 지금 진행이 느려서 편의상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공식 대회 경기 혹은 공인 핸디캡 획득을 위한 라운드라면 모든 물을 따라야 한다. 벌타는 감수해야 한다. 5분간 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물을 찾지 못 하였다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다른 물을 놓고 다시 플레이를 진행하라.

잠정구

볼을 잃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었다고 의심되면, 동반자 먼저 치게 한 다음, 잠정구¹⁶⁾ 플레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구는 벌타 없는 예외규칙으로 주어지는 멀리건과는 다르다.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선언해야 한다. “볼을 다시 쳐야 할 것 같다”라고 해도 안 된다. “나는 잠정구를 칠 것이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친 원구를 발견하였다면, 그 볼로 플레이해라. 잠정구는 주머니에 넣어두라. 원구를 잃어버렸다면, 잠정구로 치는데, 이때 3타째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코스 어디에서든 잠정구로 플레이 할 수 있다.

언플레이어블 라이

위터해저드 밖이면 어디라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클럽이나 손목 부상을 방지하거나 여러 번 샷 하기 보다는 1벌 타를 받고 홀 컵에서 가깝지 않은 곳으로 두 클럽 이내에 물을 옮겨 놓을 수 있다. 큰 거래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영리한 플레이가 될 수 있다. 특히, 몇 번의 샷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1. 좋지 않은 샷을 했던 원 위치로 가서 다른 물을 놓고 플레이 하라.

16) 잠정구(Provisional Ball): 물을 위터해저드 이외의 지역에서 분실하거나 OB가 날 염려가 있을 때 치는 볼

또는

2. 당신과 홀 깃대 사이에 볼이 놓인 그 지점을 유지하면서 라인선 상 뒤 쪽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뒤로 가라.

페널티는 1벌 타이다. 원래 친 샷은 1타, 1벌타가 부가 되어 2타, 현재 샷은 3타째가 된다.

구제

누군가 친 볼이 카트 도로위에 있거나, 소위 캐주얼 워터(비나 스프링클러로 인해 고여 있는 물)에 있거나, 개미탑, 스프링클러 헤드 위 또는 물 분수대, 벤치 등과 같은 인공 장애물로 방해받을 경우 종종 *무 벌타 드롭(Free Drop)*이라고 일컫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로는 아웃 오브 바운드 마커,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물로 간주하는데, 구제가 없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 우선, *구제받을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볼의 원 위치에서 홀 컵에서 가깝지 않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이며, 스윙이나 스탠스에 방해받지 않는 곳이다. 그 지점에서 한 클럽 이내에서 볼을 드롭 해라. 스프링클러 헤드, 카트 도로 등등으로 인해 스윙 스탠스를 제대로 취할 수 없을 때 이 룰이 적용된다. 서 있는 나무로 인해 방해받았다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인공 장애물로 인해 스윙이나 스탠스가 방해받을 때만 구제 받을 수 있다. 수리지¹⁷⁾(하얀 선으로 표기 됨)에서도 똑 같은 룰이 적용된다.

부정 행위

골프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쉽다. 스코어 카드에 고의적으로 6 대신 5를 적는 행위, 러프에 있는 볼의 라이¹⁸⁾를 개선하는 행위, 홀 컵에 좀 더 가깝게 볼을 마크하는 행위 등 수많은 부정행위가 있지만, 부정행위를 좀처럼 잡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좋은 골퍼도 많지만, 부정행위를 하는 골퍼들도 많다.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 참가자들은 골퍼의 부정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 책임을 진다.

누군가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상품화 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 가지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행위란 속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도한 행위이다.* 그것은 실수도, 사고도 오해도 아니다.

친선도모나 공식대회에 대한 차이점 또한 있어야 한다. 친선도모 경기나 공식 대회는 서로 다르다. 친선도모 라운드에서는 김미를 줄 수도 있고, 라이를 개선할 수도 있고,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 실제 대회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그 개인만 영향을 받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렇지 않다.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내기 골프 할 때에는 설령 USGA 룰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똑 같은 룰 하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공식 경기에서는 정직 또는 무지가 통하지 않는다. 룰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17) 수리지(Ground Under Repair): 임시로 정한,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내의 구역.

18) 라이(Lie): 볼이 놓인 상태나 위치. 또는 클럽의 샤프트와 헤드의 각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존재 할 뿐이다. 친목 도모 라운드에서는 속아 넘어가는 골퍼가 바로 속이는 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코어 8을 5로 적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라운드가 끝난 후 점심 내기나 맥주내기를 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인해 짜증나면, 그 사람과 라운드 하지 말고 다른 동반자를 찾아라. 어떤 골프장의 가장 인기 있는 플레이어 한 명은 친선도모 게임에서 매 홀이 끝난 후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고, “어떤 스코어를 원하세요?”라고 묻는다.

토너먼트 경기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은 그 경기가 이스트 사이드 포스섬 클럽 할로윈 인비테이셔널 또는 PGA 챔피언십이든 간에 경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누군가 룰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 사람과 언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9홀 끝나거나 18홀 끝난 후에 프로에게 신고하면 된다. 룰 위반한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플레이어는 자기의 실수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룰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당사자로 하여금 그 실수에 대한 진후 사정을 고려하여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너무 늦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 실격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볼로 플레이 했을 수도 있다. (골퍼가 스코어카드가 옳다고 일단 사인했다면, 룰 위반이 있을지언정 수정해도 이미 늦다. 여러 개의 유명한 토너먼트 대회가 스코어 잘못 기재로 불행하게도 실패를 했다.)

분쟁은 룰 판정으로 즉시 해결될 수 있거나 혹은 분쟁 당사자끼리 만족할 때까지 두 개의 볼로 플레이를 끝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위원회 즉, 프로는 나중에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다. 골프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정직은 편리하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골퍼는 반드시 약속을 잘 지킨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해도 초보 골퍼들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볼을 좀 더 좋은 위치에 갖다 놓는 행위 또는 다른 초보로서 배우는 약간의 룰 위반들은 허용이 되지만, 모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경기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초보 단계를 지나 골프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룰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권고한다. 룰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플레이 한다고 깨닫는 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수세기 동안 골프가 행해져 왔듯이, 모든 골퍼는 어려운 샷과 볼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쳐 냈을 때 오는 성취감을 만끽하는데, 기분이 정말 좋다. “당신이 룰대로 게임을 한다는 건 진정 올바른 품격 있는 신사의 징표이다,”라고 토미 아모어(Tommy Armour)는 표현했다. “어느 누구도 골프 하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속는 이가 속이는 이다.”

핵심 요약

· 공식 룰 또는 골프 규칙 사본은 어느 골프코스에서나 또는 미국 골프협회에서 구할 수 있다.

USGA

리버티 코너가

우편번호 708

과 힐스, 뉴저지 07931

(908)234-2300

[Http://www.usga.org](http://www.usga.org)

USGA(미국 골프 협회)는 작은 주머니 보관용 사이즈의 “ 주요 핵심 골프 룰” 책을 출판한다. 룰 북 보다 이해하기 더 쉽다. 또한 골퍼들이 룰 북을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잘 감상할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

· 분실구나 아웃 오브 바운드 볼(스코어 타수에 포함됨)은

원래 친 샷은 1타

벌 타로 인해 2타

현재 샷은 3타째가 된다.

그것이 바로 “스트로크와 거리”이다.

질문: 볼이 벙커에 있는 죽은 참 집게에 걸쳐져 있다. 벌 타 없이 공을 집을 수 있나요?

정답: 죽은 참 집게는 자연물이고 따라서, 루스 임페디먼트이고, 장애물이 아니다. 그 참 집게를 제거하는 것은 룰13-4항 위반이다.

룰23/6 죽은 참 집게(골프 규칙)



제 10 장 토너먼트 대회

“골프 라운드 하는 동안 불운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이 구식이고, 짜증스럽다고 느낄 것이며, 당신과 라운드 하는 것이 점점 불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H.J. 위검의 『골프 상식(1910)』

토너먼트 대회는 두 가지 종류인 스트로크와 매치 플레이가 있는데, 서로 혼용된 방법도 있다. (스트로크는 메달 플레이라고도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필드에서 가장 낮은 합계 스코어를 기록하기 위해 경쟁하는 방식이고, 매치플레이¹⁹⁾

는 테니스처럼, 엘리미네이션(Elimination)라운드 방식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프로 대회는 4라운드 스트로크 방식으로 치러진다. 72홀 라운드를 한 후 최저점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우승이 돌아간다.

자선을 위한 자연스런 수단인 골프대회는 스카치나 소다와 같은 음료회사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그런 행사는 친화적이고, 경쟁적인 환경과 인맥형성 기회와 훌륭한 대의가 겸비되어 있다. 일반 골퍼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골퍼들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핸디캡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한 조 편성이 이루어진다. 같이 시합을 하면 좋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조 편성에서 핸디캡이 높은 골퍼들은 언제나 환영받는 동반자이다. 또한, 그들은 분명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골퍼가 핸디캡이 없으면 하나의 핸디캡을 부여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유쾌한 환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진행 되지만, 기본적으로 스크램블(Scramble)이나 쉐블(Shamble) 방식 둘 중 하나이다.

스크램블. 보통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팀은 좋은 샷을 할 수 있도록 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이가 티에서 샷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샷을 선택한다. 플레이어들은 그들의 볼을 집어서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플레이를 계속 한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두 번째 샷을 하고 다시 가장 좋은 지점을 선택한다. 볼이 홀 컵으로 들어 갈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진행한다. 가끔, 플레이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각 팀의 멤버가 라운드 하는 동안 두 개의 드라이브 샷을 기부하도록 물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팀워크와 전략을 추가시켜 한 팀으로 하여금 한 명의 선수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쉐블. 스크램블 방식의 변형된 포맷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티 샷을 한다. 상기의 스크램블 방식처럼 가장 좋은 드라이브 샷을 선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

19) 매치 플레이(Match Play): 타수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긴 홀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 있다. 각 골퍼는 유리한 드라이브 샷 지점에 있는 자기의 볼을 갖고 경쟁하면서 그 홀을 끝마치는 것이다. 파나 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공을 집는다.

토너먼트 용어풀이

골프에는 수많은 경쟁 방식이 있다. 다음의 입문서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비즈니스 골프에서는 흥미롭고 신기하고 복잡한 내기를 한다. 모든 조직적인 이벤트에서는 대회 라운드 전에 대회 책임자가 만든 룰 종이를 각각의 카트에 붙여 놓는다. 그 룰 종이를 읽어보라. 로컬 룰에서부터 특정 홀에서의 카트 운영 방침 등 흥미로운 사항들이 항상 적혀 있다.

메달(또는 스트로크)플레이. 모든 타수를 계산한다. 각 골퍼는 자신의 볼로 플레이 한다. 실제로 친 타수를 합했을 때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경기 방식이다.

매치 플레이. 가장 오래된 경쟁 포맷이다. 각 홀마다 두 사람이 1:1로 경기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홀의 승자는 “윈 업”이라 하고, 그 홀에서 1타 차이든 5타 차이든 관계없이 그 홀에서만 승리 한 것이다. 그 매치는 그런 식으로 계속된다. 동점으로 비긴 홀 들을 “하브드(Halved)”라 한다. 매치는 한 명의 플레이어의 “업”된 홀 수가 남은 홀 수보다 많으면 그때 종료된다. 예를 들어, 매치를 4&3으로 이기고 있는 골퍼는 4홀을 이겼고, 남은 홀이 3 홀이라는 뜻이다.

베스트 볼. 두 명 또는 네 명을 위한 포맷인데, 이 방식은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볼을 갖고 플레이해서 가장 좋은 스코어 또는 두 개의 스코어를 기록한다.

스테이블포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방식으로 계산방법은 홀마다 정해져 있는 스코어와 비교해서 점수를 주어서 그 득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버디는 5점에 해당되고, 파는 3점, 보기는 1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아주 훌륭한 플레이어인 이글(파5에서 2언더 인 3타)인 경우 7점, 홀인원인 경우 9점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득점한 경기자가 우승자가 된다.

포 볼. 미국에서 포볼이란 4명의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갖고 플레이해서 자신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2명이 2명에 대항해서 플레이 하는 매치를 일컫는다. 한 홀에서 한 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팀이 상회할 수 없는 스코어를 기록하면, 동반자는 그 홀에서 홀 아웃 한다(중지한다).

포섬. 두 명으로 구성된 팀이 볼이 홀 컵 속으로 들어 갈 때까지 샷을 번갈아 하면서 다른 상대방 팀과 대결하는 방식이다. 종종 스카치 포섬이라 불리기도 하는

데, 라이더 컵, 워커 컵, 솔하임 컵, 커티스 컵과 같은 국제 경기 대회에서 행해지는 유서 깊은 오래된 방식이다.

그로스. 핸디캡으로 조정되기 전 기록한 실제 샷 스코어이다. 101타를 기록했으면, 그것이 당신의 그로스 스코어이다.

넷트. 라운드의 스코어에서 자기 핸디캡을 뺀 스코어이다. 핸디캡 14인 사람이 그로스 95타이면, 넷트 스코어는 81타가 된다.

스코틀랜드 동부해안에 자리 잡은 널리 알려진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의 옛날 유명한 그린 키피어 올드 탐 모리스는 근처 교회 마당에 평온하게 묻혀 있다. 경쟁이 있는 대회 경기라면, 그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을 상기 해 볼 가치가 있다. “승리에 겸손하고, 패배에 관대 하라”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위대한 골퍼, 챔피언이란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표현해 준다.

주목 받는 당신

프로 토너먼트 대회전에 스폰서를 위한 흥미진진한 기금 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토너먼트 내에서 또 하나의 토너먼트가 열린다. 투어 프로 한 명과 몇 명의 아마추어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룬다. 보통,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암대회**는 훌륭한 프로 선수와 함께 골프장에서 의미 있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프로암대회**로 인해서 최근 에티켓의 변화가 생겼는데, 소위 “당신의 파트너로서 파”이다. 능력 플레이는 프로골프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특히, 프로-암 대회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이 “넷트 파”스코어를 하게 되면 바로 불을 잡고 그만두도록 요청 받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팀을 도울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동반자들의 불들이 전부 페어웨이에 잘 안착했고, 당신의 티 샷만이 아웃 오브 바운드에 들어가면, 다시 티 샷을 하지 마라. 이와 같은 사소한 일들이 경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경기위원들은 제안한다.

프로선수들을 보면서

골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하다. 프로골프는 특히 갤러리들로 하여금 골퍼 선수들이 플레이 하는데 아주 가깝게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단지 로프만이 선수들과 팬들을 분리시킬 뿐이다. 유서 깊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의 후원자들로 알려진 갤러리들은 골퍼들이 코스에서 플레이 할 때, 갤러리들이 행동하고 움직임으로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마스터스대회가 있었던 어느 해 갤러리들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당파심으로 특정 선수만을 응원하였는데, 이로 인해 토너먼트 단골 우승자인 바비 존슨을 곤란에 빠뜨렸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시간을 초월한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남겼으며, 토너먼트 시트와 티켓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 있다.

골프에서 에티켓 문화와 예절은 플레이를 관장하는 규칙만큼 똑같이 중요

하다. 어려운 샷을 성공했을 때 갤러리들이 똑같이 환호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만, 경쟁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특정 선수나 자기편 선수에 대한 과도한 응원도 적절하지 못하다.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통한 경우는 어떤 선수가 실책을 하거나 불행해졌을 때 박수치거나 환호하는 경우이다. 마스터스대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갤러리들이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지성 있고, 배려가 있는 관중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싶다면, 그런 매너 없는 일들을 완전히 배척해야 한다.

갤러리에 대한 제안

당신이 선수를 잘 알고 있더라도 코스에서는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지 마라. 그 선수가 플레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라. 절대로 뛰지 말고 걸어 다녀라. 선수가 샷 하려고 준비 할 때는 조용히 하고 움직이지 마라. 다른 갤러리에게도 배려하라. 골프는 신사 운동이다.

갤러리들의 행동은 계속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타이거 우즈는 2002년 U.S 오픈에 대해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서로 존중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골프가 다른 여타 종목과는 차별화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니어 골프

PGA 투어의 위대한 챔피언 탐 카이트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이트는 고등학교 골프 팀 선수이다. 그는 상급 수준의 주니어 골프대회에 참가해서 느낀 점들을 기꺼이 이야기 해 주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지만, 미래의 유망주, 학부모와 코치들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학부모들과 더불어 단체스포츠에 나타나는 불행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골프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실력을 발휘하도록 부담을 주는 부모들도 있고, 모든 편익을 추구하며 한계를 뛰어 넘도록 밀어붙이는 부모들도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조언을 하려고 하며, 특정 클럽으로 샷 하도록 권유하기도 하며, 스윙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로 인해 오해를 사기도 하고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보통 학부모들은 골프 룰을 잘 모른다. 그리하여 소수만이 룰 판단에 관여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시합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니어 프로그램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대부분의 학부모, 코치와 스폰서들은 평생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스포츠 즉, 골프 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즐기는 헌신적이고, 인색하지 않고, 사심 없는 개인들이다.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베리존(Verizon)

마이론 넬슨 클래식(BRYON NELSON Classic)

2002년 5월 1일

친애하는 골드 프로-암 대회 참가자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프로암(Pro-Ams)대회 경기 속도에 관한 PGA Tour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프로암대회를 즐기고 나아가서 자선 행사의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더딘 경기 속도 문제를 염려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진행 속도에 관한 문제는 투어(Tour)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토너먼트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개최되는 프로암대회뿐만 아니라 투어 플레이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동봉된 기사를 확인바랍니다.) PGA Tour 협회에서는 투어 이벤트 담당자들에게 프로암대회를 일반 투어 라운드보다 한 시간 반 이상 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4시간 30분 라운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심각한 페널티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토너먼트 대회 시 프로암대회 장소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경기진행 속도는 어느 골프 라운드에서도 필요 합니다. 골프 에티켓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샷을 할 준비를 해 주세요. - 평상시 샷 루틴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클럽을 미리 챙기고 공략 방법을 미리 세우기를 바랍니다.
2. 앞 팀과의 간격 유지- 앞에 있는 팀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플레이하세요.
3. 해당 홀에서 어려우면 다음 홀에서 기대를 갖으세요. - 프로암대회에서 파는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해당 홀에서 스코어가 안 좋으면 볼을 집어서 홀 아웃하세요. 이것은 팀과 팀 간의 경쟁경기라는 거 명심하세요.
4. 볼 찾으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 볼을 잃어 버렸다면 놔두고 다른 볼로 플레이를 진행하세요. 볼을 넉넉히 준비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하세요.

베리존 마이론 넬슨 클래식은 1973년 이래로 이 대회를 주최하면서 모금된 64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명실상부한 투어 리더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로암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판매기술 클럽 청소년 가족 센터(Salesmanship Club Youth & Family Center)가 매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프로암대회가 투어의 대회 기준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회 취소를 뜻하며 결국 기금 악화로 인해 달라스 지역에 있는 3천5백 명 넘는 불우아동과 가족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 속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걸어 다니며 진행을 도와주는 마샬들과 볼의 낙하를 확인해 주는 포어 캐디들 등 우리 코스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은 코스에 상주하면서 당신들이 경기 진행 시간 목표인 4시간 30분에 라운드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경기 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이 당신의 프로암 대회 참여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6일 월요일 예정인 추첨행사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달라스 아담스 마크 호텔(400 N. 올리브 가)내 컨벤션 센터로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테일파티는 6시에 시작되며, 추첨행사는 오후 7시에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프로암대회 행사가 훌륭하게 마무리 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랭크 스윙글(Frank Swingle)

대회위원장

www.sedallas.org ♥ www.byronnelson.pagtour.com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은 “방해가 되니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데이빗은 말했다. 자녀들이 몇 개의 룰과 더불어 골프게임을 배울 때 에티켓도 가르쳐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다. 12살짜리 꼬마 소녀가 U.S 오픈에 기적적으로 출전 자격을 땀을 때 어느 누구도 그녀의 실력이나 투지를 의심치 않았다. 유일하게 비판을 받은 것은 에티켓 없는 그녀의 맹목적인 스포츠였다. 그녀의 골프는 원숙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매너는 그리 성숙되지 않았다.

경험의 소리

다음은 어느 한 골프장 게시판에 올라 온 텍사스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감정은 일반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호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익명의 저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지금은 그 감정이 다 풀렸기를 바란다.

나의 선택은 아니지만, 당신은 나의 라운드 동반자가 되었네요. 아마 추첨제로 인해 당신을 만난 것 같네요. 어쩌면 추첨보다 더 나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골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퍼팅 할 때 천천히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때려서 넣으라고 하지 마세요.

쳐 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 조언이 필요하면, 요청 할게요. 그때까지는 제발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웬블, 스크램블, 프로암대회에서는 일반 골퍼뿐만 아니라 숙련된 골퍼도 참가할 여지가 있다.

“당신 앞쪽에 홀이 비어 있다면, 코스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당신을 좇아 오는 매치가 플레이 하려고 기다린다면, 사인을 보내 먼저 플레이 하도록 하라. 분실구²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골프 페널티와 에티켓(1994)



투르 드 프랑스 자전거 대회 통산 5회 챔피언 조차도 에티켓을 배워야 한다.

20) 분실구(Lost Ball): 분실구는 1벌타가 되고 원위치로 가서 다시 치는데, 그 볼은 3타째가 된다.

제 11 장 비즈니스 골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골프와 같이 매우 화를 유발시키는 취미에 대해 더 민감하다. 목사처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관대히 보아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

-헨리 롱허스트의 『골프 시작하는 법』

미국에서 가장 큰 벤처자본 회사 중 한 회사의 파트너인 조 아라고나(Joe Aragona)는 우연히도 골프를 치는 사람이다. 조는 골프를 “지속적인 거래론”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항상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다. “당신은 항상 다시 라운드를 하고,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일부분이다.” 에티켓은 꾸미는 게 아니다. “사무실에서든 골프장에서든 간에 당신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당혹해 하거나 불편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말한다.

조의 단골 골프 동반자중 한 사람인 소프트웨어 전 CEO 러스 카카미시(Russ Caccamisi)씨에 따르면, 고객과 함께 하는 골프는 당신 친구들과의 주말 라운드 할 때 보다 “세심함”이 요구된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왜 거기 골프장에 있는지를 기억하라, “당신이 영업상의 목적을 위해서 파트너와 함께 골프 라운드를 나갔다면 영업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어느 한 회사간부의 단축번호를 확인해 보면 골프와 비즈니스가 밀접하게 병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가족, 증권 브로커, 의사, 변호사 그리고 골프 친구이다. 골프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 타인과 접촉을 할 기회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이 타인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 4시간 동안 라운드 하면서 함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성격 심지어 회사의 성격, 문화, 태도 도덕성까지 알게 된다.

쉐 오일 사장, 회장 및 CEO 스티븐 L. 밀러(Steven L. Miller)는 PGA 투어 쉐 휴스턴 오픈대회 기간 동안 골프의 기업적 역할에 대해 이 책 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 골프 라운드 하면서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킨 적이 있나요?

밀러: 물론이죠. 골프장은 라운드 후 또는 라운드 바로 전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며 사업 거래를 했던 곳으로 아마도 가장 자주 갔었던 장소입니다. 어려운 협상을 할 때는 공식적인 환경보다는 항상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걸 알게 되며, 골프장에서 라운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사람들과 일단 몇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그들을 잘 알게 되는데, 골프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해 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들과 함께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려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것이 바로 골프가 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 골프를 맨 끝 부분에 넣었다. 왜냐하면, 친목도모나 사교골프에서 배운 에티켓은 당신이 전 세계에 있는 고객, 팀 멤버들, 상사, 또는 장래의 고용주들과의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게임의 관습을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결실 중 하나이다 그것들은 문화적, 세대간, 지리적인 경계를 초월한다. 요점은 의미 있는 업무관계를 형성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골프는 사내 수련회나 일주일간 행하는 숲속 캠핑이나 또는 로프 장애물코스에서 받는 고통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신뢰성 있는 누군가와 사업을 하는 것은 그의 상품이나 투자에 대한 더 큰 믿음을 불어 넣지 않을 수 없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골프가 고객을 찾고 거래를 시작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곧 인식하게 된다. 프로페셔널 여성들은 골프를 단지 친목도모(그들이 스크램블 파트너로 얼마나 환영받는지 알게 되면)의 수단으로 여겼었다. 하지만, 골프가 다양한 소스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보낸 후 늦게 저녁을 먹는 것보다 골프가 훨씬 바람직하다.

아젠다 세팅

게스트는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한다. 티오프 시간, 걷기 가능여부 또는 카트 운행, 식사 등은 라운드 전 또는 후에 가능한지? 골프코스 이외에 식당에서는 다른 복장 규정이 있는지? 당신이 게스트 입장으로 역할을 바꾸어 보면,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미리 펼쳐 보여 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복장 규정부터 경기 방식, 동반자 헨디캡, 선물용 셔츠 사이즈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 일부 골프장들은 골프화와 바지에 대한 착용 규정을 조금 완화 시켰다. 어떤 클럽들은 변함없이 그 규정들을 고수할 것이다. 다른 골프장들은 양복 정장에 넥타이를 매어야 하며, 식당에서는 모자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정보가 없어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게스트는 골프장 프로숍에 전화해서 물어보아라. (캐디와 함께 걸으면서 라운드 하는 플레이어들은 좀 더 가볍고 헨들링 하기 쉬운 골프백이 편하다.) 결과가 어찌되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수로 이미지가 손상되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골프장마다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가 계산 하겠습니다.

초대를 한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호스트가 계산을 한다.

호스트가 할 일

- 항상 그린피, 캐디피, 카트피와 식음료 값을 계산하라. 캐디에게 주는 팁은 나눠서 낼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호스트가 주최한 것이기 때문이다.
- 라운드 하기 전 사전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라. 돌발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
- 라운드 하는 팀의 골프 실력 및 내기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팀의 분위기 등을 조정해라. 골프를 자주 안 하는 골퍼와 라운드 시 룰대로

경기를 진행하지 마라. 호스트는 동료애와 상업 정신과 경기진행 속도를 고려하여 마음으로 그 라운드의 스코어를 공식 핸디캡 산정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하에 가끔씩 풋 윌지(볼을 집어 올리거나 치기 좋은 곳으로 옮겨 놓는 것)행위를 눈감아 준다.

- 라운드의 중요 정도, 스케줄, 21)멀리건(Mulligan)에서 김미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세팅 한다.
- 실력이 부족한 플레이어들을 배려하여 과도한 부담이 덜어주기 위해 적절한 티를 고르라.
- 만약 필요하다면 팀과 내기를 제안해라. (계속 읽어 보기로 하자)
-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하는 게 적당한지 살펴라.

게스트가 할 일

- 내 몫을 내겠다고 제안하라. 대부분 호스트가 계산 하려고 하겠지만, 감사해 하고, 당연시 생각하지 마라.
- 식음료 카트가 오면, 게스트가 계산한다는 전제하에 호스트에게 권유해라.
- 시간에 늦지 말고, 적절한 복장을 하고, 완벽한 프로페셔널이 되어라.
- 라운드의 진지함에 관한 한 연습장부터 끝날 때까지 호스트의 리드에 맞춰 가라.
- 플레이를 고의적으로 낮추거나 저주면서 호스트를 후원해 주지 마라.
- 핸드폰을 차에 놔두거나 진동모드로 해라. 프로숍에서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해 알려줄 수 있고,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 해 줄 수 있다.
- 김미(컨시드)나 멀리건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라.
- 적절한 에티켓을 준수하고, 특히, 경기 속도 시간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안녕에 신경 쓰면서 라운드 해라.
- 라운드의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하지 마라. 이것은 비즈니스 미팅이고, 비즈니스 결과가 나와야 한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 지에 관한 마지막 침언을 하자면 양측이 계산을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어색한 순간이 생길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문제는 해결 된다. 둘 중 한 사람이 계산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계산을 하지 않아, 직원이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그린피 지불을 요청해서 그때서야 상황이 밝혀지는 경우이다.

21) 멀리건(Mulligan): 이전 시도의 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두 번째 시도

골프장에 예의상 늦게 도착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게스트들은 마치 약속이나 면접 볼 때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 가능한 한 일찍 도착하라. 켈의 스티븐 밀러(Steven Miller)가 제안한 것처럼, 라운드 전과 후에 소중한 의미 있는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라. 많은 골퍼들은 골프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일상적인 일로 골프 라운드를 망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워밍업

몇 개의 볼을 먼저 쳐 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라운드를 하기 위해 사전에 누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골프장에 만약 연습장이 없어서 연습 스윙으로 상대의 실력을 파악 할 수 없으면, 말하기가 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첫 번째 티에서 좋은 출발을 위해 멀리 건 샷을 통해 서로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골프장에 사람이 꼭 차 있을 때는 *절대* 제안하지도 말고, *떨리건* 샷을 하지 마라. 호스트가 적어도 오늘 만큼은 라운드에 진지하다면, 당신도 그 분위기에 따라 가야 한다. 만약 오늘 걸으면서 이야기 하는 그런 라운드가 아니라면, 마치 U.S 오픈 최종라운드처럼 심각한 분위기로 라운드 하지 마라. 호스트의 신호에 맞춰라. 오늘 하는 골퍼는 공통점을 쌓아 가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란 것을 기억하라. 워밍업 하는 동안 약간의 융통성(말장난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을 부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편의상, 당신의 연습 습관을 바꿔보고, 호스트 뒤에 떨어져 있어라. 볼을 치기 전에 퍼트를 먼저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연습장으로 가라. 스트레칭 하고 퍼트 연습 몇 번 하는 것도 아주 괜찮다.

첫 번째 티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 누가 함께 카트에 타고 누가 운전 할 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9홀이 끝나면 바꿀 수도 있다. 첫 번째 티는 로컬룰²²⁾ 또는 *윈터 룰*을 논의하는 곳이기도 하다. *윈터룰(Winter Rule)*이란 페어웨이에서 모든 플레이어가 라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또는 있는 그대로 샷을 해야 하는 지 즉,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호스트로서 상급 플레이어들은 레벨이 더 낮은 게스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앞의 티로 이동해서 플레이해야 한다. 실력이 낮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왜 불편하게 만드는가? 백(Back)티에서 플레이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좋은 드라이버로 페어웨이에도 공을 못 날리는 사람과 골프 매치를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큰 그림을 그리며 행동해라. 골프 코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곡 즉, 도입부일 뿐이다. 호스트의 역할은 게스트를 챙기는 일이고, 그 말은 앞 티에서 플레이 하는 것이다. 상상컨대, 플레이 하는 팀은 실력 수준에 따라 갈릴 수가 있다. 각각의 카트에서 한 명의 플레이어는 화이트 티에서 플레이 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블랙 티에서 할 수 있다. 요점은 쉽고 가볍게 하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쟁적인 골프시합을 하면 분명히 잘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22) 로컬룰(Local Rule): 골프장의 특수조건 때문에 그 코스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을 말한다.

럭 플레이 한다. 신중히 진행해 나아가라. 만약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가 1달러짜리 내기 골프를 한다면, 활기 있는 매치를 하는데 있어서 큰 판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몇 개의 저술들이 입증하듯이 골프의 오랜 전통 중 하나로 골퍼들은 “작은 무언가”를 위해서 종종 골프를 한다.

- 4인 플레이 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넣어서 라운드 하려 하지마라. (골프하는 날 사전에 체크인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크타임이 아닌 이상(주말 아침), 2인 또는 3인 플레이는 괜찮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같이 라운드 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색한 일이다.

내기

가장 흔한 내기는 나쏘이다. 그것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9홀에 내기, 백 9홀 스코어에 대한 내기, 총 합계스코어에 대한 내기이다. 내기가 \$5 나쏘 라면, 첫 9홀 승자에 대한 \$5, 백9홀에 \$5, 합계 스코어에 대한 \$5. 내기한 사람이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이다. 그리고 *프레스(Press)*가 있다. 한 팀이 먼저 앞서서 홀 아웃 한다면, 새로운 내기로 빌린 쪽이 지게 되면 빚이 2배가 되고, 이기면 빚이 없어지는 내기이다. 당신의 팀이 2홀을 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프레스 했고, 다음 홀을 이겼다. 이제 당신은 비겼다. 그 매치는 동점이 되었다. 승리하게 된다면 영광일 뿐 아니라 내기 돈을 갖는다. 무엇을 합의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룰에 관해서 동등한 입장이야 한다.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성격이 드러난다. 25센트 또는 1,000달러이든 간에, 달리 표현해 보면 내기 돈을 다 갚는 사람은 당신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기 돈을 다 갚아라*.

내기골프는 복잡하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보편적인 내기는, *트래쉬* 또는 *정크*이다.

그리니즈 - 파3홀에서 티 샷을 그린에 가장 가깝게 붙인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주는 것

샌디스 - 벙커에서 원 샷, 원 퍼팅으로 나오고 홀 컵에 넣은 자에 대한 보너스

바키스 - 나무를 맞혀도 파를 기록할 때

만약 나쏘가 \$5 이라면, 위의 내기들은 액수가 적은 편이다. \$1 내기라고 하자. 그러면 더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할 수 있다. *스킨스(Skins)*란 골퍼가 한 홀에서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상위 두 사람이 동점을 이루면, 모두가 동점인 것으로 처리되고,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해당 홀에서 승리를 할 때까지 내기 돈은 계속 이어 진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홀에서는 누군가가 퍼팅을 성공시켜 득점을 올리도록 응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홀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이기기 위해 경쟁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울프*, 즉, 플레이어들이 그들의 티 샷을 기준으로 각 홀에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있고, *빙글*, *뱅글*, *봉글*, 즉,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그린에 다다르면(빙글) 1점, 볼을 홀 컵에 가장 가깝게 붙인 사람이 1점(뱅글), 홀 컵에 가장 먼저 넣은 사람이 1점(봉

글)이다. 게임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으므로, 내기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인기 있는 내기를 배워라.

작은 뭔가를 위해서 플레이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거금의 게임은 골프 전설의 근원이 되어왔다. 가난하게 자라서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된 리 트레비노(Lee Trevino)에 따르면, 당신이 주머니에 10센트 밖에 없을 때 \$10 위한 라운드라는 큰 부담이 있다. 라고 언급했고, 그는 그의 훌륭한 저서 더그 샌더스(Doug Sander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규정해 놓았다.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내기를 하지 마라.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기 골프를 하라.

절망 상태에 있는 동반자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괴롭히거나, 조롱하지 마라.

라운드 후 당신의 몫은 바로 계산해서 주라.

당신이 내기골프에서 이긴다면, 자비를 베풀어라.

여기에 덧붙여 러스 카카미시(Russ Caccamissi)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그냥 봐둬라. 내기는 심기를 거슬리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라운드 중에도 악감정을 유발하는 칼날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골프 회동을 이끌어 내는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당신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면, **내기 하지 마라.** 내기란 것은 전형적인 비즈니스 라운드에 경쟁심과 중압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결국, 라운드의 목적인 비즈니스를 망각하게 만든다. 당신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친목도모의 울프나 스킨스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동반자의 돈을 골프에 끌어들여, 반목을 불러일으키고(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당신이 진정 원하는 파트너의 돈 즉, 그들의 비즈니스 자금을 획득하는데 위태로운 상태로 만들어 비즈니스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명심하라.

고작 2달러를 벌려고 2백만 달러 거래에 모험을 걸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업무 이야기는 언제 하나?

업무 이야기는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낼 때 하는 게 좋다.* 다음 사항을 염두 하여 두어라. 경기 속도를 지키면서 대화를 해야 하고, 타인이 샷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카트가 다가와서 멈추고, 플레이어가 클럽을 선택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기업 합병과 같은 업무에 대한 정세를 타진할 타이밍이 아니다. 앞쪽 그룹이 그린을 비웠거나 20 피트 짜리 긴 거리 퍼팅을 하기 바로 전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이야기를 꺼내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유대감을 형성 할 시간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린에서 빠져 나와 카트 안에서, 카트 도로에서 턴 할 때, 볼을 찾을 때 등등이다. 또한, 19번 홀 즉, 라운드 후에는 휴식 시간의 기회가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특히, 그런 사람은 골프코스에서 함께 라운드 하며 어울리면 재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지? 진정 중요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계속 플레이를 진행 하라.

코스를 잘 아는 골퍼는 통찰력이 뛰어나다. 예를 들어, 홀 컵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세히 알려 줄 필요는 없다.

샷 퍼팅에 컨시드를 주는 것은 또한 경기시간을 줄 일 수 있고, 초보 골퍼에게는 이런 것이 위안이 된다. 그러나 강경한 골퍼들은 컨시드를 주려 하면 기분 나빠 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퍼팅해서 홀 아웃 한다. 모든 홀마다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또는 웨지(Wedge)등 많은 시간이 걸리면, 다른 골퍼들은 페어웨이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연습스윙을 다시 하게 되고, 결국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 김미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해야 한다. 컨시드는 1타로 계산한다. 컨시드 받은 4번째 퍼트는 5타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스코어가 어떻게 하는지 빨리 파악해서 적절한 상황에 맞춰 "나이스 파", 또는 "굿 파이프"라고 재빨리 외쳐 주어라. 그것은 골프 코스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름같이 감싸고 있는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훌륭한 배려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디봇 자국을 믹스 한 스푼으로 채워주거나, 다른 사람의 찾기 힘든 볼을 반사적으로 찾으려 가 준다면, 당신은 자상한 매너를 가졌고, 경쟁을 뛰어넘어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높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재량

골프란 운동은 동반자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면접과 같은 것이다. 골퍼는 어떤 한 사람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 지를 보여준다. 코스 라운드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보여준 배려, 장비, 깃대를 교체하는 홀 컵 주위의 민감한 구역에서의 처리 방식, 볼을 못 쳤을 때의 보여준 반응 등은 향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진로를 결정해 준다. 스윙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첫 인상은 항상 중요하며, 골프는 무수한 도전과 통찰력 그리고 희극적인 기분전환 요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비속적인 언어 사용에 관해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고 싶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마도, 골프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는 동안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오래 사귄 옛 친구들인 경우는 다르다.

“만약 저속한 말이 샷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게임은 훨씬 더 잘 될 텐데.”

-호레이스 허친슨의 『골프: 세기말의 보물』

벗어나기

다채로운 이력의 U.S 오픈 챔피언 타미 볼트에 따르면, 만약 골프채를 던져 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클럽들을 뒤로 던져서 다시 가지러 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던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마도 이 말은 경기 시간 절약을 위한 팁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침울한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성질은 억누르는 것이 낫다.

한번은 바바라의 레슨시간에 스윙을 몇 번만 하고 난 후에 제멋대로 하는 수강생이 있었다. “음...아마도 우린 실제 연습보다는 심리적 레슨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녀는 제안 했다.

“라운드 하면서 열이 받아 감정 폭발로 인해 얻은 만족감은 - 당신은 골프 백 안에 있는 모든 클럽들을 부러뜨렸을 수도 있고, 5개 국어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린에서 발 사이즈만 한 디봇 자국을 남겨 버렸을 수도 있지만 - 잠깐 동안일 뿐이고, 쓸쓸하고 달콤했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가슴깊이 남는 뼈아픈 죄책감이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신성한 룰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작가 로렌 세인트 존이 말했다.

19번째 홀

라운드가 끝나면 명함을 서로 교환하고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지나간 라운드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만약 당신의 호스트가 술, 맥주 등 어떤 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전례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비즈니스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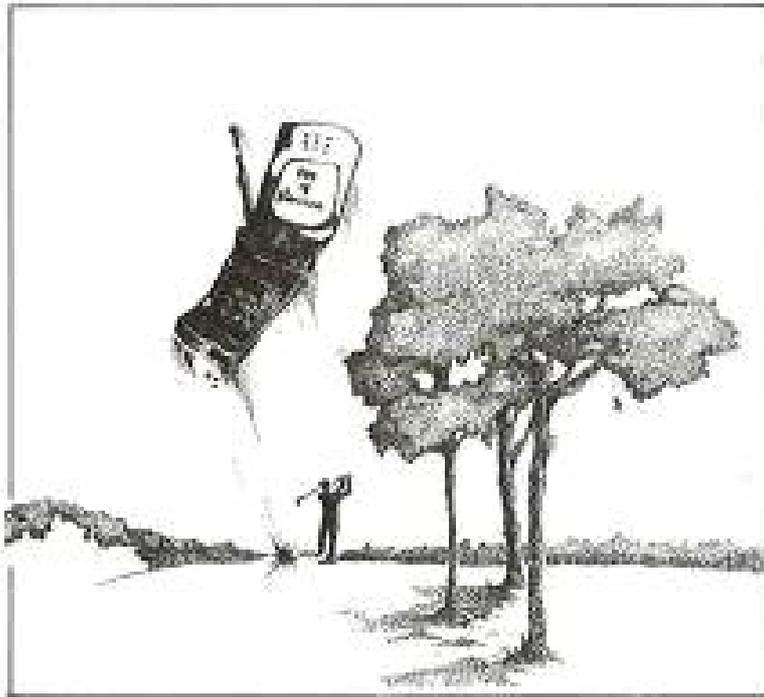
비즈니스 토너먼트

많은 골프 클럽들은 회원과 게스트 간의 이벤트를 후원한다. 이 이벤트들은 항상 경쟁자들의 상대적인 능력에 근거한 경기자 능력별 그룹 핸디캡 토너먼트 대회들이다. 그들은 종종 좋은 고객들에게 보상하거나 또는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프리미엄으로 종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때그때 핸디캡이 변동하는 골퍼들이 있다. 이런 경우, 회원들은 게스트의 핸디캡에 동의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죄의식으로 고통을 겪거나 사기꾼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핸드폰 에피소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다. 당신은 핸드폰, 또는 셀러드 포크에 대한 에티켓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투르 드 프랑스 자전거 대회 챔피언 랜스 암스트롱은 유감스럽게 교훈을 얻은 적이 있다. 랜스 암스트롱

재단(암을 갖고 있는, 겪고 있는, 초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의 회장 랜스와 전무이사인 가비는 권위 있는 로스앤젤레스 컨트리클럽의 노스 코스에서 골프 라운드를 하고 있었다. 비록 정중히 요청을 받기 했지만, 처음 하는 라운드에서 캐디로부터 핸드폰을 라커룸에 맡기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떠올려 보아라.



핸드폰을 230야드(210m)날릴 수 있다고 허풍떠는 골퍼를 조심하라. 진동모드로 하고, 비상시에만 사용해라.

자선 행사

골프의 가치는 기금 모금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선 기업은 거의 없다. 골프회동은 쌍방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은 속담으로 표현될 정도로 유명하다. 추가적으로 인적 정보망 형성의 길을 트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서를 보내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일을 하며 사무실을 벗어나는 기회이다. 그 행사들은 종종 스크램블 방식으로 한다. 멀리건을 사용하고, 퍼팅을 추가하려면 기부금을 더 내야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고독한 스포츠인 골프는 이제 팀 노력에 의해 행해지는 스포츠가 되었다. 스크램블 방식에서 경기 속도에 따라 고통스러울 수 있다. 즐거운 라운드 경험을 하려면 진행속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습 스윙 횟수를 줄이고, 추가 퍼팅을 하지 않고, 분실구를 찾으러 가지 않는 것이 그 라운드 경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스크램블 방식에서는 좀 더 미숙한 골퍼들이 가끔씩 좋은 샷을 한다면,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대접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팀끼리의 경쟁 하에서 초

보 골퍼들에게 많은 여분의 샷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그들이 파 혹은 버디를 했을 때 그 팀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기면 상품이 있지만, 모두 재미를 위한 것이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 혼자서 플레이 할 경우 골퍼의 바로 뒤에 서면 에티켓 위반이며, 특히, 그린위에서 바로 뒤에 서면 골퍼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스크램블 방식에서는 퍼팅하는 팀 동료의 뒤에 서는 것은 일반적이다.

자선 골프 행사의 규모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다. 쉘 휴스턴 오픈인 경우 매년 4천명의 자원봉사자를 끌어 모으며 계속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지역 자선기금을 마련했다. 스티븐 밀러에 따르면 “당신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단지 [호감 가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골프 플레이어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지역단체 행사와 연계해서 자선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쉘 휴스턴 오픈 대회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회의 행사입니다.”

질문: 쉘 휴스턴 오픈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 당신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스티븐 밀러(Steven Miller): 우리의 청사진이라 일컫는 사업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들 중 하나는 최고의 기업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지역사회 또한 국가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요점을 말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쩌다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 실수는 웃고 넘겨 버린다. 오랜 골프 친구들과의 일주일에 한번 있는 정기적인 라운드를 할 때 서로의 핸드폰이 울리는 것은 괜찮다. 라운드가 끝난 후 맥주 값을 계산하기 위해 서로 각출한다.

호레이스 허친슨이 여러 번 언급했듯이, 골퍼들은 그들의 불운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수 년 전에 그는 그의 저술에서 “자기 자신을 대체로 대단히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골퍼를 만나본 기억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침묵하면서 혼자 끙끙대는 것은 골프의 강점이 아니다. 실버 스캇과 타미 아모어는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했다. “당신의 골프 라운드가 어땠는지 말해 주세요,”라고 물으면 그는 “쓰리 퍼팅 했던 홀부터 시작하시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윙드 풋 컨트리클럽(Winged Foot Country Club)에서 아머의 한 때 부 총지배인으로 일했던 PGA 챔피언 데이브 마(Dave Marr)는 그의 마음대로 이였지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회원들을 탈퇴시켰다. 그는 플레이어가 첫 번째 홀과 그 다음 홀에서 일어난 샷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다. 그 골퍼가 계속해서 그 이

야기들을 하려 하자, 마(Marr)는 말을 끊고 물었다. “18홀 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만약 그러실 거라면, 카트가 필요하겠네요.”

언젠가 바비 존스는 그의 와이프 메리가 동반자 골퍼에게 그 날 아침에 조(Joe)가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 보는 것을 부드럽게 책망했다. 그 동반자 골퍼가 대답도 하기 전에 존스가 불쑥 끼어들어 말하기를, “여보! 조(Joe)가 잘 쳤더라면, 아마 벌써 이야기를 했을 거야.” 진실로 맞는 이야기다. 아마도, 하비 페닉(Harvey Penick)이 항상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잘 친 샷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세요.” 아머(Armour)나 마(Marr)처럼, 그도 요즘만 간단히 듣기를 원했다.

좋은 클럽

장비가 좋은 골퍼를 만드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명한 브랜드 제조사에서 만든 골프세트 클럽들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좋은 인상을 남긴다.

잡낭을 싸면서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여행을 자주 다니는 똑똑한 비즈니스 골퍼이다. 그는 미팅이 끝나기 전에 골프 라운드에 초대 받기를 희망하여 그에 맞는 유용한 가방을 갖고 다닌다. 그는 골프화, 볼 마커, 디봇 수리기, 골프볼, 명함, 양말 몇 켤레, 골프화 가방에 몇 개의 티를 뺑뺑이 채워 넣는다. 왜냐 하면, 골프 클럽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만, 깨끗한 양말 몇 켤레와 행운의 볼 마커, 좋은 볼들은 출장 중에는 바로 바로 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다. 골프 라운드 기회가 생기면, 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핵심 요약

- 골프는 어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인격을 말해주는 운동이다. 인내심, 성질, 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역경, 고난, 도전에 대한 그의 대처법 등 등 모든 것을 보여 준다. 당신은 골프장에서 고의적이고, 심지어 반항적이고, 부주의하고, 분별없이 라운드 하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나? 규정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라. 일찍 도착하고 준비 하라.
- 전형적인 컨트리클럽의 회원-게스트 이벤트 행사시에 라운드 할 때는 확정된 핸디캡이 필요하다.
- 상대방의 샷에 바로 칭찬하지 말고, 실제로 좋은 샷 인지를 확인하라.
- 골프 라운드의 진짜 목적을 잊지 마라. 당신은 비즈니스 골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고작 2달러 따려고 2백만 달러의 사업에 모험을 걸 것인가?
- 클라이언트가 먼저 사업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꺼낼 때 그때 사업 이야기를 해라. 그가 막 플레이 할 때 이야기를 꺼내서도 안 되고, 카트에서 내려서 샷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할 때 해서도 안 된다.

- 당신이 게임 방식을 선택한다면, 내기는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기를 작게 하라. 당신 몫은 지불해라.
- 호스트로서 당신 게스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신경 써라. 적절한 티를 선택하고, 밝게 하고, 재미있게 해라. 조 편성 등 사전에 세부적인 것들을 미리 챙겨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4인 플레이에 초대해서 함께 라운드 하지 마라.
- 게스트로서, 라운드 비용 배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 들여라. 호스트의 리드를 따라 가라. 호스트가 라운드 분위기, 연습장에서부터 내기 라운드의 정도, 라운드 분위기 등을 세팅 하도록 놔둬라. 핸드폰은 놔두고 가라. 김미를 감사하게 받아라.
- 홀이 재미없게 되었을 때는 볼을 집어 올려라.
- 간단한 예의를 지켜라 - 상대방 볼 찾을 때 도와주고, 디봇을 채워주고, 홀 깃대를 들어주고, 그린 주위에 남겨진 클럽들을 챙겨주고, 앞 팀에 있는 그룹과 진행 보조를 맞춰주는 것 등등.
- “승리에 겸손하고, 패배에 관대 하라.”
-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대처하라. 사과할 필요 없다. 계속 진행하라.

“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내가 아는 어떤 평시 오락거리보다도 5달러 내기 골프에서 더 빨리 나타난다.”

-그랜트랜드 라이스

제 12 장 리조트 골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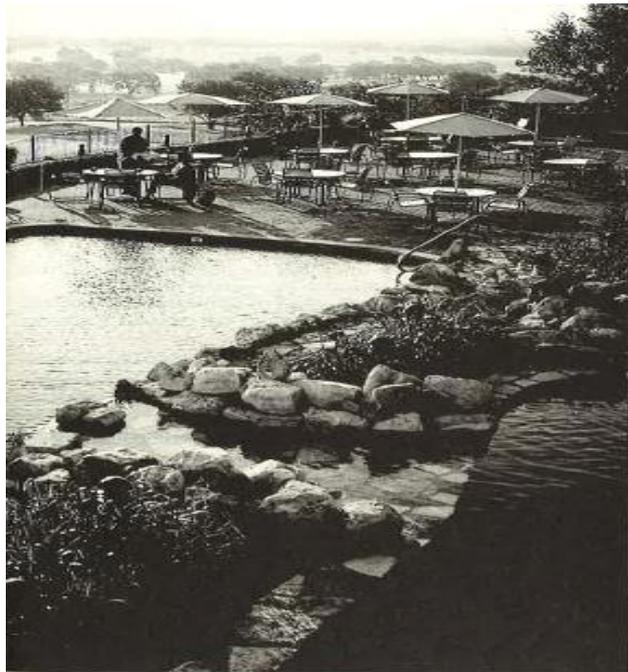
“정말 멋진 곳에서 라운드 할 수 있는 것이 골프의 기쁨 중 하나다.

-버나드 다윈의 『영국에 있는 골프 코스들』

우리는 꿈을 꾸다. 하지만,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워블던 센터 코트에서 테니스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어느 누구도 양키 스타디움 야구장에서 야구 출전해서 덕 아웃 계단에서 나오는 황홀감을 맛볼 수 없다. 그러나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준다. 생각해 보라. 우리는 똑같은 페어웨이를 걸을 수 있고, 똑같은 그린에서 퍼팅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화려한 챔피언십 골프대회 개최지에서 영원히 기억될 선수들이 경험하는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서 맞서 볼 수도 있다.

리조트는 이러한 대리만족의 탈출, 즉, 가장 훌륭한 코스에서 골프 업계에서 최고의 골프 설계자들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 페블 비치, 파인 허스트, 턴 베리와 같은 그 코스들은 우리가 똑같은 곳에 서서 우리 자신에게 “이 퍼팅은 오픈 대회 승리의 퍼트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

이런 기대감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지만, 리조트를 처음 접하는 미경험자들에게는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 오랫동안 리조트 이사로 재직 중인 스티브 트레미어(Steve Tremeer)와 칩 지스트(Chip Gist)는 미경험자들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바튼 크릭 리조트 풀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팁. 팁은 끝날 때까지 주지 말고 기다려라. “경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스티브는 제안한다.

칩은 “리조트 측에서는 당신이 팁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레파킹 팁은 나중에 직원들끼리 나눠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클럽을 닦고, 챙겨 넣는 사람들에게는 3~5달러 팁이 일반적이지만, 팁을 주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식당의 계산서에서 퍼센트를 계산해서 팁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팁은 그 외의 서비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순전히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일부 회원제 코스에서는 팁 주는 것을 금지하며, 레슨해 주는 프로에게는 팁을 주면 절대 안 된다.

시간 엄수. 찾아가는 방향을 미리 전화해서 물어 보라. 일단 리조트에 도착하면, 코스 찾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라커룸 찾고, 골프 습에서 체크 인 하고, 라운드 동반자들과 만나고, 골프백을 위치로 갖다 놓고, 카트 챙기고, 연습장으로 가고, 볼을 몇 개 쳐 보고, 스타터 찾고, 마지막으로 컷 티로 가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늦게 준비하다가 서두르는 건 골프를 잘 치는 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당신 자신에게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당신 자신을 즐겨라. 스티브 트레미어와 칩 지스트 두 사람 모두 게스트들에게 리조트가 제공하는 훌륭한 서비스를 맘껏 누리라고 권한다.

“누군가가 여행 중일 때, 그들은 집에서 떨어져 나와 있지만, 누군가의 집으로 간다,” “리조트 직원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신이 게스트로서 편안히 머물다 가기를 원한다. 리조트 서비스들을 누리고, 라커룸도 이용해라.”라고 칩이 말한다.

모든 것에 라벨을 붙여라. 클럽, 백, 여행용 커버 모두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클럽 샤프트 라벨, 백 위 태그, 여행용 커버 위 네임 태그를 붙여두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해 준다. 많은 리조트 특히, 한 개의 골프 코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에서는 클럽들이 뒤섞여 서로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종종 조그만 차의 뒤쪽에 쌓여서 묻혀 있거나, 주위에 뒤섞여 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클럽들은 골프백 보관실에서 카트에서, 코스로, 그리고 객실(또는 콘도)로 멀리 옮겨져 버릴 때가 있다. 클럽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클럽에 이름 라벨을 붙여야 아주 빨리 집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여 클럽. 골프 라운드를 한번 하려고 머나먼 곳을 사람 시체만한 무게의 클럽을 갖고 다니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경우, 대여 클럽을 빌려 사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어떤 종류의 대여 클럽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라. 빌리는 데 세트 당 30달러에서 50달러 비용을 예상해라. 볼 값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즘, 스파이크는 봉도(wood shaft)의 길을 따라 가기에 골프화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사전에 미리 확인해라. 테니스화는 허용된다. 어떤 복장을 하든 카트에 앉은 채 신발을 바꿔 신지 말고 라커룸에서 바꿔 신어라)

야드지 북을 구입해라. 야드지 북은 카트 운전대에 같이 제공되어 무료일 수도 있고, 프로숍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갖고 있으면 그 만한 쓸모가 있다. 그것은 홀에 관한 지도로서,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클리프 노트(Cliff notes)*는 하나에 모든 게 있다. 그것은 홀들을 상세히 알려주며, 핀 위치를 구분해 주는 색깔 코드를 알려주며, 코스의 히스토리를 알려 주며, 화장실 위치와 해저드를 알려준다. 비용은 기껏해야 5달러나 6달러 정도이다. (해외에서는 상표명인 “스트로크 세이버.”라고 불린다.)

티타임은 불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골프에서는 늦게 도착하는 법이 없다. 당신 팀 4명 중 한 명의 위치를 파악 중이고, 나머지 세 명이 나와 있어 시작 할 준비가 되었다면, 티 타임 10분전 스타터와 체크 인 하고 정시에 티오프를 해야 한다. 나머지 한 명은 코스에 있는 세 명과 조인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조트는 10분 간격 티오프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괜찮은 티오프 간격입니다. 골프장은 이 복잡한 팀들을 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골퍼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행을 막지 않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인 플레이가 플레이 우선권이 있다. 낯선 사람들과 조인해서 플레이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프로숍이나 안내원에게 미리 가서 본인의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낯선 사람들과 조가 편성되어 그들과 라운드 하게 될 것이다. “리조트측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이 협조해서 도우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첨 운처럼 복불복이 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두 명의 스크래치 골퍼랑 조 편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칩(Chip)이 조언해 줬다. 이에 대해 스티븐(Steven)이 얼른 덧붙이기를 “스크래치 골퍼랑 다섯 시간동안 함께 라운드 하느니 차라리 4시간 동안 핸디캡 40인 플레이어와 라운드 하는 게 낫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플레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파우치 가방에 귀중품 넣기. 라운드가 끝나고, 골프백은 저녁이 되면 문이 잠기는 백 보관 실로 옮겨진다. 몇 시간 후 보관 백 창고는 수백 개 이상의 골프 백들로 가득 차 버리기에 그 때 백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역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파우치 가방에 모든 것을 함께 놓아두면 지갑, 보석, 롤렉스시계, 핸드폰 등을 기억하기 훨씬 쉽다. 라운드 후 팁을 주기 위해 파우치 가방을 꺼낼 때 시계를 손목에 차고, 반지는 손가락에 끼고, 지갑은 주머니에 넣기에 좋은 시간이다.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다. 식음료 카트에 뭐가 있을까? 라운드 하는 동안 골프를 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골프 레슨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나? 그늘 집에서 식사하면 숙박 룸으로 요금이 다시 청구 되는 건지? 일단 문의해 봐라. 당신이 물

어보지 않으면, 게스트나 직원 모두 불편할 것이다. 직원들은 경력자나 신입 사원까지 모두 똑 같은 방식으로 모든 골퍼들을 친절히 모시도록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

기념품 구매요? 라운드 끝난 후에 쇼핑해야 하나라도 덜 잃어버리게 되고, 쇼핑으로 인해 라운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라운드 끝날 때쯤 골프숍 영업시간을 확인하여 쇼핑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리조트에 평가 남기기. 시설을 이용하면서 감명 받은 게 있나? 개선 사항이 있었나? 고객만족에 가치를 두는 리조트는 그들이 고객을 만족시켰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무척 궁금해 한다.

영국에서 골프하기

대서양을 건너 골프 라운드를 하는 것은 아주 기쁜 경험이지만, 조금 색다르다. 로마에서 “로마의 풍습을 따르라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래된 많은 골프장에서는 클럽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는 좀 더 스마트한 복장을 해야 한다. 선의로 캐디에게 준 팁과 팁으로 캐디를 모욕하는 것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스코트랜드 사람 고든 다글레쉬(Gordon Dalgleish)는 애틀랜타에 주재 럭셔리 골프 여행사 페리 골프 & 인터 골프 베이케이션의 사장이다. 그는 아주 골프를 잘 치며, 미국인들이 일생 동안 기억할만한 진정한 여행에 관한 알선 전문가이다. 그는 성지순례 여행을 고민 중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의 생각들을 이야기 해 준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인들은 가끔 폐쇄적이거나 또는 심지어 고상한 척하는 규정에 발끈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제 친구랑 좀 갑갑하다고 생각되는 골프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이 뉘어필드(Muirfield) 골프장에서는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똑같이 재킷을 입어야 하고, 식사 하러 갈 때도 넥타이를 매야 한다. 그것은 그 골프장의 절차이고 규정 중 하나일 뿐이다. 그가 느끼기에 그 골프장은 다소 갑갑한 골프장이었고, 비회원들에게는 특히 우호적이지 못했다.” 라고 고든은 상기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비록 그들의 규정대로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영국에서는 최고의 고급 골프장 중 하나의 골프장에서 라운드가 가능하고, 비회원들에게 입장을 허용하고 시설물을 즐기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 상황을 미국이라고 가정해 보자. 미국에서는 당신이 회원 동반자로 따라가거나 회원의 추천이 아니라면, 대개 미국의 좋은 골프장에서는 비회원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의 좋은 골프장들은 그들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을 즐기도록 장려한다. 그런 점은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 중 하나이다.

고든에 따르면, 연습 스윙으로 인해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 미국인들은 첫 번째 티에서 연습한다고 종종 편잔을 들곤 한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연습 스

잉 금지팻말을 붙여 놓기도 한다. 연습 스윙 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연습 스윙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그런 종류의 행위로 일종의 위밍업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잔디가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즌이 아주 짧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하는 관점에 따르면,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옆쪽에 가서 연습 스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티에 올라가서 티를 손상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시 한다.”라고 고든은 설명 해준다.

“미국인들은 첫 번째 티에서 스타터가 다가와서 연습 스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골프 코스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골프 코스를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 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그 곳에서는 골프 코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필수 요소이다.”

그런 점이 매력적인 것 중 하나이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골프를 하는 것 같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세기 동안 그래 왔다. 잘못 오해 받고 있는 규정중 하나가 바로 비회원들이 백 티에서 플레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고든은 비회원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수많은 비회원들을 위해 챔피언 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자랐고, 항상 한 셋의 티, 즉 레귤러 티에서 플레이 해왔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레귤러 티에서 라운드 한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숙련된 골퍼들도 마찬가지이다. 클럽 챔피언 경기를 위해 백 티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만약 회원들도 평소에 라운드 시 백 티를 사용 못한다면, 비회원들도 백 티를 이용 못한다는 사실은 이치에 맞다. 이런 점은 미국에서 영국까지 방문한 미국인들에게는 가끔씩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전반적인 골프 코스 잔디 관리를 위한 것이다. 만약 모든 플레이어들이 백 티에서 항상 플레이 한다면, 회원 챔피언십 대회 때 백 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 버릴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코스를 존경하는 접근방식의 운영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느끼듯이, 영국에서는 비단 코스 잔디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잠깐! 모자나 야구모자는 실내에서 벗어라)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골프 라운드 전이나 끝난 후 아니면 언제든지 악수를 할 경우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은 모자를 벗고 하는 것이다.”라고 고든은 이야기 한다. 같은 방법으로, 숙녀가 테이블로 다가오면, 일어서서 그녀가 앉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친구가 그걸 잊어버리고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면, “그의 머리를 살짝 툭 칠 것이다.” 미국에서 모자 쓰고 다니는 것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거 알고 있다. [모자를 벗게 하는 것은] 다소 유럽식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낫다.

캐디에게 팁 주는 것은 항상 고민거리이고,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팁 포함해서 가방 가격 범위인 40파운드 정도인 것 같다.” 라고 고든이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캐디피 책정은 내가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본 금액에서 일정 퍼센트 수입 방식으로 일한다면, 캐디피는 20파운드 또는 25파운드로 공시되어야 하지만, 캐디피 시장은 총액을 40파운드 또는 그 내외, 35파운드에서 40파운드로 형성되

어 있는데, 이것은 퍼센트 수입 방식과 맞지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캐디피로 35파운드에서 40파운드 준다면 꽤 좋은 정도이며, 캐디는 충분하게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캐디들은 분명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의 생각을 말할 것이다.

2002년 여름 현재 기준으로, 팁 포함 30파운드는 아주 적당한 금액이다. 팀에 있는 모든 이가 똑같은 금액의 팁을 주었다면 어떤 불만도 없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더 많은 곳에서 플레이 해 본 경험이 있는 고든에 따르면,

여기와는 달리 그 곳에서의 골프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미국인들이 아주 즐기는 것 중 하나이다. 거기 호프집에 가서 캐디들과 함께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느긋한 생활을 하는 것이 미국보다 더 낫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라운드를 하는 것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많은 골프 라운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도 많은 골프코스를 보고 플레이하고 싶어 한다. 막상 현실은 이렇다. 그 코스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거기에 있고, 내 후년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다. 두 군데 호텔에서 머무르며 자고, 몇 군데 골프장에서 두 번 라운드 하면서 즐기는 것이 맞는 거 같다. 매일 36홀 라운드를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며칠 걸리더라도 18홀 라운드하고 전원생활과 호프집에 맥주 한잔 하면서 즐겨라.

일주일 동안 12번의 라운드를 하려고 다섯 개의 다른 호텔에 머무르는 단체를 본적이 있다. 숨이 막히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일정이 끝날 때쯤이면, 어느 골프장을 다녀왔는지 헷갈리게 된다. 5개의 골프장에서 서비스를 누리고, 두 개 골프장 정도를 두 번 라운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두 군데 호텔에 머무르면서 즐기면 참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고, “골프장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기대하는 것

영국은 아주 공명정대한 나라이다. 불행하게도 여성들이 클럽하우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악명 높은 골프장들이 분명 존재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골프장 입장이 허용된다. 코스에는 레이디 티가 따로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똑 같이 대우 받는다. 예를 들어, 한 여성 골퍼가 어디에서 술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골프장 직원에게 물어보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실수가 없도록 해 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적절한 곳으로 안내 받아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카치에 물 타는 건 어떤가? 아무것도 타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안주와 함께?

스카치에는 물을 섞지 말아야 하고, 얼음도 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 요약

- 라운드가 끝난 후에 팁을 주어라. 클럽을 닦고, 골프 백에 챙겨주면 3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일반적이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중요치 않은 사소한 것이다.
- 시설물을 이용해라. 라커룸도 이용하고, 즐겨라
- 시간을 넉넉히 잡고, 골프장 사정을 잘 알고, 동반자들을 챙기고, 미리 위치를 물어봐라.
- 골프 대여 클럽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전에 물어봐라.
- 당신 클럽과 여행용 커버에 라벨을 붙여둬라. 가방에도 태그를 붙여 놔라.
- 야드지 북은 5달러 정도이며, 구입해서 사용하면 유용하다.
- 티타임은 티에서 샷을 해서 볼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 4인 플레이가 플레이 우선권을 갖는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골프 샵 직원이나 안내원에게 미리 말해라.

“분명 진보 단계에 있다.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한 단계 올라가면, 그런 후 두 단계 내려가고, 그런 다음 세 단계 올라가고,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 - 이 순간은 분명 당신이 두 단계 다시 떨어진 순간이라 여겨라.

-헨리 롱허스트의 『골프 시작하는 법』



순서에 따라 정돈된 클럽. 퍼터와 우드는 상단 구역에, 아이언들은 옆쪽에
함께 놓고, 웨지들은 바닥 구역에 놓는다.

제 13 장 골프 장비

“특정 골프 장비로 골프 실력이 늘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장비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리 바든의 『골프 하는 법(1913)』

엄밀히 말해 에티켓에 관한 염려는 아니지만, 골프 장비는 또 하나의 통과의례일 뿐이다. 골프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에 관한 책도 없다. 어쨌든, 장비 사는 건 진짜 따분할 것이다. 인구 통계범주에 따르면, 골퍼는 광고를 읽고 즐기는 부류일 뿐이다.

골프 게임의 중독성을 고려해 볼 때, 골퍼들이 장비 마니아처럼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여 지하 창고, 트렁크, 차고에 장비로 꽉 채운다는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다. 골프를 배우고 즐기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은 더 좋은 장비에 투자하고, 자격 있는 유능한 사람 또는 책으로부터 레슨을 받는 것이다.

골프 클럽 구입 장소

골프 샵, 골프장 밖 소매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 운동용품점은 골프 장비 전문이 아니고 클럽 구입 장소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볼, 티, 장갑 등 사소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운동용품점도 괜찮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보증 및 환불규정을 항상 주의 깊게 읽어 보아라.

다른 옵션

클럽을 구매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클럽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에 맞는 클럽들과 그리고 치열한 경쟁시장과 광고들 때문이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말 중에 “골프를 제대로 배울 때까지는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해라” 라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확신한다. 최신식 클럽을 사용해도 골프를 마스터 하기는 아주 어렵다. 더 좋은 장비일수록, 사용하기 더 쉽다. 계시적인 것은 없지만, 의심스러우면, 19달러짜리 운동화를 구입해서 신고 마라톤을 직접 뛰어보아라.

골프 장비는 4가지 범주에 들어간다.

1. 프로 라인

프로숍과 골프장 밖 소매점에서 취급한다.

성능과 가격은 최고급이다.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으로 알려져 있다.

2. 스토어 라인

골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볼이랑 퍼터 사는 비용은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퍼팅, 칩핑은 플레이를 잘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다.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기술을 연습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약 없이 가능하며, 비용도 무료이다. 자주 사용되는 클럽들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중고 퍼터로도 메이저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왔다.

○ 당신은 종종 저급의 새 골프채 보다 고급의 중고 세트를 구입 할 수 있다.

프로 라인 장비

우리는 이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제조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즉, 프로 라인 장비들의 상세한 부분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트의 골프 클럽을 구매하는 것은 최근의 돈이 많이 드는 아이템들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최고급 세트의 골프 클럽의 가격은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에 견줄만하다. 목마른 골퍼들은 여태까지 보다 더 좋은 장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들은 더 나은 볼루분 가치를 갖고 있다. 골프 클럽은 가게에서 창고로 가거나 또는 일요신문 광고 면에 나오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

OEM 클럽은 가치가 오랫동안 유지되며, 길게는 10년 동안 유지된다. 좋은 세트의 클럽은 여러 해 동안 감채상각 될 수 있다. 골프채 세트를 5년 또는 6년정도 보유하고 있어라. 좋은 품질의 클럽에 투자해 두면 최초 구입 시 비싼 가격에 받은 충격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 구매 팁: 프로 라인 클럽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기 전 보통 골프 시즌이 시작 되는 봄철 전에 염가나 연말에 할인 할 때 구입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의 클럽 구매

매년마다 새 클럽이 전년도 모델과 교체되면서 출시된다. 일부 아이언 세트는 항상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구적인 가치가 제한되어 있다. 연식이 5년 이상 되지 않은 중고의 프로-라인 아이언 세트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스토어 라인 클럽과 구성 요소 클럽은 판매가 한정되어 있거나 보상 판매 된다.

우드(wood)는 가급적이면 3번이나 5번 우드 하나 사서 시작하는 것이 괜찮다. 골퍼들은 종종 다른 종류의 우드를 짜 맞춰서 사용하지만, 아이언은 세트로 판매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중고 클럽과 “스타터”세트

일요 신문 물품 구매 광고란에 당신의 눈을 사로잡는 광고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골프백 한개, 10개의 아이언세트, 4개의 우드, 퍼터까지 이 모든 것을 100

달러에 판매한다고 나와 있다. 괜찮은 가격처럼 들린다. 하지만, 당신은 골프 매장에서 250달러짜리 중고의 유명 브랜드 제품 한 세트를 보았다. 백, 퍼터, 우드 없이 아이언 세트만 두 배 이상으로 비싸다. 무슨 일이지?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 거래일까? 글썄, 확실한 건, 첫 번째 패키지를 포기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양보다 질이라는 경고를 기억하라. 물품 판매 광고 또는 인터넷상의 중고 클럽을 구매할 때는 잘 알려진 브랜드와 샤프트 경도(이와 관련해서 뒤 장에 논의된다)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라. 골프 숏과 골프 전문점은 골프 세트의 가치를 알려주기에 도움이 된다. 심지어 좋은 중고장비 전문취급점도 있다.

초보 골퍼들은 종종 소위 스타터 세트로 시작하도록 유도된다. 많은 사람들의 골프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초보자들에게 스타터 세트로 골프 실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품의 품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골프는 질 낮은 장비 없이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이다.

많은 골퍼장들은 클럽 제조사들과 연계하여 시제품 행사의 날을 개최한다. 테스트의 일환으로 클럽들을 갖고 플레이 할 기회가 있다. 당신이 구매할 그 클럽으로 샷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무료로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시타 해 볼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 일지언정, 우리는 구매하기 전에 클럽을 시타 해 보기를 권장한다.



클럽 샤프트의 강도와 길이를 면밀히 확인해라.

기성품 클럽

몸집이 매우 크거나 작은 사람들은 기성품 클럽을 구매할 수 있다. 주문제작 하려면 노련하고, 경험 있는 “재단사”가 필요하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선택의 범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사 또는 예산 문제와 관계없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샤프트 강도

즉, 탄력성이다. 샤프트 탄력성이 더 단단할수록 볼을 확고하게 때리는 데 걸리는 스피드가 더 빨라진다. 우리들 어느 누구도 골프채를 스윙하는 데 똑 같은 스피드를 만들어 낼 수 없다. 프로 선수들은 120mph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의 양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80mph에 다다르지 못한다. 적절한 샤프트 강도를 찾는 것이야 말로 즐길 수 있는 클럽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여성 역량강화 골프(Empowered Women's Golf)의 고객들은 올바른 클럽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심층 인터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는 샤프트 전문기술 사장 패트리샤 덕슨(Patricia Dixon)을 기꺼이 소개시켜드리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상표명이 폭넓게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라. 유행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남성이나 여성, 전문가나 초보자에 대한 핵심 요점은 올바른 샤프트를 올바른 스윙 스피드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패트리샤의 추천 사항들이다.

강도는 일반적으로 5개의 범주로 제조사에 의해 등급이 매겨진다.

가장 강도가 좋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이러한 강도는 L(여성), A(노인), R(보통), S(딱딱한), XS(아주 딱딱한)으로 구분된다. 제조사들마다 강도를 “낮은 강도” 또는 “중간 스윙 스피드”와 같이 약간씩 다르게 부를 수도 있지만, 골프 업계에서는 L, A, R, S, X 으로 알려져 있다. 너무 많지 않게 적당하게 휘어지는 것이 당신에게 알맞은 강도라 할 수 있다. 너무 뻣뻣한 클럽은 활 모양의 낮은 아크를 만들어서 보통 볼이 오른쪽으로 날아 가버린다. 너무 잘 휘어지는 클럽은 볼을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역할을 해서 볼이 너무 높이 뜨거나, 가끔씩 오른쪽으로 또는 종종 왼쪽으로 가거나 보통 불안정하게 일관성이 없는 샷을 만든다.

클럽은 샤프트의 특정 지점에서 구부러진다. 좋은 품질의 샤프트는 매우 일정하게 휘는 지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각 클럽이 똑같다는 느낌을 받고, 샷을 얼마나 많이 하던 간에 휘는 지점이 다 똑같다. 클럽이 너무 낮은 지점 또는 헤드 쪽에서 휘다면, 샤프트 위쪽에서 휘는 것보다 더 잘 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런 느낌을 스윙하기 “더 쉽다”라고 묘사 할 것이다. 스윙 스피드가 높으면 중간 혹은 고 강도(또는 킥 포인트)샤프트로 스윙하면 샷이 더 일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보통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남성들은 보통 레귤러 샤프트로 플레이 한다. 노력은 적게 하고 거리 욕심이 많은 스윙 스피드가 낮은 남성들은 A 강도 샤프트를 사용하면 좀 더 거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스윙 스피드가 아주 빠른 프로들은 보통 엑스트라 스티프 샤프트를 선택하는데, 이것은 스윙하는 동안에도 거의 구부러지지 않는다.

또 하나, 샤프트는 스티ل 또는 그라파이트(Graphite)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그라파이트는 가볍고 충격을 흡수하는데 좋다. 손목, 팔꿈치, 목 또는 등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골퍼들은 그라파이트에 끌린다. 그라파이트는 스티ل보다 더 가볍고, 거리를 내는데 장점이(항상 수요가 많다)있고, 보다 관용성이 좋고, 관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지 않는다.

초보자들은 스티ل보다 그라파이트를 더 선호하지만, 샤프트의 강도나 길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스티ل보다 더 고가이지만, 평생 동안 사용가능 할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

여성 클럽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장차 골퍼가 되려는 여성들조차도 여성용 클럽이 스탠더드 남성 클럽보다 약 1인치 작다는 것을 잘 모른다. 167cm 또는 더 큰 여성들은 남성용 A나 시니어 샤프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적당한 샤프트와 더 긴 클럽으로 스윙 하는 데 필요한 길이의 샤프트가 있어야 한다.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구매하라. 더 가벼운 샤프트 일수록 클럽헤드는 더 무겁다. 스윙도 쉽고 스윙 스피드를 더 높게 만들어 결국 볼을 공중으로 뜨기 쉽게 만들어 거리도 더 나아가게 한다. 여성 장비를 잘 모르는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로숍에서조차도 키가 큰 여성들에게 실수로 짧은 클럽들을 판매하게 된다.

골프 클럽을 선물로 구매하는 남편이나 부인들도 종종 그 차이를 모른다. 많은 여성들은 잘못된 클럽 피팅으로 인해 속은 줄도 모르고 결국 골프를 그만 두게 된다. 남성들은 종종 저급의 골프채라도 힘이 좋아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에 돈을 지불해서도 안 된다.

퍼터 구입

골퍼가 첫 번째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퍼터이다. 퍼터 구입은 개인의 취향과 비용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왜냐하면 말렛(반달형)퍼터에서 블레이드(일자형)퍼터까지 스타일이 무한대로 다양하고 기준 소매가격도 30달러에서 300달러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바이올린)활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바이올린이 아니고,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퍼터는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줄 수 있고 또는 아이언들(길이, 무게, 샤프트 강도 등등)과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클럽이다. 퍼터 제작에 사용되는 많은 재질 중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알루미늄과 황동이며, 이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장 바람직한 재질이다.

규화목

한때는 감나무와 다른 딱딱한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현대시대의 우드는 사실 혼합된 금속 합금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거리를 내는 데 사용되는 클럽인 우드는 아이언과 짝을 맞출 필요가 없다. 골퍼들은 항상 여러 가지 브랜드를 짜 맞춘다. 처음으로 구입하는 우드는 다용도의 3번 우드로 드라이버보다 치기도 쉽다. 5번 우드나 7번 우드를 구입 한 후 마지막으로 소위 1번 우드인 드라이버를 추가로 구매한다. 9번 우드와 11번 우드를 구매하는 것 또한 인기 있다. 가끔씩, 어떤 골퍼나 아나운서는 그것들을 “메탈”이라고 부르지만, 골프에서의 오랜 전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지금도 그것들을 우드라 부른다.

웨이

웨이 샷은 볼을 공중으로 솟아리 띄워서 그린위에 떨어뜨리게 한다. 이때 볼은 회전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좀처럼 굴러 나아가지 않는다. 웨이를 구입할 여유가 있다면 샌드웨이를 먼저 구입하라. 웨이는 퍼터처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피칭 웨이는 좀 더 거리를 낼 때 필요하며, 모래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숙련된

플레이어들에게 있어서, “갭” 웨지는 샌드웨지와 피칭 웨칭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정확한 거리가 필요할 때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로브”웨지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 볼이 재빨리 위로 솟구쳐서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할 때 필요한 웨지로서, 기술을 요하는 모험적인 샷이다.

볼

볼은 모두 둥그렇고, 같은 크기이지만, 골프 볼은 딴플 형태와 숫자에서부터 볼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제조사에 따르면, 퍼팅에 더 좋고, 드라이빙에 더 좋고, 모든 것에 좋다)에 이르기까지 어지러울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다. 당연히, 가격 또한 다양하다. 바바라는 수강생들이 어떤 볼을 추천하는 지 물어 볼 때 마다 항상 웃곤 한다. 일련의 새로운 모델들과 수행 실적능력들을 정기적으로 알고 다니기는 어느 누구도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녀는 그저 둥그런 볼을 추천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볼 속에 있는 코어도 아니고, 압축물도 아니고, 커버가 이렇고 저렇고, 브랜드 종류가 어땠고, 그저 둥그런 볼이다. 요즘은 제조 기술이 워낙 좋아서 시장에 출시된 볼 모두 훌륭할 것이다. 출시는 되었지만, 외관상의 결함이 있는 소위 “비매품”들도 구입하면 좋다. 보통, 할인된 이러한 새 제품들은 주문 취소나 인쇄상의 에러로 인해 나온 것들이며, 볼 자체는 하자 없이 라운드 하기에 무난하다.

볼을 구입하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를 구매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스포츠카의 고성능 타이어들은 다소 가격이 비싸지만, 아마도 SUV차량의 타이어처럼 내구성이 그리 좋지는 못하다. 어떤 종류의 브랜드를 선택하든 간에, 새 볼이 가장 좋다. 헌 볼이나 프로숍 카운터에 있는 볼들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안 좋은 볼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워터 해저드에서 건졌거나 다시 색칠한 볼일수도 있다. 물에 잠겼던 볼은 분명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나머지처럼 생겼고 값이 아주 저렴한 볼은 구입하지 마라. (알게 되겠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조사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볼이 플레이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다고 홍보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 볼의 재생기능이 끝나기도 전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숙련된 골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아마 다른 볼보다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볼에 민감하다. 결국 개인 취향에 따라 볼을 사용하게 된다. 우리들 대부분은 볼과 상관없이 꽤 만족하며 라운드를 한다.

“바람 부는 날 골프 라운드 할 경우 ‘이클립스’볼을 사용하면 아주 좋다. 그 볼은 또한 둥글둥글함을 유지해 주고, 퍼팅 시 아주 필요하며, 가장 경제성이 좋다.”

- 1887년 4월 14일자 뉴캐슬 데일리 저널

손 장갑

오른손잡이 골퍼는 왼쪽에 장갑을 낀다. 왼손잡이 골퍼는 오른쪽 손에 장갑을 낀다. 각각의 경우에, 클럽을 처음 움켜쥐는 그 손이 장갑을 끼는 손이다. 실수로

장갑을 잘못 구입하더라도 속상해 하지 마라. 그대로 사용하라. 추운 겨울날, 그 장갑이 다른 쪽 장갑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손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

가방

건거나 여행해야 한다면, 가방의 무게는 가방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가벼운 것으로 골라라. 항공 여행 시 필수품이며, 귀중한 가방 손상을 방지하려면 견고한 여행용 커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것

- 볼
- 티
- 디봇 수리기
- 장갑
- 볼 마크

필요할 지도모르는 것

- 빗 가림막이
- 방충제

필요 없는 것

- 고무 또는 털가죽을 댄 아이언 커버
- 플라스틱 튜브로 된 샤프트 보호대
- 정보 광고에 나오는 홍보용 스윙 기구(그 대신에 레슨에 투자해라)
- 볼, 스코어 카드 또는 티를 보관하는 1,001개의 값싼 것.

백 속에 클럽 정렬

프로들은 아주 꼼꼼하다. 프로들 백 속을 몰래 살펴보면, 세심히 정리해 둔 것을 볼 수 있다. 우드들은 퍼터와 함께 맨 상단 구멍 쪽에 놔둔다. ("맨 상단"은 끈 쪽에 가장 가까운 곳을 말한다. 삼각형 스탠드가 있는 백에서는 가장 긴 구멍 구역을 말한다.)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구역은 순서대로 아이언들을 넣어 놓는다. 예를 들어, 5, 6, 7번 아이언을 함께 배치한다. 가장 바닥 구역은 웨지인 피칭과 샌드(일부는 로브나 깎)와 9번 아이언을 위한 구역으로 정렬방법은 아주 쉽다.

순서대로 놓으면 골프코스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각 클럽에 맞는 구역이 있어서 찾기도 쉽고, 빠뜨리지도 않는다. 이제, 이거 저것 파헤치면서 찾을 필요 없이 가방 어느 쪽 포켓에 차키를 넣어 두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핵심 개요

- 비록 중고일지언정, 적절한 샤프트와 프로라인 클럽을 선택하도록 하여라. 스타터 세트는 가급적 사지 마라.
-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플레이하기도 쉽다. 좋은 장비일수록, 실력도 빨리 향상된다.
- 어떤 종류의 볼로 플레이해야 하나? "둥근 것이면 된다". 볼의 재생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볼은 잃어버릴 것이다. 비매품도 구입하면 좋다.
- 우드는 퍼터와 함께 백의 위쪽에 놓고, 밑에 쪽에는 웨지를 보관해라.

“내 볼이 아닌 이상 분실구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줍지 않는 것이 훌륭한 스포츠맨십이다.”

-마크 트웨인



전설의 레슨 프로인 하비 페닉(좌측)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텍사스 골퍼 매거진 사진 제공

제 14 장 골프 레슨

"일부 프로 골퍼들은 잘 가르칠 줄 모른다."라는 비판이 있다. 능력 있는 내 프로 골퍼 동료들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하자면, 저는 오히려, 많은 골프 후보생들이 레슨 받는 방법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싶다."

-타미 아모어의 『타미 아모어와의 골프 라운드』

골프 레슨 받은 사람치고 기량이 늘지 않은 골퍼는 없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도 항상 레슨을 받는다. 프로들에게 있어서, 레슨은 근본적으로 철저히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고성능 엔진을 미세 조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좋은 스윙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스윙에 대한 지침은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골프를 배우는 과정에서 골프에 대한 느낌과 배우겠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골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레슨 프로 찾기

평판이 좋은 배관공이나 도장공을 찾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훌륭하고 멋진 티칭 프로를 찾으려면 된다. 주위에 물어보면서 구전으로 찾는다. 주변에 물어봐라. 성격과 티칭 스타일은 각기 다르다. 주변에서 받은 가장 좋은 조언에 따르면 당신을 노련한 선생님과 의사 전달자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며, 그저 좋은 플레이어가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뛰어난 경험자이다. 그들은 골프 코스나 연습장에 상주해 있다. 골프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은 선생님은 있다.

골프 프로가 레슨 전에 묻는 질문들

얼마나 오래 골프를 치셨나요?

얼마나 자주 플레이 하세요?

핸디캡이 얼마인지 또는 평균 타수가 어떻게 되세요?

연습은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레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연관 될 수도 있는 건염, 과거의 부상 또는 수술 경력 등의 신체상의 문제가 있으면 꼭 이야기 해 주어라.

만약 프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그 정보들을 알려 주어라. 프로는 당신의 동기부여 및 기대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어라. 혹시, 전에 플레이 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된다. 어떠한 것도 기록 되는 게 아니므로 있는 그대로 대답해도 괜찮다. 레슨 프로가 진정 알고 싶어 하

는 것은 당신이 샷을 해서 볼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으로 간다.” “나는 볼의 위쪽을 때린다.” “나는 완전히 볼을 놓친다.” “나의 드라이브 샷은 공이 뜬다.” “나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형편없이 스윙한다.”

레슨 프로 앞에서는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레슨을 받는 이유는 골프장에서 친구나 비즈니스 동료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고 고쳐나갈 시간이다.

레슨 프로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내 오른 팔꿈치가 나무끼듯 날아 다녀요.”

“힙이 너무 빨리 돌아요.”

“너무 뒤쪽에서 스윙을 해요.” 또는 “충분하게 길게 스윙 하지 못해요.”

“제 남편이 저는 머리를 밑으로 고정하지 못하고, 왼쪽 팔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증상과 고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스윙분석과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위의 리스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태면,

- 샷 할 때 마다 실망하는 감탄사.
- 친구나 친척의 레슨
-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명(“공에서 시선을 놓쳤다.”) 샷 할 때 흔들렸다.” “너무 빨랐다.”)
- 느낌이 안 좋았다.

다른 레슨 프로에게 이전에 있었던 레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다른 사람의 견해를 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골프 프로는 부러운 선망의 대상이다. 스윙 문제는 유행병처럼 남아있다. 수강생들은 실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책한다. 프로에게 받은 레슨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레슨프로를 찾는다. 레슨 하면서 수강생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샷을 많이 하는 레슨 프로를 조심하라. 초보자를 대하는 좋은 태도, 경험, 능숙함, 편안함, 적당한 레슨비야 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다. 결국, 당신은 구매자이다. 미숙한 골퍼는 종종 미숙한 레슨 프로를 찾게 된다. 당신은 능력 있는 레슨 프로를 원한다. 주위에 물어보라. 당신이 투자한 만큼 얻게 될 것이다.

하비 페닉은 숙련된 골퍼가 되기 위한 레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하루 샷이 잘 안 되는 날은 잊어버려라. 우리 모두 그런 날이 있다. 이틀 샷이 잘 안 되면, 연습장 가서 연습해 보고, 고치도록 노력해라. 삼일동안 볼이 잘 안 맞으면, 골프 프로에게 도움을 청해라.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은 다르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불편할 것이다. 당신에게 기회를 쥐 보아라. 샷 하는데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전의 불만족스러운 결과 상태로 돌아 갈 뿐이다.

“나는 앞으로 기상 예보관처럼 가르칠 겁니다. 굿 샷 확률이 20% 또는 40%, 또는 50% 확률이 있다. 때때로, 저와 다른 골퍼들은 상층 교란상태입니다.”

- 하비 페닉(Harvey Penick)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룹레슨이 괜찮다. 뇌로 흡수 잘 하고, 다른 사람의 샷을 지켜보는 것은 학습 진도를 빠르게 해 준다. 그룹 레슨을 하면 샷 할 때 마다 누군가가 뒤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샷을 관찰하고 연습할 기회가 생긴다. 게다가, 더욱 재미있다. 골프는 사교성 게임이다. 그룹 속에서 시작하는 건 분위기를 밝게 해 준다. 또한, 잠재적 친구와 플레이 동반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룹 레슨은 또한 비용이 저렴하다. 골프 스쿨에 가는 것은 일종의 휴가이며, 며칠 동안 골프에 깊이 몰두 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은 집에서 맛 볼 수 없는 것이다. 최고급 리조트에서 주로 그룹 골프 레슨이 이뤄진다.

비디오 레슨은 인기 있는 티칭기법으로 스윙의 올바른 움직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티칭 보조 교재이기는 하지만, 스윙은 여전히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동영상에서 당신의 스윙 허점을 찾아내서, 올바른 방법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동영상은 좋은 스윙의 기본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해 준다. 숙련된 골퍼에게 동영상은 특히 유용하지만, 초보 골퍼에게는 비디오로 통해서 보는 것이 재미가 있다.

레슨 받을 때 갖고 가야 하는 것

골프 클럽은 대여될 수도 있고, 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룹 레슨에서 초보자들에게는 대개 골프 클럽이 대여된다. 신발은 골프화나 운동화를 준비한다. 골프분야의 명성 있는 전문가들 중 여러 명의 레슨 골퍼에게, 장비적인 것들 말고 실력향상을 위한 최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갖추고 와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한 바 있다.

매년 PGA투어 경기 프로선수인 데이브 리드베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수강생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야 한다고 했다.

플레이의 수준이 어떠한 간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의 골프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보게 된다. 제 말은, 어떤 사람들은 큰 목표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밖에 나가 그저 즐기는 것이다. 어떤 와이프는 남편이랑 함께 라운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 것도 괜찮다. 진정 생각의 문제이다. 재능 수준, 라운드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진정 그들이 원하

는 것. 그들이 하기를 위해서, 좋은 레슨만 받게 된다면, 골프실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울 것이다. 그 플레이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진정으로 달려 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자질이 부족함을 꾸짖었다. “하고자 하는 열정, 열린 마음과 의지. 실력을 향상 시키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다음 레슨 프로와 수강생이 만나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

텍사스의 전설인 아버지 잭슨 브래들리의 뒤를 따라 재능 있는 강사가 된 티나 브래들리(Tina Bradley)의 음악악기를 배우면서 느꼈던 고충에 대해서 회상했다.

한 시간 만에 골프를 마스터 하리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 언제나 쉽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자세로 연습하면 종종 금방 늘게 된다. 물론, 수강생이 약간의 운동신경을 갖고 있으면 더 쉽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실질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처음 기타 배울 때 생각이 난다. 내가 자주 연습하지 않았을 지라도, 나의 선생님은 똑 같은 레슨을 반복해서 해 준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만약 수강생이 골프 스윙을 만드는 것은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골프를 배워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골프 매거진 선정 100인의 강사 중 한 명인 브라이언 개쓰라이트(Brian Gathright)는 데이빗이 말한 수강생의 기대치를 확립하고 부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골프에 대한 수강생의 기대치와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연습 스케줄 및 시간도 그 만큼 할애해야 한다. 첫 레슨 시작부터 그것을 정해서 그런 기대치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자주 느낀다. 수강생들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당신이 레슨 시간을 확정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발전하고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마법과 같은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당신과 레슨 프로가 함께 설정한 공통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연습하고 성취해야 한다. 수강생들에게 또 하나 권장하고 싶

은 것은 골프 라운드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스윙실력이 더 좋아졌더라도 골프장에 가서 라운드 하는 법을 배우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소위 샷 게임(퍼팅을 포함하여 그린까지 거리 100야드(91m)내외)에 대해서 일생 동안 연구하고, 가르쳐 온 전 나사(NASA) 과학자 출신인 데이브 펠즈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할 수 있다”라는 자세가 핵심 적인 요소이다.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걸 제가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있다”라는 자세로 수강생들이 레슨 받으러 왔으면 좋겠다. 또한 그들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 만약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기꺼이 연습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골프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다. 레슨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의 가르침을 초월하여 관련 기술을 연습하는데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는 것은 바로 수강생들이다. 하지만, 의지력과 전념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레슨 받으러 와야 한다.

과거 올 해의 PGA 베스트 강사로 선정되었던 척 쿡(Chuck Cook)도 그 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초보 골퍼 또는 순회중인 골퍼 프로에게 골프 레슨 성공여부는 수강생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레슨 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지 또는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는 수강생과 레슨 프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골프 티칭의 엘리트 멤버 중 한 명인 Hank Haney)는 골퍼가 얼마나 “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나는 누군가의 역량 수준에 관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없다. 내 소망은 좋은 긍정적인 자세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답 했다.

핵심 요약

골프관련 통계 자료:

- 미국에는 2,670만 명의 골퍼가 있다.
- 630만 명이 일 년에 25회 또는 그 이상 골프 라운드를 한다.
- 남성 골퍼의 평균 스코어는 97타 이다.
- 여성 골퍼의 평균 스코어는 114타 이다.
- 남성 골퍼의 6%가 정기적으로 80타를 깬다.
- 여성 골퍼의 1%가 80타를 깬다.

- 25%의 남성 골퍼가 90타를 깬다.
- 7%의 여성 골퍼가 90타를 깬다.

자료 출처: 전국 골프 협회

“아마추어 골퍼들이 아마추어를 가르치고, 프로가 프로를 가르친다.”

-익명인

학부모님들은 종종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의 자녀들이 골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격려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인도해 줘야 하는지 물어오곤 한다. 나의 부모님들, 특히 내 아버지는 첫 레슨, 그것도 아주 좋은 레슨을 해 주셨고, 골프에 대한 사랑을 주셨다. 내가 가장 감사해 하는 건, 비록 그때는 아버지가 엄하셨기에 그러지 못했지만, 내가 골프를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는 나에게 골프 에티켓에 정통해야 한다고 고집하셨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저에게 당신이 플레이 할 때 머릿속에 항상 골프 코스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반복 연습훈련 시켰다.

- 골프에 대한 바비 라케(1954)

용어 간단정리

골프 용어는 화려하다. 유창함은 경험과 함께 온다. 그러나 자신을 골퍼라고 이야기하려면 꼭 배워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용어들이 있다.

클럽 스윙

두껍고, 얇고 에스키모 인들이 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듯이 골퍼들도 샷을 표현하는데 무수한 방법이 있다. 두꺼운 샷은 많은 잔디를 파내어 타켓보다 아주 짧은 거리에 볼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 되는 사춘빨 되는 것이 칠리 딥 즉, 칩 샷이다. 칩 샷은 40피트 보낼 때 필요하지만, 클럽이 (볼 대신)지면에 부딪히면 3피트 정도 밖에 굴러가지 않는다. 얇은 샷은 스위트 스폿을 맞히지 못하고, 볼의 중앙 위쪽을 때리는 것이다.

스쿼드, 탑볼 볼의 아주 위쪽을 때려서 그 볼이 지면을 따라 굴러가는 것으로 잘 맞은 공이 공중에 떠서 멀리 가는 만큼 탑 볼도 종종 멀리 간다.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지만 만족할 수 있다. 또한 “웜 버너”라고 불리기도 한다.

짧은/긴, 수직의/편평한, 빠른/느린 스윙의 간결한 묘사, 엄지손가락 지문처럼 개성 있다. 짧고 긴 것은 골퍼의 백스윙의 길이를 가리킨다. 빠르고 느린 것은 스피드를 의미한다. 편평한 스윙은 좀 더 수직으로 들어 올리지 않고 몸통 주위에서 더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헛침, 팬 볼을 치려고 스윙 했으나 못 맞히는 끔찍한 상황으로 하나의 타수로 계산 함. 물속으로 들어간 볼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로 인해 다음 샷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샷이 되는 것이다.

레이 업 예를 들어, 모험을 걸고 볼을 치지 않고 헤저드의 볼을 고의적으로 짧게 쳐서 플레이 하고자 하는 신중한 전략 방법. *레이업(Lay Up)* 함으로써 다음 샷 하는데 부담이 없다.

볼의 구질(오른손잡이의 경우)

훅 볼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다가 급격히 왼쪽으로 휘어지는 미스 샷.

드로 오른쪽으로 날아간 볼이 왼쪽으로 가볍게 휘어지는 샷.

슬라이스 볼이 왼쪽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미스 샷.

페이드 왼쪽으로 날아간 볼이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지는 샷. 페이드는 드로로 친 샷보다 멀리 굴러 가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조절해서 친 샷.

푸시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쪽 뺀어 가는 것.

풀 왼쪽으로 출발해서 쪽 뺀어가는 것.

뱅크 클럽의 움푹 팬 곳에 볼이 맞아 동반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것.

스카이 너무 하늘 높이로 가버린 바람직하지 못한 샷. 뜬 공과 같다.

캐리 볼이 원래 위치에서 날아가서 떨어진 지점간의 거리.

런 볼이 땅에 최초로 닿은 후에 멈출 때까지 바운드 되어 멀리 지면을 따라 굴러간 거리.

칩 낮은 탄도의 샷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 보다 지면에서 오래 있는 샷.

피치 높은 탄도의 샷으로 지면보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골프 클럽

호젤 아이언 클럽 헤드 부분의 샤프트를 끼우는 구멍.

페이스 샷 할 때 볼이 맞닿는 부분

헤드 샤프트에 붙어있고, 볼을 치는 부분

토우 당신 발의 발가락처럼, 클럽과 샤프트가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앞쪽에서 가장 먼 곳.

힐 토우의 반대쪽.

소울 클럽의 바닥 에지(Edge)로 지면과 맞닿는 곳.

골프 코스

블라인드 블라인드 홀은 볼이 낙하되는 지점을 볼 수 없기에 믿음의 샷이 필요하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린을 향해 플레이 하려면 블라인드 샷이 필요하다.

도그렛 모호한 해부학적인 말로 언급한 것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홀이다. 보통 티와 그린 사이 반 정도 거리에서 휘어졌다. 상공에서 홀을 보게 되면, 페어웨이가 굽은 것처럼 보인다.

에이프런, 칼라, 프린지 모두 똑 같은 것을 의미 한다. 퍼팅 그린 바로 밖 에지.

첫 번째 컷, 두 번째 컷 페어웨이 바깥쪽 구역을 표현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컷은 페어웨이 바로 바깥쪽 두 번째 컷은 깊은 러프 구역이다.

경기 기록

에이스 홀인원.

더블 이글 아주 드문 경우로 파5 홀에서 2타 스코어 기록하는 것.

버디 축하 인사를 받는 경우로 1 언더 파이다. 파3에서 2타, 파4에서 3타, 파5에서 4타 스코어.

파 기준 타수 스코어. 한 홀에서 전문가가 인준한 기준 타수의 스트로크를 기록하는 경우.

보기 기준 타수 보다 한 타 많은 스코어로서 파 4에서 5타 기록하는 것.

더블 보기 파한 홀에서 기준타수 보다 두 타수 많은 스코어로서 파 5에서 7타 기록하는 것.

트리플 보기 명칭 하기 나름이다. 기준 타수 보다 3타 많은 스코어.

기타

샷건 스타트 토너먼트에서 팀들 모두가 첫 번째 홀에서 스타트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홀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것. 이 방식은 시간을 절약해 주고, 거의 같은 시간에 경기가 끝나는 장점이 있다.

윈터 룰 친선 도모 골프 라운드 시 누군가의 샷 하는 조건이 안 좋을 때 관행적으로 행하며, 비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경기 방식. 윈터 룰에 따르면 골퍼들은 그들의 볼을 치기 좋은 굴리거나 옮겨서 샷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볼의 낙하지점에서 한 클럽길이 이내에서 가능하다.

써머 룰 볼이 낙하한 지점에서 있는 그대로 플레이 하는 것.

숙련된 골퍼와 초보 골퍼

숙련된 골퍼

- 오직 경기 시간 준수 및 적절한 에티켓을 지켜 주기를 기대한다.
- 보기 혹은 버디를 했을 때 누군가 “나이스 파”라고 하면 움찔거리며 놀란다.
- 볼이 단지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해서 “굿 샷”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 본인의 약점에 대해 장황하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게임을 어떤 식으로 망치는 지, 어떻게 그들의 경기 진행을 지연 시키는지, 당신이 얼마나 잘 못 치는지 등등의 이야기.
- 토너먼트 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같은 룰로 경기를 할 때 누군가가 경기 속도를 무리 없이 잘 유지하기만 한다면, 페어웨이에 있는 볼을 좋은 곳으로 옮겨서 플레이해도 신경 안 쓴다.
- 그들도 한때는 또한 골프 초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그 홀에서 재미를 잃었거나 당신이 진행 속도가 느리다면, 공을 집어 올려서 홀 아웃하면 감사해 할 것이다.
- 시간에 맞춰 플레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초보 골퍼

- 초보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감사하지만, 코스 라운드 시 레슨을 원하지는 않는다.
- 대부분의 초보들은 앞쪽 티에서 플레이 하더라도 잘하는 플레이어들과 같이 똑같이 대해 주기를 바란다.
- 그들이 파 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이스 파”라고 이야기 해주면서 알아 주기를 희망한다.
- 초보 골퍼들은 그들이 플레이하기도 전에 숙련된 골퍼들이 계속적으로 티 박스를 지나가기 양기를 바란다.
- 그들의 퍼팅 후 김미를 받으면서 발로 차서 볼을 돌려주기 전에 물어봐 주기를 바란다.
- 초보 골퍼들은 우리를 열광시키는 샷에 실망하는 사람들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 고수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라운드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라운드를 하는 것에 긴장한다.
- 진행속도는 플레이어의 수준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골프 에티켓 중 피해야 할 10가지

1. 플레이 준비가 안 된 것.
2. 멀리건 사용.
3. 동반자의 퍼팅 라인 밟는 것.
4.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것.
5. 연습 스윙을 여러 번 하는 것.
6. 디봇 자국이나 피치 마크를 수리 없이 무시 하는 것.
7. 라운드 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8. 남이 들리도록 속삭이는 것.
9. 벙커 정리 없이 나오는 것.
10. 남성들이 주머니 속에서 동전 딸랑 거리는 소리.

편집 후기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속적 거래의 박사학위로 골프라는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한 골프장의 첫 티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야망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여 골프를 사랑하는 우리는 글로벌화 시대에 비즈니스 골프를 활용하여 세계로 나아가려는 당신에게 경기 속도에 맞춰 플레이하고, 공평한 시합을 위한 골프 룰을 존중하고, 라운드 전과 후에 악수하고, 골프의 핵심인 스포츠맨십의 관례를 잘 따르고, 골프 경기와 당신의 클라이언트가 편안히 골프 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당신은 여기 중요한 장을 학습하고 마쳤기에 라운드를 끝냈음에도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룰을 준수하고,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닌 계속적으로 함께 플레이하기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매너 있는 골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당신의 길로 보내드립니다. 전설적인 하비 페닉의 명언을 결코 잊지 마세요. “골프 하는 것은 특혜이지, 형벌이 아니다. “당신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라. (“위풍당당한 길로 들어서는” 신호이다.)

추천 도서

- 토마스 D. 아모어. *토미 아모어의 골프 라운드(A round of Golf with Tommy Armour)*
- 바우어. *해저드(Hazards)*
- 케네스 G. 챔만. *그린 위 룰(The Rules of the Green)*
- 데일 칸케넨, 킴프. *골퍼를 위한 현명한 말(Wise Words for Golfers)*
- 데렐 서베이. *골프 장비 연감, 2000(Golf Equipment Almanac, 2000)*
- 이안 T. 헨더슨, & 데이빗 I. 스티크. *미완의 골프(Golf in the Making)*
- 콜린 M. 에드 자만. *홀컵은 총 퍼트의 이상을 의미한다.(The Hole is More Than the Sum of the Putts.)*
- 로버트 타이레 존스 주니어. *바비 존스의 골프(Bobby Jones on Golf)*
-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 *골프장 설계(Golf by Design)*
- 테리 에드 레오나르도. *여성의 클럽하우스(In the Women's Clubhouse)*
- 바비 라케. *바비 라케의 골프(Bobby Locke on Golf)*
- 헨리 롱허스트. *골프 시작하는 법(How to Get Started n Golf)*
- 롤랜드 메를로. *골프 열정(Passion of Golf)*
- 에드 팔랭크. *골프 다큐멘터리(The Golf Doc.)*
- 버드쉬라케와 하비 페닉. *하비 페닉의 어록(Harvey Penick's Littel Red Book)*
- 게리 플레이어. *골프의 의미 있는 삶(The Golfer's Guide to the Meaning of Life)*
- 존 안드리사니와 마크 러셀. *간단한 골프 룰(Golf Rules Plain and Simple)*
- 러스 플레이트와 더그 샌더스. *130가지 종류의 골프 내기(130 Different ways to Make a Bet)*
- 워렌 더 멜 샤피로와 레오나르도 버거 에드. *골프: 세기말의 보물(Golf A Turn-of-the-Century Treasury)*
- 샘 스네드. *골프 하는 법(How to Play Golf)*
- 프랭크 “샌디” 태텀 주니어. *골프와의 연애(A Love affair with the Golf)*
- R&A Rule와 USGA(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골프 규칙, 2002-2003 (Decisions on the Rules of Golf, 2002-2003)*
- 존 업다이크. *골프 꿈(Golf Dreams)*

- 해리 바든. *골프 치는 법(How to Play Golf)*
- P.G. 우드하우스. *디봇(Divot)*

저자들에게 관하여

전설의 하비 페닉의 제자인 **바바라 푸에트(Barbara Puett)**는 그녀의 골프 학교와 텍사스 대학에서 교양과목 수업을 통해서 수천 명의 1학년 학생들에게 골프란 스포츠에 대해서 소개시켰다. 여성 역량 강화훈련 통제관인 그녀는 『여성 자신의 골프 북』(세인트 마틴의 프레스, 1999)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남편 로안과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다.

남부 텍사스 PGA 미디어/홍보상 부문에서 두 번의 수상 경력과 작가, 저널리스트 겸 방송인 **짐 압펠바움(Jim Apfelbaum)**은 현재 텍사스 골프 작가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으로 이 책은 그의 네 번째 작품이다. 그는 『볼을 있는 그대로 치고, 버릴 건 버려야』라는 책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에디 데비스(Eddy Eavis)가 그린 멋진 삽화는 『여성 자신의 골프 북』의 그래픽 완성도를 높여준다. 훌륭한 골프 아티스트, 삽화가, 세미 골프 프로인 에디의 작품은 미국, 한국과 네덜란드 카리브해 지역에 개인 소장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 같다.

「오스틴 미국 스테이크맨」 보도 사진가인 **랄프 바레라(Ralph Barrera)**는 수퍼 볼 게임, 허리케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했다. 그는 골프실력이 출중해서 USGA 지구 예선전에서 세 번 우승하기도 하였다.



1964년 마스터스대회 18번 홀 그린위의 아놀드 파머와 데이브 마.
파머가 6타 차이로 우승했다. 마는 2위를 기록했다. (존 마의 사진 제공)

참고 서적

원본 : Barbara Puett and Jim Apfelbaum. GOLF ETIQUETTE(*Revised Edition*). St. Martine's Press [New York]. 2003

- 밥 존스의 『바비 존스의 골프』 . Bob Jones, *Bobby Jones on Golf*
- 삼 스네드의 『골프 하는 법(1946)』 . Sam Snead, *How to Play Golf*(1946)
- 메이벨 E. 스트링어의 『골프 회상록(1924)』 . Mabel E. Stringer, *Golfing Reminiscences* (1924)
- 개리 플레이어의 『인생의 의미로 가는 골퍼의 지침서』 . Gary Player, *The Golfer's Guide to the Meaning of Life*
- 애버던의 골퍼 모임에서(1783). The Society of Golfers at Aberdeen(1783)
- 아일랜드 클레어의 『라힌치 골프장의 스코어카드』 . Scorecard from Lahinch Golf Club, Co. Clare, Ireland
- 피터 탐슨의 『알렉 바우어의 해저드 후기』 . Peter Thomson, in the afterword to *Hazards* by Aleck Bauer
- 잭 버케의 『골프의 10가지 레슨』 . Jack Burke, *Ten Lessons in Golf*(1921)
- 프랭크의 "샌디" 타툼 주니어 『골프와의 연애』 . Frank "Sandy" Tatum Jr., *A Love Affair with the Game*
- 골프 규칙 2002-2003. *Decisions of the Rules of Golf* 2002-2003
- H.J. 위검의 『골프 상식(1910)』 . H.J. Whigham, *The Common Sense of Golf*(1910)
- 헨리 롱허스트의 『골프 시작하는 법』 . Henry Longhurst, *How to Get Started in Golf*(1967)
- 버나드 다윈의 『영국에 있는 골프 코스들』 . Bernard Darwin, *The Golf Courses of the British Isles*(1910)
- 해리 바든의 『골프 하는 법(1913)』 . Harry Vardon, *How to Play Golf*(1913)
- 타미 아모어의 『타미 아모어와의 골프 라운드』 . Tommy Armour, *A Round of Golf with Tommy Armour*